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재영 · 박상남 편저

지역연구시리즈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재영 · 박상남 편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07-01 / 연구자료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인 쇄 2007년 4월 5일
발 행 2007년 4월 10일
발행인 이 경 태
발행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주)예원기획: 02-745-809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 16-375호

<http://www.kiep.go.kr>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6091-4 94320

978-89-322-6089-1(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재영 · 박상남 편저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을 분석하고, 중앙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을 통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중국, 터키, 일본 등 주요국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정치개혁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민주화 정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여 대체로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수준 역시 국내정치 상황, 부존자원, 시장경제 이행 및 경제개방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수출과 개방적인 경제 운영으로 연 10%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은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는 원유 수출 확대 등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출을 통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아제르바이잔은 당분간 에너지 수출의존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성, 성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 우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을 한국의 중점 경제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경제협력을 집중하고, 점차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가장 유용한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판단되는 중국, 터키 및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과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세계 전략과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의

교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테러 방지, 평화 유지, 군사·정치적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착실히 증대시키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아시아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터키는 활발한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통해 투르크 혈통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결속함으로써 인종, 교육, 언어·종교적 측면에서 정서적·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진출을 촉진하고 보완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터키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유기적인 민관 합동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비롯한 물적·인도적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 협력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외교를 바탕으로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고 외무부장관 회담인 ‘중앙아시아+일본 협의체’라는 독자적인 다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앙아시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각종 지원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나, 아직까지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2006년 11개월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간의 총교역액은 13억 2,775만 달러로, 한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5%, 0.11%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2006년 말까지 총 164건에 9억 1,974만 달

러로, 한국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건수의 약 0.5%, 투자금액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훌륭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정보통신, 건설, 운송 등 제반 경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유망 진출분야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과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건설사업 참여를 비롯하여 정보통신(IT)산업, 유통산업, 부동산 개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對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수립이 절실하며, 중앙아시아 현지 시장개척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향후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는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자원 확보,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제고,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구축,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등이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한 주도면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이재영 13
제2장.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고재남 17
1. 부상하는 중앙아시아와 한국	17
2.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환경 개관	20
3.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23
가. 미국의 전진정책과 주요국간 세력경쟁의 심화	23
나.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25
다. 활발한 다자 지역협력	30
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의 상존	35
마. BRICs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 교차점	37
4.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전망	39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정치 상황과 전망	박상남·이재영 42
1. 주요국의 정치상황	42
가. 카자흐스탄	42
나. 우즈베키스탄	46
다. 키르기스탄	50
라. 타지키스탄	53
마. 투르크메니스탄	56
바. 아제르바이잔	59
2. 중앙아시아의 정치 발전 전망	62

제4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철원 · 신현준 65

1. 주요국의 경제상황	65
가. 카자흐스탄	65
나. 우즈베키스탄	74
다. 키르기스스탄	80
라. 타지키스탄	85
마. 투르크메니스탄	90
바. 아제르바이잔	95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장기 전망	102
가. 경제발전 평가	102
나. 시장성 · 성장성 평가	108
다. 향후 전망	111

제5장.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분석

이재영 · 박상남 · 이지은 116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116
가. 서론	116
나.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118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120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132
2.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134
가. 서론	134
나. 터키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135
다.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사례	140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166
3.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168
가. 서론	168
나.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전략	170
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원조외교	173
라.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180
마.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187

제6장.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와 대응방안	이재영 · 박상남	189
1.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협력관계		189
2. 한국의 대응방안		195
가. 에너지자원 확보		195
나. 지정학적 가치 확인		197
다.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198
라.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199
참고문헌		201
Executive Summary		217

표 차례

표 2-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지표(2004년 현재)	22
표 2-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구성비	23
표 2-3.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 매장량	26
표 2-4. 카스피해 지역의 가스 매장량	27
표 2-5. 중앙아시아- 카스피해의 석유 수출 송유관	27
표 2-6. 카스피해 지역 천연가스 수송관	28
표 2-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 지역협력 참여 현황	34
표 4-1.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66
표 4-2.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전 현황	68
표 4-3. 카자흐스탄 『혁신산업발전전략 2003-2015』의 세부 정책	71
표 4-4.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및 IT 발전계획	73
표 4-5.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75
표 4-6. 키르기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81
표 4-7.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생산 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82
표 4-8. 타지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86
표 4-9. 중앙아시아·카프카스 7개국의 TFP 비교	87
표 4-10.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 생산 및 가격 동향	88
표 4-11.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91
표 4-12.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동향	93

표 4-13. 아제르바이잔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96
표 4-14.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동향	98
표 4-15.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2005년)	103
표 4-16. 중앙아시아 6개국의 GDP 성장률 동향	104
표 4-17. 중앙아시아 6개국의 1인당 GDP 동향	104
표 4-18. 중앙아시아 6개국의 농업·제조업·서비스업 GDP 비중 변화	105
표 4-19. 중앙아시아 6개국의 주요 대외경제지표 변화와 2006년 경제자유도	106
표 4-20.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지표(2005년)	109
표 4-21. 중앙아시아 6개국의 성장성 지표	110
표 4-22. 중앙아시아 6개국의 주요 거시경제 전망	112
표 4-23.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전망	114
표 4-24.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성장성 전망	114
표 5-1.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 추이	125
표 5-2. 터키의 대카자흐스탄 교역량(1993~2005년)	150
표 5-3. 터키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량(1993~2005년)	152
표 5-4. 터키의 대아제르바이잔 교역량(1993~2005년)	157
표 5-5. 터키의 대키르기스스탄 교역량(1992~2005년)	159
표 5-6. 터키의 대투르크메니스탄 교역량(1992~2005년)	162
표 5-7.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국가별 ODA	174
표 5-8.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일본의 기술협력 실적	175
표 5-9. 2006년 중앙아시아에서 실행된 일본의 ODA 내역	176
표 5-10.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일본의 무상자금협력 실적	177
표 5-11.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량 추이	180
표 5-12.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생산물분배협정(PSA) 현황	184
표 6-1. 2000~06년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량 추이	191
표 6-2. 對중앙아시아 직접투자 현황	192
표 6-3. 중앙아시아 국별 유망 투자분야	194

그림 차례

그림 5-1.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원유개발 계약 체결 지역	128
그림 5-2. 중국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132
그림 5-3. BTC 송유관	148
그림 5-4. 2005년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부문별 현황	151
그림 5-5. 2005년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152
그림 5-6. 2005년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별 현황	155
그림 5-7. 2005년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156
그림 5-8. 2005년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별 현황	160
그림 5-9. 2005년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161
그림 5-10.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별 현황	163
그림 5-11.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164

제1장

서론

이재영

중앙아시아는 냉전 해체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가장 부상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지정·지경학적 가치는 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잘 말해주고 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비단 길(silk road)’ 문명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중앙아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지경학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망한 상품 수출시장 및 자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브릭스(BRICs)로 지칭되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인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강화는 물론 다자협의체제 구축, 에너지·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복원과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 통제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가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세계 수요의 25%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에너지의 전략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에너지자원의 수송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까지 3,000km에 이르는 송유관과 가스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역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0억이 넘는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6위의 에너지 소비국에 오른 인도는 에너지 수급을 위해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는 그동안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주된 요인인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1,400km의 ‘에너지 고속도로(Energy Highway)’를 건설하고 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에너지와 물류가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인도와 중국의 관할하에 있는 카쉬미르까지 용이하게 이동하여 이 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역시 1997년 ‘유라시아 외교’를 표방한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의 향배가 동북아정세에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

로 국내에 부족한 산업 및 사회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 수출 중심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산업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예측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중양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미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중양아시아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양아시아는 에너지수출국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인구증가율도 높아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러한 고도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비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다각화와 지속적으로 국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양아시아는 중요한 안보·외교·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등 천연자원 확보와 상품 수출시장 개척, 현지 자본투자, 각종 건설 및 자원개발 사업 참여는 물론 총 35만 명에 달하는 현지 거주 고려인의 권익 보호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차원에서도 중양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양아시아는 대단히 유용한 지역이다.

이처럼 중양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인 진출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고, 이에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對중양아시아 중장기 진출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부 차원의 진출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양아시아의 정치·경제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 주요국의 중양아시아 진출방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에서는 냉전 해체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중양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3, 4장에서는 중양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 분석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국의 중아시아 진출확대를 위해 가장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 터키, 일본의 중아시아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은 한국과 중아시아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중아시아에서 한국이 갖는 주요 이해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물론 내용의 충실도나 완결성 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아시아에 관한 지역연구가 아직 미흡한 국내 현실에서 부족하나마 중아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이 책은 국무조정실의 지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6년 5월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중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2장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고재남

1. 부상하는 중앙아시아와 한국

갑작스런 소연방의 붕괴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의 전략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냉전시대 미·소간 첨예한 대립의 최전선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였으며 소련 영토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는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물론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중앙아시아는 미·소간 군사적 대립의 현장으로 변했으나 주(主) 전장은 어디까지나 아프가니스탄이었지 중앙아시아는 아니었다.

그러나 소연방의 붕괴와 이에 따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독립은 ‘거대게임(Great Game)’, 즉 역내외 주요 국가들간 세력경쟁을 재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소연방 붕괴 후 ‘힘의 공백상태’에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역내외 국가, 즉 미국, EU, 중국, 터키, 이란 등 사이에 힘(power), 패권(hegemony), 경제적 이득(economic profit)을 둘러싼 경쟁이 재현되었다. 이를 지역 연구자 및 국제정치 학자들은 19세기~20세기 초 영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벌였던 ‘거대

게임'과 대비시켜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명명하였다.¹⁾

중앙아시아가 역내의 주요국간 거대 게임의 장(場)으로 재등장하였다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교역과 문화의 통로 역할, 즉 소위 '비단 길(silk road)'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중앙아시아는 소련의 통치시기에 통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소련 붕괴 이후에는 주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 및 불법 무기류를 유럽으로 불법 유통하는 길목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풍부한 에너지와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을 잇는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에 성공한 이웃 우크라이나, 그루지아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장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의 오래된 민족·국경 분쟁의 재발 여부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심이 높다.²⁾ 특히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과 접경해 있어서 세속적 이슬람 권위주의 국가들인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경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내륙 및 카스피해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 및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또한 역내 국가들이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품수출 및 자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BRICs로 지칭되면서 향후 세계경제를 주도할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접경 또는 인접 지역으로, 한편으로는 중국, 인도에 대한 에너지·자원의 공급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의 이 3

1)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신 거대 게임'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많은 연구물이 생산되었으며, 국내 문헌의 경우 필자의 논문 고재남(2005a) 참고.

2) 고재남(2005b) 참고.

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지전략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및 알 카에다의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인접한 관계로 국제적 반테러 작전 및 WMD 비확산을 위한 관심지역이며,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강대국간 세력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또한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인접하여 핵무기 확산 및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서 크게 증대되었다.

이렇듯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우리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1948년부터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외교의 기본 목표, 즉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적 번영, 국제적 위신 증대와 지위 향상 이외에 분단국가로서 민족통일의 달성을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전략은 정부 수립 이래 대내적 정치·경제·사회 환경, 대외적 외교·안보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서 달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외교정책 목표와 외교전략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 세계 등의 영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외교정책 목표와 외교전략이 달랐다. 특히 대통령제 헌법구조 및 남북분단 상황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대통령의 외교정책 정향 및 리더십에 따라서 외교정책 목표의 우선성 및 외교전략에 차이가 있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확대, 포괄적·역동적인 한미 동맹 구축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건설해나간다는 것을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위한 외교정책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이 없이는 동북아 차원, 더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기한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정책적·지역적 우선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상 정책 목표를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동북아시아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라고 정하였다. 물론 이들 외교·통상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는 비록 2005년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결정, 실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외교·통상 정책 목표이자 이행과제임이 틀림없다.³⁾

그러므로 중앙아시아는 우리 외교·통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 지역은 아니지만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등 천연자원 확보와 상품수출시장 진출 △ 현지 자본 투자 및 각종 건설 및 자원개발 사업 참여 △ 총 35만 명에 달하는 현지 거주 고려인의 권익 보호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 국제사회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지평의 확대 △ 다자 지역협력의 경험 공유, 여섯째 강대국의 진출전략에 대한 이해 제고 등과 같은 외교·통상 정책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2.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환경 개관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의 형성,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문·지리 환경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인 것은 외교통상부의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참고.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중심의 방대한 내륙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라시아내에 존재했던 수개의 강대국과 접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연결시켜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었다. 중앙아시아는 파미르 고원, 천산 등 세계적인 고원지대와 높은 산, 카라쿰, 키질 쿰, 타클라마칸 등 사막들, 그리고 광대한 스텝, 초원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역내 민족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통일된 강대국 건설은 물론 천혜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Central Asia)’란 용어는 지리학자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에 의하여 1843년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는 스탈린 통치 이전에는 투르케스탄(Turkestan)으로 불리었으며, 구소련 시절에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4개 소연방 구성국, 즉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간 아시아(Middle Asia)’, 그리고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통치영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포함한 광의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앙아시아(Central Asia)’로 지칭되었다.⁴⁾

그러나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회합을 갖고 ‘-스탄(-stan)’이 들어가는 역내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칭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에너지문제를 논의할 때나 이슬람교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남코카서스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을 범중앙아시아 지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편 UNESCO는 소연방 붕괴 이전에 발간한 자료에서 기후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결과 중앙아시아는 몽골,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 서부, 이란 북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서부, 타이가 남부인 중동부 러시아, 소연방 구성 5개국, 인도 북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4) http://en.wikipedia.org/wiki/Central_Asia.

■ 표 2-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지표(2004년 현재) ■

국 가	인구 (만 명)	면적(km ²)	GDP 성장률(%)	교역액 (억 달러)	주요 자원
카자흐스탄	1,514	2,717,300	9.4	328.7	석유, 가스, 석탄, 금, 우라늄
키르기스스탄	508	198,500	7.1	15	금, 석탄, 석유, 가스
타지키스탄	701	143,100	7	16.4	석유, 우라늄, 금, 석탄
투르크메니스탄	486	488,100	23.1	58.2	가스, 석유, 석탄, 금
우즈베키스탄	2,641	447,400	7	54	가스, 석유, 석탄, 금
아제르바이잔	830	86,600	11.2	51	석유, 가스, 알루미늄
합 계	6,680	4,073,600	-	-	-

주: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2004년 수치임.

중앙아시아의 전체 면적은 398만 7천km²로서 한반도의 약 18배, 러시아 영토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할 경우 407만 3,600km²에 달한다. 인구는 2004년 현재 5,850만 명으로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할 경우 6,680만 명으로 각 국가들의 인구 구성은 다민족 혼재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편이나 대체로 국명과 일치된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교 신도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이 많이 살고 있는 관계로 러시아 정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적으로는 이란계 언어를 사용하는 타지크인을 제외하고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투르크멘인, 아제르바이잔인, 타타르인, 위구르인들은 터키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들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 표 2-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구성비 ■

국가	민족구성비
카자흐스탄	카자흐인 46%, 러시아인 34.7%, 우크라이나인 4.9%, 독일인 3.1%, 우즈베크인 2.3%, 타타르인 1.9%, 기타 7.1%
우즈베크스탄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5.5%, 타지크인 5%, 카자흐인 3%, 카라칼파크인 2.5%, 타타르인 1.5%, 기타 2.5%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인 52.4%, 러시아인 18%, 우즈베크인 12.9%, 우크라이나인 2.5%, 독일인 2.4%, 기타 11.8%
타지키스탄	타지크인 64.9%, 우즈베크인 25%, 러시아인 3.5%, 키르기스인 1%, 기타 6.6%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인 77%, 우즈베크인 9.2%, 러시아인 6.75%, 카자흐인 2%, 기타 5.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인 90%, 다게스탄인 3.2%, 러시아인 2.5%, 아르메니아인 2%, 기타 2.3%

자료: CIA World Factbook(2000) [http://www.odci.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은 역사 발전과정에서 역내 민족들에 이익, 불이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 강대국들간 교역로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력경쟁 또는 침략대상으로 장으로 악용되었다. 그 결과 소련붕괴 후 독립 국가로 출범할 때까지 통일되고 독립된 국가보다는 분열되고 취약한 정치체제가 존재하였으며, 민족국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3.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가. 미국의 전진정책과 주요국간 세력경쟁의 심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부상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과거 1990년대와는 달리 역내 군사기지 구축, 경제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전진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⁵⁾ 미국의 중앙아

시아에 대한 전진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정책을 강화시키면서 주요 강대국간 세력경쟁을 격화시키고 역내 현안들, 즉 국제테러, 이슬람 극단주의, 마약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게 제고시켰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아시아는 단지 유라시아에서 홍망을 거듭한 강대국들의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성격으로 인해 지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유목민족의 거주지역이자 해상 무역로가 부재한 내륙국가라는 한계성 때문에 어떤 제국 또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건설되지 못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유럽사에서 폴란드의 역사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분할, 재분할, 정복에 뒤이은 국가소멸 등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과정 속에서 외세의 전쟁터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한편 스탈린에 의한 공산화와 소연방 일원으로서의 편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20세기 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미국, 중국, 터키, 이란, EU 등 역내외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소연방 붕괴 이후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역내외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주로 이 지역에 부존된 에너지 등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경험 확대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신 거대게임’의 재현이라는 중앙아시아 전략환경에 대한 많은 학자 및 언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는 코카서스에 비하여 역내외 주요국간 세력경쟁이 가시화되거나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경우, 비록 CIS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외교정책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옐친 정부하에서 정국불안과 경제위기의 지속, 재래

5) 9·11 테러사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중앙아시아 전략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Olcott(2005), Legvold(2003), Gleason(2004~05), Rumer(2002), Cornell(2004), Maynes(2003) 참고.

식 군사력의 현저한 약화 등의 이유 때문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중앙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중국도 러시아와는 달리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안정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및 상품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한 對중앙아시아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추동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미국도 정치·외교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중앙아시아보다는 체첸전쟁,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송유관(예: Baku-Tbilisi-Ceyhan 연결 송유관 BTC) 건설 등과 같은 역내 현안이 산재했던 코카서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 후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진정책은 러시아, 중국의 안보위협 및 경험 축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고, 양국의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정책을 독자적 또는 양국이 공조하여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푸틴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반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국가들과 양자협력 협정 체결, 주둔군 증강, 중국과 공조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의 역할 강화 등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하였다.⁶⁾ 중국도 역내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2005년 7월 SCO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공조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주둔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의 채택을 주도하였다.⁷⁾ 핵보유국이자 신흥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인도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를 위한 對중앙아시아 외교를 강화시키고 있다.

나.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중앙아시아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막대한 천연

6) 푸틴 정부의 대응은 Peter Rutland(2003), Roy Allison(2004) 참고.

7) 중국의 대응은 Michael Clarke(2005), Niklas Swanstrom(2005) 참고.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카스피해에 주로 매장된 석유 및 천연가스는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자원(석유 2,500억~3,000억 배럴, 천연가스 15조~20조 입방미터)으로서 미국내 유전(220억 배럴) 및 북해 유전(130억~170억 배럴)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및 8번째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카스피해 지역에는 매장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2-3.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 매장량

(단위: 배럴)

국가	확인된 매장량		잠재량	총매장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아제르바이잔	70억	125억	320억	390억	445억
이란	1억		150억	151억	
카자흐스탄	90억	176억	920억	101억	1096억
러시아	3억		70억	73억	
투르크메니스탄	5억	17억	380억	385억	397억
우즈베키스탄	3억	5억	20억	23억	25억
합계	172억	328억	1860억	2032억	2188억

주: 1배럴 = 159리터, 2004년 12월 현재.

자료: <http://www.eia.doe.gov/emeu/caspstats.html>

카스피해 지역은 중국, 인도 등 역내의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지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양자협력은 물론 역내의 국가들간 세력경쟁 또는 신 거대 게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자원의 매장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대시켜주고 있다.

■ 표 2-4. 카스피해 지역의 가스 매장량 ■

(단위: Tcf)

국가	확인된 매장량	추정량	총매장량
아제르바이잔	30	35	65
이란	0	10.6	10.6
카자흐스탄	65	88.3	153.3
러시아	n/a	n/a	n/a
투르크메니스탄	71	158.9	222.9
우즈베키스탄	66	35	101
합계	232	327.8	559.8

주: 1Tcf(trillion cubic feet)= 1조 입방피트, 2004년 12월 현재.
 자료: <http://www.eia.doe.gov/emeu/caspstats.html>

■ 표 2-5. 중앙아시아- 카스피해의 석유 수출 송유관 ■

명칭/위치	루트	1일 수송량	길이	비고
Atyrau-Samara Pipeline	Atyrau(카자흐스탄)-Samara(러시아)-러시아 송유관	31만 배럴	432miles	
BTC Pipeline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그루지야)-Ceyhan(터키)	100만 배럴	1,038miles	2005년 5월 완공
Baku-Supsa Pipeline	Baku-Supsa (그루지야)	14만 5천 배럴	515miles	1999년 4월 수출 시작
Baku-Novorossiisk Pipeline	Baku-Chechnya(러)-Novorossiisk(러)	10만 배럴 (30만-60만까지 가능)	868miles (체첸내 90miles)	1997년 수출 시작
Baku-Novorossiisk Pipeline (체첸 비경유)	Baku-Dagestan(러)-Tikhoresk(러)-Novorossiisk(러)	12만 배럴 (2005년부터 36만 배럴)	204miles	2004년 4월 완공
CPC Pipeline(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	Tengiz(카)-Novorossiisk(러)	56만 5천 배럴(2015년까지 134만 배럴)	990miles	
Central Asia Oil Pipeline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100만 배럴 수송계획	1,014miles	참가국 의정서 체결, 그러나 국내 정세 불안정 및 재원조달 문제로 계획 중단 상태임.

주: 2002년 7월 현재.

표 2-5 계속

명칭/위치	루트	1일 수송량	길이	비고
Iran-Azerbaijan Pipeline	Baku-Tabriz(이란)	20만~40만 배럴 예정	N/A	TotalFinaElf 제안
Kazakhstan-China Pipeline	Aktyubinsk(카)-Xinjing(중)	40만~80만 배럴 예정	1,800miles	1997년 협정 체결, 1999년 9월 타당성 조사가 중단됨.
Kazakhstan-Turkmenistan-Iran Pipeline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1백만 배럴 예정	930miles	타당성 조사 2005년 종료
Khashuri-Batumi Pipeline	Dubendi(아제르바이잔)-Khashuri(그루지야)-Batumi	7만 배럴로 시작 14만~16만 배럴로 증량 예정	철도(Dubendi-Khashuri)와 송유관 (105miles)	

자료: <http://www.eia.doe.gov/emeu/caspstats.html>

표 2-6. 카스피해 지역 천연가스 수송관

명칭/위치	루트	수송량(년)	길이	비고
Baku-Erzurum Pipeline	Baku-Tbilisi-Erzurum(터키)	254Bcf	540miles	2002년 여름 공사 시작
"Centgas" (Central Asia Gas)	Daulatabad(투)-Herat(아프가니스탄)-Multan(파키스탄), 인도로 연장 가능	700Bcf	870miles (인도 연장시 400miles 추가)	2002년 5월 가스관 건설계획 재협의를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개최
Central Asia-Center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우즈 베키스탄-카자흐스탄- 러시아	3.5Tcf	기존 루트	2002~06년 사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우크라이나에 8.83Tcf 수출 예정
China Gas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신장 (일본으로 연장 가능)	1Tcf	4,161 miles	타당성 조사 종료
Trans-Caspian Gas Pipeline	투르크멘바쉬(투)-바쿠-트빌리시-Erzurum	1단계로 565Bcf, 1.1Tcf까지 증가됨.	1,020miles	가스관 건설계획 중단됨.
Korpezhe-Kurt-Kui	Korpezhe(투)-Kurt-Kui(이란)	283~350Bcf, 2005년 459Bcf로 증산 예정	124miles	1997년 12월 운영 시작

주: 2002년 7월 현재.

자료: <http://www.eia.doe.gov/emeu/caspstats.html>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는 러시아, 이란이 여타 연안지역을 점유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지는 카스피해 연안이거나 인접 지역이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체 석유자원 중 30~40%가 카스피해에 매장되어 있다. 천연가스 대부분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카스피해 연안국가 아님) 등 중앙아시아 해안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카스피해 지역의 대부분 석유·가스 매장지는 아직 개척 및 개발 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 국제 석유·가스 회사들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부각되면서 개발권 획득 및 수출로(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왔다. 즉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기존의 송유관을 원하는 대신에 미국 등은 BTC 노선, 즉 아제르바이잔(바쿠), 그루지야(트빌리시), 터키(제이한) 등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송유관의 건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석유·가스 수송관 건설을 둘러싼 분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 재벌들의 BTC 사업 참여 허용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서 갈등양상이 누그러졌다. BTC 라인인 2005년 5월 완공되어 같은해 10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고, 2006년 5월부터 수출을 개시했다.⁸⁾

중앙아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자국의 석유 및 가스를 기존 러시아를 거치는 송유관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건설될 송유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로 송유관 및 가스관 노선 문제가 카스피해 지역의 경우보다는 극심하지 않다. 이곳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세의 불안정이다.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는 석유가스 수송관은 서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석탄, 우라늄, 아연, 금 등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8) BBC News(2005. 5. 25). "Giant Caspian Oil Pipeline Opens."

금은 세계 매장량의 5위, 우리나라는 세계 매장량의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개발되거나 탐사되지 않은 광물자원이 많으며,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큰 실정이다.

다. 활발한 다자 지역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발트 3국, 그루지야 등 여타 소연방 구성국과는 달리 예기치 않게 사상 처음으로 주권 독립국가로 탄생하였으며, 그 결과 역내 국가간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외교인력은 물론 대외업무를 수행할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중국, 러시아와 서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고 에너지 보고 카스피해에 인접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역외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붕괴과정에서 탄생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에 1991년 12월 가입하였으며, UN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외 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협력은 물론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이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NATO-pf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EU와 『동반자 및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협력해오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차원 또는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차원에서 창설, 발전되고 있는 다자 지역협력체는 매우 다양하다.⁹⁾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도하에 창설된 다자 지역협력체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9) Heidemaria Gurer,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http://blmlv.gv.at/pdf_pool/publikationen/10_wg_ftc_20.pdf; spechler(2002); Cornell(2003).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와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등을 들 수 있다. CICA는 1992년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의 주도로 창설되어 중앙아시아와 주변국가들간 신뢰 구축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해오고 있다. 현재 CICA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 외에 중국,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몽골,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러시아, 터키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옵서버로 참여해오던 한국은 2006년 6월 개최된 CICA 정상회담 직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은 현재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CICA의 주요 어젠다는 군축, 비핵지대화 등과 같은 안보이슈, 분리주의, 불법 유입, 테러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이슈 등이다. CICA는 최근에 들어와서 회원국간의 협력 부진과 유사 다자협력체인 SCO의 창설로 인해 활동이 약간 부진한 편이다.

한편 CACO는 1994년 1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들에 의하여 탄생된 ‘중앙아시아 협력연합(Central Asian Cooperation Union: CACU)’이 개편되어 출범한 기구이다. 타지키스탄은 내란이 종식된 1998년, 러시아는 2004년부터 각각 참여하고 있다. CACU는 1998년 7월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로 개칭되었다가 1999~2000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사태가 빈발함에 따라서 경제협력에 안보협력을 추가하여 보다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는 CACO로 개편되었고, 우즈베키스탄의 권유에 의하여 러시아가 참여하였다. CACO는 2005년 가을 해체되기 전까지 알마티에 사무국과 은행을 두고, 회원국 참여 의회가 구성되어 의장국은 돌아가면서 맡았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역외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제협력의 경우, 1996년 관세동맹으로 창설되어 2000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로 개명된 EURASEC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역외 국가로는 벨로루시와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EURASEC의 목적은 완전한 관세동맹의 구축과 EU와 유사한 공동 경제공간을 창설하는 것이다. EURASEC은 유사한 경제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CACO가 해체되고, EURASEC의 가입을 추진해온 우즈베키스탄이 2006년 1월 가입함으로써 현재 가맹국은 6개국이다.¹⁰⁾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푸틴 정부가 EURASEC을 통한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다자 경제협력체로는 2003년 창설된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SES)’인데 여기에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가 속해있다. 단일 경제공간은 경제주권의 침해를 우려한 우크라이나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 3개국은 SES의 조기 완성을 위한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란, 터키, 파키스탄에 의하여 1985년에 창설된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에 1992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ECO는 회원국간 교역, 부정거래 단속, 공동 에너지 기구, 공동 상업은행 설립 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역외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안보협력체에 다수 중앙아시아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 1996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창설된 SCO에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SCO는 원래 ‘상하이 5’라는 이름으로 7,400km에 달하는 중소 국경문제의 해결과 국경 지역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하여 정상회담을 시작하였으나, 2001년부터

10) "Uzbekistan joins EurAsEC," <http://en.rian.ru/analysis/20060125/43186147-print.html>(검색일: 2006년 6월 26일); Claire Bigg, "Post-Soviet Groupings Unite,"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pp100805_pr.shtml(검색일: 2006년 6월 26일).

우즈베키스탄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은 물론 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협력범위도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SCO는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극단주의, 반테러, 분리주의에 공동 대응하면서 경제·사회·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협력체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중앙아시아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 팽창과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에 참여하고 있다. CSTO는 러시아의 주도하에 1992년 창설되어 1994년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CIS내 집단안보협력기구가 9·11 테러사태 이후인 2002년 10월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개칭된 기구다. CSTO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탈퇴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옵서버 국가이다.¹¹⁾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터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창설된 ‘투르크 협력(Turk Cooperation)’에 참여하고 있다. 투르크 협력은 터키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간의 문화 협력 및 교류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이 여타 회원국에 속한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협력(Caspian Cooperation)’에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과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스피해 협력은 이란이 투르크 협력에 대항하여 창설한 다자 기구이다.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은 1997년 창설된 GUUAM¹²⁾에 참

11) Saat(2005)

12) GUUAM은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다섯 국가명의 이니셜의 조합이다. 1997년 포스트 소비에트 4개국(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이 만든 연합체로 1999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했다. GUUAM은 회원국들의 주권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경제와 특히 기술부문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 교역로의 안전한 확보, 상

여해왔으나 2005년 GUUAM이 너무 친서방적이면서 반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자 우즈베키스탄은 탈퇴하였다.

■ 표 2-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 지역협력 참여 현황 ■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비고
CICA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X	X	X	X		X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수개 역외 국가 참여
CACO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X	X	X	X			러시아 참여
EURASEC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X	X	X	X			러시아, 벨로루시 참여
ECO (경제협력기구)	X	X	X	X	X		이란, 터키, 파키스탄 참여
SCO (상하이 협력기구)	X	X	X	X			러시아, 중국 참여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	X		X	X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참여
Turk Cooperation	X	X	X		X	X	터키 참여
Caspian Cooperation	X				X	X	러시아, 이란 참여
PFP/EAPC	X	X	X	X		X	
EU와 동반자·협력 협정	X	X	X	X	X	X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X	X	X	X	X	X	
SES (단일경제공간)	X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참여
GUUAM		X				X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탈퇴

결론적으로 고립정책을 표방하면서 역내 다자 지역협력기구에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5개국은 역내 경제통합과 안

호 무역 활성화 그리고 카스피해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Yuri Kochub(2003) 참고.

보협력을 위해 역내외 다자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의 상존

중앙아시아는 수많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 즉 민족·종교 분쟁, WMD 확산,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소형무기밀매, 난민, 빈곤 등이 산재한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자 역내외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자아내는 지역이다. 이러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의 상존이 여타 지역보다 두드러진 것은 지리·역사적 요소에 기인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역내외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 등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교차점이자 세력경쟁의 장으로서 안보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 또한 스탈린에 의한 자의적인 행정구역의 획정,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의 확립 등은 독립 후 역내 국가들간 국경분쟁, 수자원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중앙아시아는 소연방의 일원으로서 과거 서방세계와의 무역 등 경제교류 미비, 경제개혁의 부진과 부정부패의 만연 등에 따라 경제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는 상기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들을 양산 또는 현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연방 붕괴 이후에도 중앙아시아에는 WMD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물질, 전문지식, 심지어 전략·전술 핵무기가 남아 있었다. 국제사회는 중앙아시아에서의 WMD 확산을 막기 위하여 러시아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하면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핵무기 등 WMD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취해 왔다. 그러나 여타 핵제조 기술, 물질, 전문지식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끌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위험을 완전하게 제거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외에도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물질, 기술 등의 유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들 및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암약하거나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 인접한 관계로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¹³⁾

마약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은 최근까지 탈레반 정권하에서 전 세계 양귀비 생산의 75~80%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헤로인 수출의 50% 이상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타지키스탄의 GNP 1/3은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등 마약 관련 산업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정부하에서도 이러한 생산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마약류의 생산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특별한 외화 획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군벌들이 암암리에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생산을 강행하고 있음은 물론 이슬람 무장 단체인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이 투쟁자금 확보를 위해 마약밀매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약 밀매의 심각한 폐해는 마약밀매의 통로가 되는 중앙아시아는 물론 코카서스 지역에서 HIV/AIDS와 관련된 질병을 확산시키고 사회분열, 부패양산, 극단주의·테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내란촉발 등과 같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9~2000년 사이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진 IMU의 무장투쟁은 마약밀매와 새로운 판로 개척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⁴⁾ 또한 마약밀매는 역내 조직 범죄의 만연을 가져와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는 IMU 외에도 1952년에 중동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농촌지역의 사회불만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조직인 HuT(Hizb-ut-Tahrir)가 수년 전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

13) Kassenova(2004)

14) Cornell(2005), Tursunov(2002) 참고,

기 시작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 타지키스탄의 우즈베크인,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크인 등이 2등 시민 취급에 불만을 품고 HuT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¹⁵⁾

이외에도 중앙아시아에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소연방 붕괴 후 급격히 악화된 경제사정 때문에 빈곤층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IMU 등 극단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에는 국가간 수자원 확보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페르가나계곡 등에서 국경분쟁이 계속되고 있다.¹⁶⁾

마. BRICs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교차점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200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 『브릭스와 함께 꿈을: 2050년으로 길(Dreaming with the BRICs: The Path to 2050)』에서 향후 신흥 경제대국으로 전망한 러시아, 중국, 인도간 삼각점의 중심이자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이 국가들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국가마다 전략적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고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중앙아시아가 이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나 지리적 근접성, 국제 석유·가스 메이저들이 아직 선점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 등 때문에 중국, 인도에 매우 매력적인 에너지 공급지이자 투자지역이다.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로

15) 김성한(2002), Cornell and Spector(2002) 참고.

16) Sidorov(2005), Swanstrom, Cornell and Tabysheva(2005) 참고.

부터 에너지 공급은 필요 없으나 자국을 통과하는 송유관, 가스관 등을 이용하여 역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전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인도에 대한 에너지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국내외 정세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도도 카슈미르 지역의 안정과 중앙아시아 지역 정세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3국 공히 미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신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상품수출시장 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비록 2005년 가을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인도간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러·중·인 3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일방주의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3각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⁷⁾ 즉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98년 인도를 방문한 기회를 이용해 3국간 협력을 통하여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2005년 4월 인도를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3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고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우방국인 인도가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및 인도가 중앙아시아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에 대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중앙아시아에서 이 3국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17) Kundu(2003); Kuchins(2001).

4.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전망

부존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 또는 유라시아 대륙의 남북의 한 축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미국, EU, NATO의 대중동 및 아프가니스탄 정책에서의 역할 증대, 대테러 전쟁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는 앞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9·11 테러사태 후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진정책의 강화로 더욱 가열되어온 ‘신 거대게임’은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의 세력경쟁에 인도, 일본, 터키 등이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국가들간 세력경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세 및 외교·안보 정책과 결합하면서 브레진스키가 주장하고 있는 체스게임, 즉 일종의 ‘땅 따먹기’ 경쟁의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 거대게임’은 일단 러시아,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미국, EU 등이 재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다양한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역내 국가들과 외교·통상 협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 후퇴는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러시아, 중국의 미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진정책을 상당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7월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테러 군사작전 종료에 따른 중앙아시아내 외국군의 철수를 공식으로 요구하였고, 이는 같은 해 5월 발생한 안디잔 사

태 이후 악화된 미국·우즈베키스탄 관계가 작용하여 같은 해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실현되었다. 물론 SCO의 대미 견제 지역협력체화가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략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NATO의 동진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CSTO, SCO를 동원한 견제력의 강화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키르기스스탄내 군사주둔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지원정책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코카서스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한 미군이 BTC 송유관의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아제르바이잔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미 그루지야군 훈련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군사고문단 및 훈련장교들에 더하여 의미 있는 미 주둔군 증강이다. 또한 미국은 EU와 더불어 GUUAM을 활용하여 이 다자 지역협력체의 회원국인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에 대한 영향력 증대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력이 신장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또는 협력 정책을 더욱 확대시킴에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의 강대국간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고 당분간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국 정치체제의 급격한 민주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중국에 경사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이러한 역내 정치정세를 활용하여 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자 지역협력체인 CSTO, SCO, EURASEC 등을 통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한 지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정부기구, 부적절한 법치질서, 부정부패의 만연, 정부의 정통성 약화,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지연, 민주화의 부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증대, 장래에 대한 비판 고조 등과 같은 유사한 국내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EU 등의 시민단체 지원에 의한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그

리고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시민혁명의 성공은 중앙아시아 국가내 권위주의 정권으로 하여금 대서방 경각심을 더욱 높여 주었으며, 이는 대러, 대중 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경제 정세의 발전을 둘러싼 미국·EU 대 러시아·중국 사이에 직·간접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국의 국내정세는 물론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석유, 가스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 비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외 국가들과의 다자 지역협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내 전략환경은 물론 세계 주요국 간 국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고립주의 또는 중립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곤 일단 친러 성향의 다자 지역협력체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물론 아제르바이잔이 반러 성향의 GUAM 회원국으로서 미국, EU와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반러 정책을 펴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 GUAM의 명시적인 반러 정책을 반대해오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 지역협력 강화는 러시아가 안정된 정치·경제 여건 그리고 제고된 국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對CIS 영향력 유지 및 통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EU 등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의 시민혁명의 여세를 몰아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민주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지원정책을 강화시킨 것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정치 상황과 전망

박상남 · 이재영

1. 주요국의 정치상황

가. 카자흐스탄

1) 국내 정치상황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 붕괴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주도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연방 소속 1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구소련을 대신할 독립국가연합(CIS) 창설을 주도하였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현대 정치사의 주된 흐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통치기 반 강화와 정권의 권위주의 강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1998년 10월, 대통령 임기 연장 및 대통령 피선연령 제한 규정 폐지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신(新)헌법을 채택하였다. 이

후 1999년 1월에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그는 79%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였고, 1999년 9월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 총·대선을 통해 국장을 장악한 나자르바예프는 2000년 1월 경제발전계획 추진을 자신의 주요 국정좌표로 천명하고 정부조직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후 다양한 성장정책을 전개하고 있다.¹⁸⁾ 나자르바예프의 이러한 경제개발우선전략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합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는 신이 내린 기회가 되었고, 풍부한 오일달러의 유입은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에너지자원 수출에 기반한 카자흐스탄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통치기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권력을 살펴보면 1994년 3월 총선을 통해 구성되었던 카자흐스탄 의회는 대통령 지지세력이 의회 과반수를 점유했을 만큼 친위여당이 지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당시 지속되었던 경제침체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점차 반대세력화되자, 199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나자르바예프는 자신의 임기를 200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총선을 재실시(1995년 5월)하여, 친위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연합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되었던 2002년 10월에 실시된 상원선거에서도 다수의 친(親)대통령 인사를 당선(39석 중 16석)시켜 통치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나자르바예프의 친위여당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당원확충 작업을 진행하고 등록여건을 대폭 강화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막고 군소정당의 활동을 원천봉쇄(2003년 4월)하는 등 제도적으

18) 경제부를 경제통상부로, 에너지산업통상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로 재편하고 투자청을 폐지하는 대신 외무부내에 투자위원회를 설치한 것 등이 주요 개편내용이다.

로 야당의 기반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비단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규제나 탄압을 가해 정부에 비판적인 8개의 TV 방송국을 폐쇄(2002년 3월)하고 야당세력인 ‘민주선택’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자키야노프 주지사와 이블라조프 의원을 부패혐의로 체포하였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파헤쳐 온 인권운동가 겸 언론인 두바노프를 출국(카네기 재단 초청) 직전 소녀 강간혐의로 체포(2002년 10월)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다.

2004년의 하원 선거 참패로 주요 정책결정 과정과 정국운영에서 완전 배제된 야권은 부정선거를 이슈화하여 정부와 여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소규모 대중 집회를 주도하고 ‘카자흐 민주세력연합’을 결성하였다. 야권이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에 ‘민주화 및 대중사회 국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정치개혁과 정국운영에 야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제도권내로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2000년 이후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5년 12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는 90%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7년 임기의 3선에 성공함으로써 16년 동안의 집권연장에 성공하고 있다.

현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통치기반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11월 6일까지 등록된 11개 정당은 그 대부분이 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계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들어 카자흐스탄의 군소 정당들의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 7월에는 나자르바예프의 큰 딸인 다리하(Darigha)가 이끄는 아사르(Asar-‘All Together’)당이 최대 정치조직이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친위여당인 아탄(Otan-Fatherland)당과 통합하였다. 이번 통합으로 나자르바예프의 통치기반이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통합은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한 자신의 딸의 정치적 야심과 독자적 정치행보를 제어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거대 정당의 통합배경에는 2006년 2월에 발생한 여당 대표 피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리하는 이 사건에 아버지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자신과 후계구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미움을 사, 결국 다리하의 아사르당은 아탄당으로 흡수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아탄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의 통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자흐 시민 정당(QAP)이 아탄당에 흡수되어 현재 아탄당의 당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카자흐스탄의 총인구 수가 1,53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따라서 나자르바예프는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의 향후 정국도 당분간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외정책

카자흐스탄 대외정책의 주요 골자는 첫째, 러시아·중국 및 회교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이 국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 둘째, 미·영·독·일 등 선진국들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자국산 원유·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독립 이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CIS 집단안보조약’ 등 구 소련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협력기구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미·중 및 서방국과의 협력증진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주관하는 등 역내 안보협력 주도에도 적극적이다. 터키, 파키스탄,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과는 이슬람권 ‘경제협력기구’(ECO)를 통해 상호 경험

및 아프간 전후 체제 정착 등에 협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상하이 협력 기구’(SCO)를 중심으로 안보·대테러 협력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부 대개발과 연계한 경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나. 우즈베키스탄

1) 국내 정치상황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기반을 강화해왔다. 구소련 당시인 1990년 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서기는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대선에서 86%를 득표, 최초로 5년 임기의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개헌 국민투표(1995년 3월)를 통해 1996년 12월 만료 예정이던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지지율 99.6%)한 후 2000년 1월 대선에서 필적할 만한 야권후보가 없어 91.9%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재선 후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및 양원제 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2002년 1월)하여 93%의 지지율로 2007년 12월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의회 역시 야당의 정치활동이 제한된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해 1994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민주당’(공산당 후신)이 전체 250석 중 205석을 확보, 카리모프 대통령의 친위여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권한 확대 및 전문화 강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개헌 국민투표(2002년 1월)에서 차기 총선(2004년 12월) 이후부터 의회를 상·하 양원제로 전환기로 확정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래 민족주의에 입각한 세속주의 국가(secular

state) 건설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이슬람 해방당(HUT) 등에 의한 이슬람 과격 운동이 여전히 지속되자 1998년 종교법을 제정, 타지크 내전 및 아프간 사태에 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국내 유입 저지에 주력했다. 이후 수도 타슈켄트에서 카리모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1999년 2월)¹⁹⁾을 포함한 여러 차례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2001년 말부터 반정부 활동 봉쇄를 명목으로 IMU 및 HUT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착수하면서 야당·언론에 대한 탄압도 병행해 서방으로부터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들의 시민혁명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안디잔 유혈진압사태는 국내정치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다. 안디잔 사태 이후 언론 통제와 이슬람 반정부세력 및 NGO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추가적인 소요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강압통치와 안디잔 유혈진압을 통해 국내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처럼 시민혁명을 주도할 만한 조직화된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정부세력들의 존재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양원제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2004년 12월 및 2005년 1월)에서 야당후보의 실질적 참여 금지, 반정부 언론 탄압, 국제적인 NGO 재등록 거부 등의 다양한 불공정 선거활동을 통해 친 카리모프계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반정부 인사들이 해외망명 내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정부세력들의 결집력은 상당 부분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19) Juma Namangani가 이끄는 우즈베크 이슬람 반군세력은 우즈베크 정부를 전복하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창설한다는 목표하에 1999년 2월 우즈베크 수도 타슈켄트에서 대통령을 노린 폭탄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집권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은 정권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방 씨족(clan)세력 견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즈베크의 대표적인 지방 씨족의 양대 세력인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출신 정치인들을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견제해왔다. 이러한 카리모프의 지방세력 약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카리모프 대통령은 고위공직의 철저한 교체를 통해 어느 누구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며 자신의 세력 구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를 통한 통치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후 ‘신흥 올리가르히’라 불리던 수백 명의 부유 계층이 우즈베크스탄의 폐쇄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얼마간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 대상은 점차 좁혀져 현재는 카리모프 직계 가족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이 혜택에서 추방당한 ‘기득권 상실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재산과 권위가 모두 카리모프나 그의 딸인 굴노라 카리모바(Gulnora Karimova)등 소수 직계가족에 집중되고 있다. 만일 지배층에서 카리모프에 대항한 궁정반란이 발생한다면 이를 주도할 세력은 바로 ‘기득권 상실자’ 그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기득권 상실자’ 그룹은 카리모프의 최대 적이 되고 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야심이 결국 그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즈베크스탄은 카리모프 정권의 실정과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득권층의 이익이 위협을 받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을 찾을 수 없게 될 경우 일부 지배 엘리트층 주도에 의한 내부적인 궁정반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카리모프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와 폐쇄적 경제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우즈베크스탄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내외적 상황은 변화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카리모프의 임기 말인 2007~08년은 이러한 상

황 변화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2) 대외정책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대외적으로는 CIS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및 구 소련 구성공화국들과의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안보 면에서는 독자노선을 추구해왔다. 특히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 유럽 등 대서방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 및 터키 등 회교권 경제협력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에도 주력해왔다.

러시아와는 구소련 구성공화국으로서 CIS 정상회의 등에 참여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탈러시아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급기야 1999년 4월 러시아 주도의 CIS 집단안보조약에서 탈퇴한 대신 우크라이나 주도의 GUUAM에 가입(2001년 6월)하는 등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미국과는 제1차 미·우즈베크 공동위원회(1998년 2월)를 통해 경험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9·11 사태를 계기로 하나바드 공항을 미군에 임대하는 등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에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에 지지를 표명(2003년 3월)하는 등 주요 지역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을 표명해온 바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과 미약필매 방지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지역 병력 감축에 합의(2000년)하고, 카자흐스탄과 국경확정 협정을 체결(2002년 9월)하는 등 역내 긴장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제적으로는 EBRD, IMF 등의 후원하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수송·통신망 연결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발생한 안디잔 유혈진압 사태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 방향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안디잔 사태의 진상 규명과 민주화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한 카리모프는 군사

기지 제공을 철회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급격하게 친러시아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 반러시아적 기구였던 GUUAM에서도 탈퇴하고 러시아 주도의 CIS 정상회의에 복귀했으며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방향 선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권안보를 위한 후견자로 여겼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카리모프의 불안감과 더불어 미국·우즈베키스탄 관계의 간극을 간파한 러시아와 중국의 적극적인 유인책도 우즈베키스탄의 방향 전환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세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즈베크에는 러시아 자본이 회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 이후 소원했던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 키르기스스탄

1) 국내 정치상황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카예프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독립 초기 정치·경제개혁을 위해 IMF의 권고로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예상대로 반개혁·보수 세력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에 아카예프 대통령은 원활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야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공산당 당수에게 구소련 공산당 출신 관료들의 부패문제 해결을 전담토록 하는 등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다.

이후 아카예프 대통령은 1994년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낸 후 헌법 개정(1994년 10월)을 단행하고, 최고회의 해산²⁰⁾과 정부조직 개편²¹⁾ 등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정국운영기반의 확보와 통치기반의 강

화를 꾀하였다. 2000년 10월 대선에서 아카예프 대통령이 유권자 74.5%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변함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야당인사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야권의 對정부 반발이 심화되었다. 1996년 신헌법 채택에 대한 야권의 반발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연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또한 줄마굴로프 총리(1993~98년) 이후 매년 총리가 경질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었고, 수도 비슈케크 시장 쿨로프가 축출(1999년 4월)된 후 언론 통제를 강화하자 본격적인 반아카예프 활동이 전개되었다.

2005년 3월 수도인 비슈케크와 키르기스 남부 일원에서 발생한 대중 소요의 결과, 아카예프 대통령은 결국 사임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후 바키예프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불안한 가운데 정국을 운영해왔다. 2005년 7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89%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키예프 신임 대통령은 남서부 잘랄라바드주의 마사단 출신으로 러시아 쿠이비셰프 공과대학을 졸업, 전기기술자로 일하다가 1990년 코크 안가크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1992년 잘랄라바드 주지사를 거쳐 2001년 총리직에 올랐다가 이듬해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진압하여 파문을 불러일으킨 후 사임했다. 당시 반정부 시위로 쫓겨났던 그가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다시 정계에 복귀해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취임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의 민주주의’ 활성화는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씨족들간의 팽팽한 세력 다툼으로 여

20) 1994년에 새로운 회의 구성법안을 마련, 이듬해 총선을 실시(1995년 2월)하여 민족별·정파별로 다양한 기반을 둔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였다.

21) 아카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를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제시(1998년 9월)하고 부총리를 3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등 부처 통폐합 및 주요 각료를 경질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히 불안정하다.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안정되어가는 듯했던 정국은 2006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대 고비를 맞고 있다. 정치 위기는 바키예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헌법 개정(의회의 권한 확대)과 일부 언론 및 경제개혁(키르기스 국영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민영화)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표면화되고 있다. 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신임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점차 야당 주도의 거리시위가 세를 얻고 있는 상태이다. 야당이 제시한 민주화 조치 실행을 위한 최후통첩이 2006년 11월 2일로 정해졌으나 바키예프 대통령 측의 답변이 나오지 않자, 11월 2일 키르기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바키예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태세였다. 다행히 이번 시위는 2006년 11월 8일 대통령 측과 야당 측이 새로운 헌법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된 헌법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의회의 권한 강화이다. 만약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권력분립에 충실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의 이행에 실패할 경우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대외정책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와 불릴 만큼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천산산맥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다. 또한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동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안보는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느냐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공존, 안보확립,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우호관계 유지, ‘실크로드 외교’(1998년 9월)를 통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가 키르기스스탄 대외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외교적으로는 CIS 회원국으로 러시아 주도의 CIS 집단안보조약 및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면

서, 9·11 사태 이후에는 對테러 연합군에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등 對서방 관계 개선에도 노력해왔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CIS 통합군 창설을 주장하고 러·키르기스 간 항구적 친선동맹 선언과 함께 민족간 통합 및 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2000년 5월)하였다. 또한 수도 비슈케크 인근 칸트 공군기지에 러시아군 주둔을 허용(2003년 4월)하는 등 對러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경제를 비롯한 안보, 평화 유지 등 포괄적 협력기구인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를 창설(2002년 2월)하여 협력을 도모했다. 또한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아시아·중동 국가간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실크로드 외교를 주창(1998년 9월)하였다. 국제테러 방지를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對테러센터를 수도 비슈케크에 설치(2001년 6월 합의)키로 하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되어온 키르기스스탄은 미·영 등 서방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9·11 테러 이후에는 다국적군에 비슈케크의 마나스 기지를 제공하는 등 對테러 협력과 관계 증진을 지속해왔다.

바키예프 신임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경제난 해결과 미·러 경쟁구도 속에서 외교적 절충안 마련이다. 2005년 바키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 미군이 주둔하는 대가로 키르기스스탄 정부 예산의 60%가 넘는 2억 달러의 현금 차관을 무이자로 제공받으면서 미군 주둔에 합의했다.

라. 타지키스탄

1) 국내 정치상황

독립 후 타지키스탄 공산당은 소련 붕괴 후 직위에서 물러났던 나비예프 전

공산당 지도자를 복권시키면서 체제 유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재생당, 타지크 민주당, 이슬람 부흥당 등 당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총선을 실시(1992년)하였다. 이 총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했으나 야권이 부정선거라고 반발함으로써 야권과 공산당 지지자간 충돌이 발생(1992년 3월)한 이래 양측간 공방이 지속되다 야권이 1992년 9월 나비예프를 인질로 잡는 등 내전으로 비화되었다. 이에 이슬람 무장세력 및 민주계열 등의 야권 세력이 수도 두산베를 장악하자 군은 공산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슬람세력에 대항하였다. 1997년 정전협정 체결까지 약 3만~1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전 종식 이후 반군세력 가운데 이슬람 부흥당(IRP)은 총선에 참여, 제도권에 편입되었으나 타지크 야당연합(UTO)등 일부는 지방의 무장세력으로 잔류하였다.

내전 중이던 1992년 11월, 공산당계 라흐모노프 쿨라프주 인민대의원대회 집행위원장이 최고회의 의장 겸 대통령 권한 대행에 취임하게 된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 전권을 장악하고 1994년 11월 대선에서 53.8%의 지지로 당선, 외형상 정국은 안정화 추세로 돌입했다. 1995년 2월 총선에서도 공산당 및 무소속이 각각 60석과 85석을 획득, 의회를 장악하여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1999년 라흐모노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 연장(4년→7년), 양원제 의회 구성, 종교정당 창당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확정하고, 1999년 11월 대선에서 95%의 지지를 획득하여 재선에 성공하였다.

특히 2003년 6월 집권 연장을 위해 의회내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통령 연임 금지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 이후에 모달리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11월 6일 타지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참여한 대통령 선거에서 라흐마노프 대통령의 3선 당선을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번 대선 역시 부정부패로 얼룩졌으며 선거과정이 비민주적임을 주장했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선거위원회는 그의 3선을 공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4명의 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인 그는 79%의 지지를 얻어 당선에 성공했으며, 이에 반해 야당 측의 알림잔 보보예프(Olimzhon Boboyev)는 겨우 7%의 득표율을 보였을 뿐이다. 이로 인해 라흐마노프는 향후 7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타지키스탄은 옛 소련국가 중 가장 빈곤한 나라 중의 하나로 현재로서는 라흐모노프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어 장기집권은 불가피한 상태로 전망된다. 정국 역시 당분간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빈곤 탈출을 위한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급선무이다.

2) 대외정책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 내전(1992~97년) 후유증에 따른 정세 불안 및 경제난 지속으로 정치·경제·군사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미국·EU 등과도 우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CIS 평화유지군 임무 종결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지대에 약 2만 명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주둔을 허용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주변국과는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나가면서 중국(2002년 1월) 및 우즈베키스탄(2002년 8월)과 국경협정을 체결하고 키르기스스탄과도 페르가나지역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과는 9·11 사태 이후 CIS 집단안보조약 틀내에서 미군 주도의 아프간 작전을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인도적 목적의 수색과 구호 작전에 한해 영공과 공항 사용을 허용했다. 여타 서방국가와의 관계는 일본, 스위스 등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의 지원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경제재건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

소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부활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집단안전보장회의(CSTO)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마. 투르크메니스탄

1) 국내 정치상황

중앙아시아의 은둔의 나라, 구 소련권 국가 중 아직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인이 된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 시절의 정치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 제1서기 출신 니야조프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990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1년 12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초로 치러진 1992년 6월 대선에서 그는 단독 입후보하여 99.5%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후 의회는 공산당 후신이자 유일 정당인 투르크멘 민주당(DPT)에 의해 장악되었고, 현재까지 구소련 당시와 비슷한 정치구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니야조프는 개헌 국민투표(1992년, 1994년)를 통한 임기 연장, 임기제한조항 철폐(1999년) 등으로 종신대통령으로 군림하는 등 스탈린식 1인 독재체제를 공고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동시에 총리, 군 최고사령관, 집권 민주당 총재 등 요직을 겸임하여 정부를 장악하고, 스스로를 ‘투르크멘바쉬(투르크메니스탄의 아버지)’로 호칭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전국의 거리와 주요 건물에는 니야조프의 이름이 붙어 있고, 수도 아슈하바트에는 대형 기념물을 건립하여 자신의 우상화 작업도 지속하였다. 이러한 우상화와 권위주의는 스탈린 통치의 유산과 가부장적 부족문화, 이슬람적 요소가 혼합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문화로 상징되고 있다.

의회는 DPT만이 참가한 1994년 총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니야조프 대통령의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하여 모두 당선되었고, 1999년 12월 총선에서도

정부 추천 후보에게만 출마를 허용하는 등 대통령의 예측기구로 만들어버렸다. 1994년과 1999년 총선에서 각각 99.8%, 98.9% 등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2003년 4월에 실시한 총선 결과는 아예 발표되지도 않았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제에 대한 국내외 비난을 의식, 2008년 대선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0년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2001년 2월)했고, 이 후에도 후계자를 통해 실질권력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공언했으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통령 선거는 2007년 2월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반정부세력에 대해서 니야조프 대통령은 KGB 후신인 국가보안위원회(KNB), 내무부 및 경찰 등 권력 부서를 동원하여 이들을 단속·탄압해왔다. 특히 2002년 11월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발생한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계기로 테러사건 배후로 지목된 시크무라도프 전 외무장관을 체포하여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했다. 이에 시크무라도프 전 외무장관 등 전직 고위각료들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인민민주운동을 조직(2002년 2월), 반정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투르크멘인들이 정부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 부서만 非투르크멘인이 담당, 투르크멘인이 아닌 공무원들은 1999년 12월까지 투르크멘어를 강제로 습득하도록 했다. 1999년 6월에는 유일한 러시아어 신문을 투르크멘어 신문으로 대체하고, 국영 TV사의 러시아어 방송을 일일 30분으로 축소하였다. 2003년 UN 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내 인권 탄압 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독립 이후부터 니야조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정치조직의 운영을 자신과 소수 측근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부의 주요 요직 역시 견제 차원에서 잦은 교체를 해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니야조프 대통령은 2006년 5월에 부패 행각을 이유로 아이도그디예프 직물생산부 장관을 해임하는가 하면 그의 취임 이후 이미 다섯 번이나 바꾼 중앙은행장을 무능력 및 부패와 연관시켜 또

다시 파면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인사정책은 관료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켜 정책집행력의 마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이후 15년간 지속되어 현재 정부내에는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관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12월 21일 니야조프 종신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새로운 정치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2007년 2월 11일 대선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 권한대행(前 보건부 장관, 니야조프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베르디무함메도프는 니야조프의 정치적 적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니야조프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 큰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는 대선기간 중 해외 망명 민주세력의 대선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차단하였으며,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누르베르디 누르맘메도프’를 가택연금하는 등 민주세력에 대한 정치 참여 방해 및 탄압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석에서 베르디무함메도프의 지지를 선언하고, 국영방송은 베르디무함메도프를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는 등 선거과정의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민주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개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전임자처럼 계속해서 폐쇄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결과는 시간을 좀더 두고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외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PFP), OSCE 및 회교국회의기구(OIC)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타 CIS 안보·경제협력기구 등에는 가담하지 않는 중립정책을 표방해왔다. 주변국들과는 실질적인 협력관계 발전에 주력하면서도 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서는 이란·터키·파키스탄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카스피해 영유권과 균등 분할을 주장하는 이란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회원국이면서도 對러시아 예측화를 우려해 러시아어 신문을 폐간시키고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자국내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연간 1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는 러시아가스관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對러 의존을 완전 탈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03년 4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개발에 협력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과 테러·마약 근절을 위한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러 관계가 복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9·11 테러사태 발생시에도 최소한의 관심표명에 그치는 등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11월 니야조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과 관련 미국 시민권자를 용의자로 체포한 데 이어 러시아·터키 등이 사건을 방조했다고 비난하고 범인 색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난입하는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가 죽은 2006년 말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장막에 둘러싸인 국가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까지 그의 후임자 역시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바. 아제르바이잔

1) 국내 정치상황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잠재되어 있던 구소련 공화국들의 민족감정에도 불을 지폈다. 1988년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을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분쟁을 벌였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아르메

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선전포고(1992년 3월)를 함으로써 양국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국 불안이 고조되었고 1993년에는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란과정에서 게이다르 알리에프는 쿠데타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 1993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 후 그는 정적들을 축출하고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 1994년 5월 러시아의 중재로 아제르-아르메니아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철권통치를 했던 게이다르 알리에프가 2003년 10월 부정선거를 통해 아들인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에게 권력을 물려줌에 따라 부자세습의 왕조형 권력계승이 이루어졌다. 게이다르 알리에프는 2003년 말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아버지를 이어 새로운 대통령이 된 일함 알리에프는 신진 엘리트 세력인 바쿠계를 중심으로 구세력인 나히체반계를 축출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그루지야(2003년 장미혁명), 우크라이나(2004년 12월 오렌지혁명), 키르기스스탄(2005년 레몬혁명), 몰도바(2005년 포도혁명) 등에서 대선 및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및 독재 및 부패정치에 대항하는 자유화 및 민주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다. 2005년 8월에는 수도 바쿠에서 야당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총선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 총선에서 여당인 ‘예니 아제르바이잔’(신 아제르바이잔당)이 총 125석 중 63석을 얻어 6석에 그친 야당연합인 ‘아자드리그’(자유)블록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는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대통령의 권력기반은 공고해 보이며, 따라서 정치적 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대외정책

아제르바이잔은 코카서스 3개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를 연결하는 트랜스 코카서스(Trans-Caucasus) 루트는 과거 실크로드의 한 줄기로 지중해-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황금의 다리(Golden Bridge)’ 역할을 해왔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중동, 남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소비에트 붕괴 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서방세계와 러시아간 세력다툼의 각축장이다.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전쟁을 통해 트랜스 코카서스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축으로 러시아-아르메니아-그리스-키프로스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터키 세력과 연대하며 친서방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이 속한 코카서스지역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본격화된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 분쟁과 이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민족, 종교), 1994년부터 시작되었던 체첸의 분리 독립전쟁(민족), 잉구시-오세티아와의 해묵은 영토분쟁과 헤게모니 다툼,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압하지야와 그루지야와의 분쟁(민족, 종교) 등 영토, 민족, 종교와 문화가 충돌했던 지역이다. 2005년에 완공된 BTC(Baku-Tbilisi-Ceyhan)와 SCP(South Caucasus Pipeline) 라인의 건설은 카스피해 연안 에너지자원의 수송망체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가져다주었다. 당사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수출루트를 다변화함은 물론 석유 및 가스 수출증대와 통관료 수입으로 엄청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터키, 서유럽 국가들과 경제·에너지·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BTC 라인의 완공으로 미국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에너지 수송루트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카스피해 원유 및 가스 수출루트의 독점을 통해 막대한 통과세를 챙기면서 유지해왔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아제르바이잔의 탈러시아정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친서방적 대외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중앙아시아의 정치 발전 전망

향후 카자흐스탄은 포스트 소비에트 현대화 노선을 추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가시적인 경제개발의 성과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국을 구축했다. 1991년 독립 이후 14년간 집권해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개발 독재형 리더십과 친인척 등 족벌들의 권력 독점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대선에서 90%의 지지로 재선되어 7년 임기의 3선에 성공하였다. 이는 카자흐 국민들이 안정추구와 경제성장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며 그의 장기집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120개), 다종교(15개)로 구성된 국가라는 환경 때문에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허해왔다. 그러나 점증하는 빈곤층과 사회적 계층 분화 속에서 카리모프의 전체주의 체제는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2005년 안디잔 사건 이후, 카리모프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반군세력을 국가안보 위협요소로 부각시켜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더욱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통치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국내세력 제거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디잔 사건은 우즈베크인들에게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고 집권층도 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를 평화적으로 실현시킬 시스템에 대한 합의 여부에 따라 우즈베크스탄의 향후 정국 추이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대선과 카리모프의 행보가 우즈베크스탄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키르기스스탄은 2005년 7월 대선을 계기로 정치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 조속한 생활수준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 1996년 2월 부정선거로 구성된 의회 처리문제 △ 바키예프-쿨로프간 연대의 취약성 △ 사유화 재산 재분배 문제 등은 앞으로 개헌정국과 맞물려 정국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3명의 의원이 암살되고 뒤이어 대중소요가 키르기스 남부와 비슈케크 일원에서 지속되는 등 정세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마피아와 관료집단이 결탁하여 현 정권에 도전하고 있고, 과격 시위대의 사유재산 불법 점거 사태가 계속되는 등 정국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새집권세력이 개헌정국을 원만히 넘길 경우, 장기적인 정치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야당세력의 참여하에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총선이 평화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UN의 평화감시단이 임무를 종결한 상황에서 2001년 9·11 사태 이후 아프간 국경지대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감소되어 정국은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간 군사작전의 결과 탈레반 세력과 회교 근본주의 세력의 약화는 국내적으로 라흐마노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대외적으로도 국가안보와 타지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불안한 연립정부 체제하에서 여야 어느 쪽도 과거의 내전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라흐마노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지역안배를 무시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내전 재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과 후임자 선출로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맞고 있다. 후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전개해나갈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오일달러 유입으로 인한 빠른 경제성장, 가부장적 정치문화로 인해 당분간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방화와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대내외적으로 압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연 30%대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5월 개통된 BTC(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의 시너지 효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축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1월 6일에 실시된 아제르바이잔 총선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인 ‘新 아제르바이잔당(Yeni Azerbaijan Party: YAP)’이 전체 의석 125석 중에서 63석을 차지하며 승리하고 제1야당인 자유 야당 블록 아자드리그(Azadlig)는 겨우 6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현 알리에프 정부는 15년 동안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암묵적 지지 아래 유지되는 아제르바이잔의 장기집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철원 · 신현준

1. 주요국의 경제상황

가. 카자흐스탄

1) 경제동향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석유수출국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4년 -12.6%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인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01년 13.8%, 2005년 9.5% 등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동력은 국제 고유가로 인한 석유 수출의 호조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실한 증가이다. 카자흐스탄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약 90억 배럴(세계 17위), 추정매장량은 966억 배럴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석유·가스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은 2000~04년 기간 동안 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5년 가처분소득과 총수요도 전년대비 각각 11.2%와 9.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총투자²²⁾는 연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민간투자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정부의 공공투자는 사회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를 구소련 시절의 알마티(Almaty)에서 아스타나(Astana)로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붐이 카자흐스탄의 경기를 이끌고 있다.

■ 표 4-1.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증가율	%	13.5	9.8	9.3	9.4	9.5
산업생산증가율	%	13.8	10.5	9.1	10.1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6.4	6.6	6.7	6.7	7.6
총투자증가율	%	44.7	10.6	16.6	23.1	22.1
수출	십억 달러	8.9	10.0	13.2	20.6	28.3
수입	십억 달러	7.9	8.0	9.6	13.8	18.0
재정수지	%/GDP	-0.4	-0.3	-0.9	-0.3	1.9
경상수지	%/GDP	-6.3	-4.2	-0.9	1.1	-0.9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2.5	3.1	5.0	9.3	7.1
환율(기간평균)	Tenge/달러	146.92	153.49	149.45	135.92	133.77

자료: National Bank of Kazakhstan(2006); ADB(2006a, 2006b).

정부의 사회지출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200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재정수지는 2005년에 이르러 흑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도 소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조만간 흑자로 돌

22) 총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Gross Domestic Capital Formation)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는 국내 민간투자와 정부의 공공투자를 합한 금액이다.

아설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은 2005년 말 기준 7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가기금²³⁾에도 2006년 7월 현재 91억 달러 가치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향후 카자흐스탄의 투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걸쳐 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석유·가스 수출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시경제의 불안정 현상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 목표치인 5~7%를 벗어나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문제이다. 고유가와 교통·전력 등 공공 서비스요금의 상승,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화 수요의 과잉 등으로 인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거시경제 당국의 적절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카자흐스탄 텡게(Tenge)화의 對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절상 추세이다. 특히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은 국내 제조업 생산자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에 카자흐스탄에서도 네덜란드병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주요 산업

석유산업은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으로, 2005년에 일일 124만 3천 배럴에 총 6,190만 톤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하였다. 2000~05년까지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은 연평균 10~15% 증가해왔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 생산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로 2015년까지 석유 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²⁴⁾ 주요 유전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을 중

23) 2000년 8월에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가기금(The 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하자원(석유, 가스, 광물 자원)의 수출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해외 유망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안정화기금이다. 카자흐스탄 국가기금의 기능은 크게 저축 기능과 안정화 기능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저축 기능은 기금 축적을 통해 지하자원이 고갈된 이후 세대의 투자재원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안정화 기능은 국제 지하자원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재정 및 경기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4)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5), p. 2.

심으로 텡기즈(Tengiz), 카라차가나크(Karachaganak), 카사간(Kashagan), 쿠르만가지(Kurmangazy) 등이 있다.

▮ 표 4-2.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전 현황 ▮

유전명	위치	개발사	생산량(2005년)	최대 생산전망
텡기즈 (Tengiz)	카스피해 북동 해안	Tengizchevroil (ChevronTexaco 50%, ExxonMobil 25%, Kazmunaigaz 20%, LukArco 5%)	26만 7천b/d	70만b/d
카라차가나크 (Karachaganak)	북부내륙 (러시아 오렌부르크 접경)	Karachaganak Integrated Organization (British Gas, 伊ENI)	23만b/d	50만b/d
카사간 (Kashagan)	카스피해 북부 해안, 아티라우 인근	Agip KCO (ENI, ExxonMobil, Inpex, Philips Petroleum, Shell, Total)	2008년 생산 예정 (세계 5위 매장량)	120만b/d
쿠르만가지 (Kurmangazy)	러시아- 카자흐스탄 해상 접경	러시아-카자흐스탄 간 PSA (Rosneft-Kazmunaigaz)	현재 미생산	60만b/d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5)

카자흐스탄은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90%인 일일 약 110만 배럴을 파이프라인 및 철도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및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²⁵⁾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출 루트의 다양화와 수출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2단계가 건설 중인 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이다. 기존 중국으로 수출되는 카자흐스탄 석유는 알라산코이 철도(Alashankoy

25)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과 러시아 노보로시스크(Novorossisk)를 잇는 총연장 980마일의 CPC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카자흐스탄·오만 정부가 총 50%, 셰브론텍사코를 비롯한 8개 석유기업이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기존 러시아행 파이프라인을 신축 개보수한 파이프라인이다. CPC 파이프라인의 일일 석유 운송량은 56만 배럴이며, 2009년까지 135만 배럴로 운송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Rail)를 통한 일일 3만 배럴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의 운송능력은 초기 일일 20만 배럴에서 최대 40만 배럴까지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남쪽으로 이란과는 스와프 형태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와 터키의 제이한(Seyhan)을 잇는 BTC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일부를 수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의 전권은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가 쥐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2년 이후 카자흐스탄 석유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카즈무나이가즈와 합작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합작시에는 반드시 카즈무나이가즈가 지분 혹은 수익배분 계약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석유산업의 85%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규모는 총 17억 달러로, 이 중 78%가 석유산업에 집중되어 26%는 석유 생산에, 52%는 신규 유전 탐사 및 시추에 사용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65조~70조 입방미터로 2005년에 전년대비 24% 늘어난 연간 5,7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다. 카자흐스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석유와 함께 생산되는 부수가스(Associated Gas)로 카라차가나크 유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5,500억 입방미터로 2004년까지는 자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전량 소비하고 추가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었으나, 2005년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약 200억 입방미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2010년까지 연간 1조 6,600억 입방미터, 2015년에 1조 8,400억 입방미터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업은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 소득의 30%, GDP의 16%, 총고용의 19%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제2의 산업이다. 광업은 2004년에 12.8%의 높은

산업생산증가율을 보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2005년에는 3.4%의 증가에 그쳤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이 있다. 철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금속으로, 2005년 약 450만 톤의 선철과 320만 톤의 강판이 생산되었다. 카자흐스탄 제철산업은 카라간다 지방에서 발전했으며, 네덜란드 미탈 스틸(Mittal Steel)의 자회사인 이스파트 카르메트(Ispat Karmet)가 주요 사업자이다.

최근 각종 사회 및 경제 인프라 건설 투자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에는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건설업 및 건설자재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를 알마티(Almaty)에서 아스타나(Astana)로 옮기면서, 신수도 건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현재 한국 아파트 건설업체인 동일 하이빌(Highville)도 아스타나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카자흐스탄 건설업 투자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석유산업에서의 투자설비 확장, 파이프라인 신설 및 개보수 공사, 각종 공장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어, ‘카자흐스탄 전역이 건설현장’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을 정도다.

3) 경제발전전략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30』²⁶⁾과 이를 바탕으로 2003년에 발표된 『카자흐스탄 혁신산업발전전략 2003-2015』(이하 ‘혁신전략’)²⁷⁾이다. 혁신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서비스와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6) 1997년 10월에 처음 발표된 본 전략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전략에서 제시한 핵심 7대 과제는 △ 국가안보 △ 국내 정치적 안정 및 사회 연대의 강화 △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 △ 보건·교육·복지의 강화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 인프라 개발 △ 전문적인(Professional) 국가 건설 등이다.

27) 이하 혁신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2003년 승인된 문서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2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하고 있다. 본 전략이 충실히 실행될 경우, 카자흐스탄 GDP는 2015년까지 평균 8.8~9.2%, 제조업의 산업생산은 8.0~8.4%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GDP에서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 46.5%에서 2015년에 50.0~52.0%로, 연구혁신부문을 0.9%에서 1.5~1.7%로, IT를 포함한 첨단 산업부문을 0.1%에서 1%로 늘릴 계획이다.

▮ 표 4-3. 카자흐스탄 『혁신산업발전전략 2003-2015』의 세부 정책 ▮

구분	정책기조	액션 플랜
무역정책	- 지역경제통합 - 무역자유화	- 유라시아 공동경제구역 추진 - WTO 가입
투자정책	- 민간투자 유치 및 효율성 강화 - 정부의 지원구조 확립	- 투자규제 완화 - 정부투자기금 설립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설립
인프라정책	산업구조의 다각화	- 중점산업 선정 및 클러스터 건설 - IT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

혁신전략의 세부 정책은 무역정책, 투자정책, 인프라정책 등 3개 정책으로 압축된다. 혁신전략의 무역정책 기조는 시장경제의 자기 규제에 입각한 경쟁 원리의 도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종 무역 규제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가 오히려 자국의 산업발전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점진적이고도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카자흐스탄 시장내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과 에너지 수출소득의 타 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무역정책의 기조하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CIS 역내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공동경제구역을 설립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공동경제구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첨단산업, 무역, 투자, 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단일 경제권(Single Economic Space: SES),²⁸⁾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²⁹⁾ 중앙아시아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상하이협력기구(S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등을 통해 중동을 포함한 유라시아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중 단일경제권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경제협력에 있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혁신전략 무역정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WTO 가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 가입이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관세를 가중 평균치는 8.6%로 WTO 평균인 6~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0~15%의 적정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이 전체 상품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에도 국내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국 144개국 중 135개국과 교역 중이며, WTO 옵서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혁신전략의 투자정책 기조는 주요 산업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민간투자 유치의 효율성 강화와 공적 투자를 위해 정부의 지원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는 소주주에 대한 권리 보장, 회사등록시스템의 단순화, 라이선스 취득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구조로 ‘카자흐스탄 투자기금(Kazakhstan Investment Fund)’, ‘카자흐스탄

28) 2003년 9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CIS 4개국은 ‘단일경제권’ 창설에 최종 합의하였다. 단일경제권의 주된 목표는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를 위해 4개 회원국은 각국의 반덤핑 보호조치 철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대 창설,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운송 컨소시엄 구성, 역내 및 해외 시장과의 연결을 위한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9)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2000년 10월에 설립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포괄적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향후 CIS를 대체할 경제통합 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은행(Kazakhstan Development Bank)’, ‘혁신기금(Innovation Fund)’³⁰⁾의 설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표 4-4.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및 IT 발전계획

	내 용
단계별 중점목표	• 1단계(2003~10년): 제조업 분야 발전인프라 확충 • 2단계(2010~15년): 연간 8.4% 성장 • 3단계(2015년 이후): 전체 산업생산 비중의 31% 이상 확대
주요 추진내용	• 비자원 제조업분야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 • IT 등 첨단산업분야의 대폭 지원 • 테크노파크 건설을 통한 관·산·연 협동 강화

인프라 정책은 기존 에너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단계별 성장목표 달성을 통해 2015년 이후 제조업의 산업생산 비중을 3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인 IT 산업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한 운송산업 등에 특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산업발전전략 2003-2015』를 통해 총 23개 산업을 자원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중 7개 중점지원 산업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중점지원 산업 7개 클러스터는 △석유·가스 △건축자재 △식료품 △물류서비스³¹⁾ △금속 △섬유 △관광 등이다. 또한 2005년 9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총 237개의 우선

30)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투자기금을 통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총액이 낮은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은 민간부문 투자와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펀드는 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연구의 자금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31)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 물류운송망 투자계획의 핵심은 기존 철도망의 개선 및 추가 건설, 수출용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도로의 확충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국제 운송회랑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국제 운송회랑 네트워크의 강화는 러시아에서 발트 3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유럽행,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향하는 태평양행,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 국가를 거쳐 이란과 터키에 이르는 걸프행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지원 세부 산업을 발표하였으며, 크게는 △ 농업 △ 경공업 △ 화학금속 공업 △ 공작기계 △ 전력산업 △ 교통산업 △ 건축자재 등이다.

IT 산업은 핵심전략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집중 육성산업이다.³²⁾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정보초고속도로 (National Information Superhighway)라 불리는 인프라 구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IT 클러스터인 지역 비즈니스 인큐베이터(Regional Business Incubator)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카자흐스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30만 달러를 들여 프로젝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영 통신회사 카자흐텔레콤(Kazakhtelecom)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으로부터 1억 1천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아 전기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4년 9월에 '2005~07년 중기 재정정책 발전전략'을 최종 승인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본 전략의 목적은 석유 수출 소득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에너지부문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과 재할인율의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설정한 2006~08년 인플레이션 목표는 5.7~7.3%이며, 이의 달성을 위해 최근 재할인율을 7.0%에서 7.5%로 인상했다.

나. 우즈베키스탄

1) 경제동향

32) 핵심전략에 나타난 카자흐스탄의 IT 산업정책은 △ IT 부문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정보접근성 개선, △ 공공부문 IT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실현 △ IT 산업 전반의 표준화 작업 △ 국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 △ 국가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및 전자경매 도입 △ 인터넷 교육의 활성화 △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6년 플러스 성장에 진입한 이후 연간 4~5%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2004년 7.7%, 2005년 7.1%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성장의 주된 동력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전 산업부문의 고른 성장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으로 2005년 기준 원면을 포함한 농업이 GDP의 약 28.1%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01~03년까지 4~6%대에 머물던 농업생산증가율이 2004년에 10.1%로 높아지면서 경제성장의 물꼬가 터지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체제개혁 초기부터 민영화, 대외개방 등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거부하고 국가의 경제통제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업 생산성의 향상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5년 제조업 생산성은 전년대비 8.9% 증가했으며,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04년 25.2%에서 2005년에 28.7%까지 높아졌다.

▮ 표 4-5.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증가율	%	4.3	4.2	4.5	7.7	7.1
산업생산증가율	%	8.1	8.5	6.2	9.4	7.4
소비자물가상승률	%	27.4	27.6	10.3	1.6	6.4
총투자증가율	%	...	51.7	29.4	42.6	20.1
수 출	십억 달러	3.2	3.0	3.7	4.9	5.4
수 입	십억 달러	3.1	2.7	3.0	3.8	4.1
재 정 수 지	%/GDP	-1.0	-0.7	-0.4	-0.4	-0.3
경 상 수 지	%/GDP	-1.0	1.2	8.7	9.7	9.8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1.2	1.2	1.7	2.1	...
환율(기간평균)	Sum/달러	422.9	769.0	971.3	1,019.2	1,180.0

자료: ADB(2006a, 2006b); Global Insight(2005).

[표 4-5]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급격히 안정되어 2004년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식 통계를 불신하고 20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1%로 추정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는 대신 비 식료품과 공공부문에서 가격인상이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금, 에너지, 원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2004년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증가율은 30%에 달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8.4%에 이르렀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금과 원면의 수출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던 원면 생산이 기후가 좋아지면서 크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을 ‘우즈베크 패러독스(The Uzbek Paradox)’³³⁾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구의 많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IMF식 경제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실의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2) 주요 산업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금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은 2004년 기준 GDP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으로 5대 면화 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이다. 면화의 수출은 2005년 총수출의 20%를 차지하여, 1990년대 4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33) Spechler *et al.*(2004), p. 177.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대 수출품목이다. 정부는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여 면화의 생산 및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³⁴⁾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면서 농민들의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불만이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산된 면화 일부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³⁵⁾

금은 제2의 수출품목으로, 2002~05년 총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 채굴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1년 생산량이 약 86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에너지와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최대 우선과제로 선정,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부단히 노력하였다. 과거 구소련 체제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원면 생산의 약 60%를 점하였으며, 원면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단일품목 경작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계속되는 한 경제적 독립은 물론 경제적 안정과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부 주도 산업정책 성과로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에너지의 국내자급률이 높아졌으며, 현재 에너지의 일부는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설비투자 부족으로 2005년 석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17.7% 감소하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즈

34)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소련 시절과 마찬가지로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출시기가 수매시기보다 늦음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화산업의 경우, 국영기업(Uzauktionavdo)이 면화의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 외(200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참고.

35) 2003년 이후로는 산출량의 일부에 한해서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에 서명된 『2004~06년 농업부문 발전계획에 관한 대통령령』은 오히려 농업부문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베키스탄의 생산구조는 농업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의 GDP 비중은 2005년에 28.1%까지 떨어졌고, 수출품목도 다양화하여 2003년에 면화와 에너지 두 부문의 수출비중이 29.6%로 낮아졌다. 한편 시장경제체제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유입 부족에 따른 자본 부족, 지속적인 경제침체,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 및 지속적인 정치적 독재로 인하여 금융산업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3) 경제발전전략

주요 CIS 국가들이 사유화 및 자유화를 기치로 대외지향적 시장경제를 추진했던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지금까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기조로 자국 산업의 육성에 집중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행 초기에 가시적인 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농업부문의 수출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서 잉여 에너지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개혁 초기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성장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1차 상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국의 제조업 육성에 투자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은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맡기지 않는 정책은 자연스럽게 경제의 국가통제와 연결되어 경제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부문 강화 및 정부통제 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무리한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모든 경제적 자원을 자급자족하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1차 산업과 노동집약적 생산품 수출 중심의 개방통상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 자국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급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했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초기의 경제 혼

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유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정부재정을 확충하여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정부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토지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곡물강제수매제도를 실시하여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도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국가통제로 인하여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만연하는 한편, 국가의 환율 개입으로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어 수출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 모든 경제부문을 시장에 맡겼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외지향적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정부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까지 추진될 『중기 후생증진 전략(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I-WISP)』을 발표하였다. I-WISP에 따르면, 2003년 26.2%에 달했던 국민선 이하의 인구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8.0~8.5%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4~5% 이내의 물가안정, 연간 12% 정도의 투자증가

율과 10~12%의 수출증가를 유지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섬유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제4차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된 3차에 걸친 섬유산업 육성정책은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집중 육성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지향적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제4차 섬유산업 육성정책에는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라는 대외지향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2005~08년 동안 총 94건의 투자프로젝트에 12억 2천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³⁶⁾

다. 키르기스스탄

1) 경제동향

키르기스스탄은 2005년 1인당 GDP가 474달러에 불과한 중앙아시아 빈국이다.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이며, 경작 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7%에 불과하다. 지리적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국토의 중앙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산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은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와 오시(Osh)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의 계곡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고산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북부와 남부를 오고가기 위해서는 우즈

36) 이 프로그램은 현대적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첨단 면 원사 처리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 완제품 생산 비율이 50% 선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크부문에서도 완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실크 원사 생산설비 현대화를 오는 2007년까지, 그리고 견직물 생산설비를 2010년까지 각각 현대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면 원사 32만 9,900톤, 내의류 3만 4,800톤, 면직물 1억 4,440만 톤, 1억 8,660만 점의 니트웨어, 6,530만 점의 의류 및 5,950만 점의 양말류 등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섬유제품 수출을 11억 7천만 달러 만큼 증대시키고 4만 6,400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영토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경작 가능한 계곡을 중심으로 발달한 농업이 2005년 기준 GDP의 34.1%를 차지하는 주산업이다. 이외에 공업 및 제조업은 금 채굴업을 중심으로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표 4-6. 키르기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증가율	%	5.3	0.0	7.0	7.0	-0.6
산업생산증가율	%	5.4	-10.9	17.0	3.7	-12.1
소비자물가상승률	%	3.7	2.3	5.6	2.8	4.9
총투자증가율	%	-14.0	-7.7	-6.3	6.7	-2.1
수 출	십억 달러	0.48	0.49	0.58	0.72	0.67
수 입	십억 달러	0.47	0.59	0.72	0.94	1.10
재 정 수 지	%/GDP	0.4	-1.0	-0.8	-0.5	0.2
경 상 수 지	%/GDP	-1.6	-3.1	-4.2	-3.4	-7.6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0.29	0.32	0.40	0.56	0.61
환율(기간평균)	Som/달러	48.45	46.94	43.72	42.67	41.01

자료: National Bank of the Kyrgyz Republic(2006); ADB(2006a, 2006b).

1992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다. 첫 4년간 실질 GDP는 50%까지 하락하였고, 1990년대비 1995년 제조업 및 건설의 산업생산은 70% 이상 폭락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구소련 공화국 중 가장 개방적인 경제였다. 1991년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실시한 무역은 전체 GDP의 90.7%를 차지하였으며, 1987년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결과를 보면 100개 품목 중 56개 품목에서 수입이 국내 생산을 초과하고 있다.³⁷⁾ 키르기스스탄의 개방경제는 구소련 공화국의 분리 독립과 상호간의 경제단절로 인해 급

격하게 침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산업침체와 구조변화를 겪게 되었다.

■ 표 4-7. 키르기스스탄의 산업생산 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

	1990년		1995년		2000년	
	1990년=100	%/GDP	1990년=100	%/GDP	1990년=100	%/GDP
제조업/건설	100.0	34.1	28.1	18.1	50.1	24.6
농업	100.0	32.9	65.6	40.7	77.2	36.6
시장서비스	100.0	18.0	85.4	29.0	114.5	29.7
비시장서비스	100.0	15.0	43.1	12.2	42.1	9.1
GDP	100.0	100.0	53.0	100.0	69.4	100.0

자료: National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Kyrgyz Republic; Roman Mogilevsky(2004)에서 재인용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쿰토르(Kumtor) 금광 개발이 시작되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비스부문이 성장하면서 경제의 농업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에는 전년대비 7.1%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양호한 기후조건과 대외환경 개선 등으로 농업부문이 전년대비 4.1%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공업부문은 금 생산 관련 산업의 부진으로 3.5% 생산증가에 그쳤다. 2004년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부문이 주도하였는데, 관광산업과 소규모 유통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생산이 무려 11.7% 확대되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총투자증가율은 2004년에 6.7% 증가하며 반등하였다. 2005년에는 이른바 ‘튤립 혁명(Tulip Revolution)’으로 인한 경제불안으로 전반적인 거시지표는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금 생산 관련 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공업 생산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였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

37) Roman Mogilevsky(2004), p. 226.

하고 소득불균형이 다소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1999년 55.3%에 달했던 극빈선 이하의 인구비율은 2003년에 41%로 축소되었으며, 2004년에는 39%까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키르기스스탄 경제에서 극빈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2) 주요 산업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GDP의 34.1%, 전체 노동인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곡물, 채소, 감자, 면화, 담배, 사탕무, 축산물 등을 들 수 있다. 1991년 독립과 함께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업생산은 1995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농지개혁과 양호한 기후조건 등으로 생산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지개혁으로 전체 농지의 76%가 사유화되었으며, 국유지로 남아 있는 농지는 6%에 불과하여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서비스산업은 2005년 기준 GDP의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을 통해 가족 중심의 소규모 유통업이 발달하고 있다. 수도인 비슈케크에는 2001년에 처음 5성 호텔이 개장되었으며, 구소련 시절 휴양소(Sanatoria)가 밀집되어 있던 이쉬쿨(Issyk-Kul) 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주요 관광자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천연자원은 금, 수은, 석탄, 우라늄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금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21%를 점하고 있는데, 금 생산 관련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45%를 점하고 있다. 최근 금 생산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가공, 화학,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금 생산 이외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본 부족과 기술 낙후로 대부분의 지하자원 개발은 외국인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금 생산은 캐나다와 합작으로 연간 30톤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는 키르기스스탄이 나머지 1/3은 캐나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경공업으로는 섬유, 의류, 피혁(신발, 모피 포함) 등이 있다. 약 200여 개의 기업이 내수 및 수출용 제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8.5%에 달하고 있다. 경공업 가운데 특히 섬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품 원료인 면화, 가죽, 양털, 명주 등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식료품산업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량은 전체 제조업의 약 20%를 점하고 있으며,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설탕, 담배, 술 등이며, 유망 분야로는 육가공업, 우유 및 유제품, 제당, 제과 및 제빵업, 주조업, 제분업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식료품 제조업 분야에 약 2만 2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3) 경제발전전략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정책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환경을 향상시키며, 공직자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패, 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사법제도의 취약성 등은 그동안 키르기스스탄 경제에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부패척결을 시작으로 이러한 경제발전의 걸림돌 제거를 최우선과제로 선정,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부패방지 국가전략과 부패에 관한 UN 협약이 2004년 의회에서 비준되었으며,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부를 공개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즈니스 관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기존의 규정과 새로 도입된 규정간에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 없도록 법제화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에 맞추어 대규모 합작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부실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재정부문에서는 세원을 더욱 확대하고 조세행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의 요구조건과 교토의정서에 맞게 관세를 코드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관세법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국세행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세행정과 관세행정의 상호 협력관계 모색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조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세제도를 투자 우호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2005년 3월 파리클럽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부채탕감과 채무재조정을 대대적으로 실행하였다. 상업차관의 50%에 해당하는 약 1억 2,400만 달러의 채무가 탕감되었으며, 나머지 상업차관의 상환일정도 7년 거치, 23년 상환으로 재조정되었다. 약 3억 600만 달러에 달하는 공적지원금에 대한 상환일정도 13년 거치, 40년 상환으로 재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부채탕감과 채무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아직까지 외채부담이 커서 대외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재정건전화와 사회서비스 및 공공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 카이라트(Kairat) 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이제는 국영은행이 1개만 남게 되었다. 키르기스텔레콤(KyrgyzTelecom)을 독일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민영화하는 방안은 의회에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라. 타지키스탄

1) 경제동향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토의 93%가 산악 및 고산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이다. 구소련 시절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정도로 독자적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가장 낙후된 경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GDP 기준으로는 최빈국이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던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실질 GDP의 60%가 하락했으며, 1인당 GDP는 462달러에서 190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인구의 62%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1997년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CIS 국가들내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전 종식 이후 최대 수출품인 알루미늄의 국제가격 상승과 생산 증가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 표 4-8. 타지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증가율	%	10.2	9.1	10.2	10.6	6.7
산업생산증가율	%	15.0	8.4	9.9	13.8	9.0
소비자물가상승률	%	38.6	12.2	16.3	7.1	7.6
총투자증가율	%	58.0	10.3	10.1	11.5	7.4
수 출	백만 달러	652	737	797	915	909
수 입	백만 달러	688	721	881	1,191	1,330
재 정 수 지	%/GDP	0.1	0.7	1.1	0.2	-1.6
경 상 수 지	%/GDP	-5.7	-1.4	-0.3	-2.8	-0.8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94.3	...	117.6	172.1	188.9
환율(기간:평균)	Somoni/달러	2.55	3.00	2.96	3.04	3.20

자료: National Bank of Tajikistan(www.nbt.tj); ADB(2006a, 2006b); Global Insight(2005).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경제 자립의 실패와 1997년까지 계속된 내전은 타지키스탄의 산업을 붕괴시켰다. 중앙아시아·카프카스 7개국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비교에서 타지키스탄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몰도바와 함께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TFP는 7개국 중 가장 높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 표 4-9. 중앙아시아·카프카스 7개국의 TFP 비교 ■

(단위: %/GDP)

국가	1991~97년	1998~2003년
아르메니아	-6.5	8.0
아제르바이잔	-11.1	1.9
그루지야	-10.2	6.3
키르기스스탄	-9.4	1.3
몰도바	-13.5	4.1
타지키스탄	-12.9	8.1
우즈베키스탄	-3.1	3.8
전체	-9.5	4.6

자료: IMF(2005b)

최근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동력은 알루미늄과 면화의 생산 및 수출이다. 2004년 타지키스탄 전체 수출에서 알루미늄 수출은 62.6%, 면화 수출은 17.7%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알루미늄 생산은 전년대비 9.4%, 면화 생산은 4% 가까이 늘어나면서 타지키스탄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경공업 중심의 소비재 생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95년 2,10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2001년 이후 타지키스탄 정부가 IMF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긴축재정 및 긴축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7%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알루미늄의 수출 호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면화가 생산량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타지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순에너지수입국이다. 특히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산업

타지키스탄 최대 산업은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이다. 알루미늄 생산은 2004년 기준 전체 산업생산의 40%,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가격이 전년대비 20.5% 상승하면서 생산 또한 12.2% 증가하였으나, 2005년 들어 가격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생산 인프라의 노후 및 부족으로 생산 증가세 또한 5.9%로 떨어졌다. 국영 ‘타드아즈(TadAZ)’가 알루미늄 생산 및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 표 4-10.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 생산 및 가격 동향 ■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생산	천 톤	269	289	308	319	358	380
	증가율(% , 전년대비)	17.5	7.7	6.4	3.8	12.2	5.9
가격	달러/톤	1,567	1,454	1,365	1,428	1,721	1,901
	증가율(% , 전년대비)	12.9	-7.2	-6.1	4.6	20.5	10.4

자료: IMF(2005b); EIU(2006).

타드아즈는 최근 러시아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회사인 ‘루살(Rusal)’과 투자 유치를 협의 중에 있다. 루살은 타드아즈의 기존 생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투자하여 연간 알루미늄 생산량을 10만 톤 늘리는 한편, 남부 타지키스탄 카트론(Khatlon) 지역에 연간 20만 톤급 알루미늄 용광로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본 계획은 알루미늄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를 위해 ‘로군 댐(Rogun Dam)’ 건설과 타지키스탄 국영 전력회사인 ‘바르키 토직(Barqi Tojik)’의 전력설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최대 전력회사인 ‘통합에너지시스템(United Energy System: UES)’ 및 이란과 합작으로 ‘상투다(Sangtuda)’ 지역에 각각 2기의 전력 플랜트 건설을 계획 중이다.

타지키스탄 제2의 산업은 면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다. 면화 수출은 2004년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면화 재배 인프라의 부족과 기후 불순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면화 작황 부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구소련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는 면화의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이다. 이 제도는 국가 주요 수출품인 면화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으나, 오히려 면화 생산의 인센티브를 하락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면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지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3) 경제발전전략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정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IMF가 제안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 및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세제의 경우 2005년 1월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입법화하였다. 2001년 5월에는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를 퇴치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PRGF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3~5%를 줄이는 한편, 주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또한 IMF의 PRGF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통화정책의 기초는 환율안정을 바탕으로 유동성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IMF 권고에 따라 민간 은행 부문으로의 신용제공을 중지하는 대신, 민간은행부문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간 대부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주요 수출품목인 알루미늄과 면화의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 이란 등과 알루미늄 생산시설 및 전력시설에 대한 투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는 전력, 운송,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마. 투르크메니스탄

1) 경제동향

중앙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는(세계 4위) 에너지 부국이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1997년 이웃 CIS 국가들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의 대금결제를 유예하면서 1990년의 50%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10~2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전반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정부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국제신인도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Fitch사는 2005년 2월 마침내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회복의 일등공신은 천연가스 수출의 활성화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CIS 이웃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실리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이끌어냈다. 2003년에는 러시아와 25년, 2006년에는 중국과 30년간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투자의 증가도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석유정제·섬유·식료품·건설 등 각종 산업과 도로·철도·가스관 등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사회 인프라 확장과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의 남과 북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TAP(Turkmenistan - Afghanistan - Pakistan) 가스관 공사가 한창이다.

표 4-11.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증가율	%	20.4	15.8	17.1	17.2	9.6
산업생산증가율	%	11.0	21.7	22.0	22.0	18.5
소비자물가상승률	%	11.6	8.8	5.6	5.9	10.8
총투자증가율	%	26.0	9.0	24.8	23.7	13.8
수 출	십억 달러	2.6	2.9	3.2	3.5	4.9
수 입	십억 달러	2.3	2.1	2.2	2.9	3.6
재 정 수 지	%/GDP	0.6	0.2	-1.4	0.0	...
경 상 수 지	%/GDP	1.7	6.7	2.8	0.6	2.8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2.1	2.3	2.7	2.7	3.6
환율(기간평균)	Manat/달러	5,200	5,200	5,200	5,200	5,20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DB(2006a, 2006b); Global Insight(2005).

최근 높은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니아조프 정권은 사회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정부 투자와 함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천연가스·전력의 무상 공급, 각종 보조금 지급, 물가 통제 등 대중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재정은 향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10%대로 진입하였다. 현재 마나트貨 對달러 공식 환율은 5,200마나트(Manat)로 고정되어 있으나, 외환시장이 취약하고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제 환율은 달러 당 2만 4천마나트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주요 산업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10조m³로 전 세계의 1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와 880억 배럴을 자랑하는 석유에서 나온다.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최대 산업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수출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2005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630억m³이며, 이 중 70% 이상을 수출하였다. 석유도 2005년에 일일 19만 배럴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최근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2004년 천연가스 생산증가율은 -0.8%를 기록하며 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7.5% 증가하며 반등하였으나, 정부의 연초 목표치인 780억 입방미터에는 20% 이상 미치지 못했다. 석유 생산 증가율은 2004년에 0.5%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5.3%로 급감하였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주변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조m³로 공식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TAP 가스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정부의 공식 발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12.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동향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천연가스	생산량(십억m ³)	53.5	59.1	58.6	63.0
	증가율(전년대비, %)	4.3	10.5	-0.8	7.5
석유	생산량(b/d)	180,723	200,884	201,827	191,205
	증가율(전년대비, %)	12.2	11.2	0.5	-5.3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TAP 가스관 이외에, 이란 수출용 가스관의 확장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에 연간 약 300억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투르크메니스탄-중국(Turkmenistan-China)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³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5년 11월 열린 제10회 국제 석유·가스 박람회 및 콘퍼런스에서 2020년까지 약 600억 달러의 외자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40%는 생산물분배조약(PSA)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연간 석유 1억 톤, 천연가스 2,400억m³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및 가스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유시설은 투르크캄바시(Turkembashi)와 세이디(Seidi) 2곳에 존재하는데, 일본 이토추 상사는 세이디 정유시설의 현대화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중국 CNPC는 정유 플랜트, 석유, 건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38) 현재 건설 계획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아마다리야(Amudarya)강에서 출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광둥성(Guandun)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약 7천km 가스관으로, 양국이 건설에 합의한 뒤 2006년 9월 중국 정부가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되었다. Press-Club Kazakhstan(2006, 10, 2).

투르크메니스탄에 미납한 가스대금의 조속한 완납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주요국들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다.

농업의 주요 작물은 면화 및 곡물이며 2000년대 들어서 생산성 및 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면화의 헥타르당 산출량은 2000년에 1.80톤이었던 것이 2004년에 1.12톤으로 줄어들었다. 곡물의 산출량은 2000년 170만 톤에서 2005년 250만 톤으로 5년 동안 약 47% 증가하였으나, 2005년 목표 산출량인 310만 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농업의 국가통제로 인한 생산성 향상 인센티브의 부족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스자카즈(Goszakaz)라고 하는 정부곡물수매제도를 통해 국가가 농업의 투입량과 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의 곡물 수매가로 결정되고 있다.

3) 경제발전전략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구소련 시대와 유사한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도 여전히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전력, 가스, 수도 등 사회기반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내재적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 CIS 국가 중 유일하게 IMF 체제전환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MF는 1999년 말 주재원을 철수시켰으며, EBRD도 2001년부터 대규모 지원을 보류한 채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만 유지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되었던 『2000~2010년 사회 및 경제 체제전환전략(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 체제전환전략)』에 나타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식 경제

발전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석유정제,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에는 체제전환전략을 수정 보완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Strat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t the Period up to 2020)』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정부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다. 본 전략은 농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10월 토지 및 관개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였다. 또한 2004년 중반부터 2005년 말까지 정부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18개월 동안 44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바. 아제르바이잔

1) 경제동향

카스피해 서안을 접하고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CIS의 대표적인 석유수출국이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 침체를 경험하였다. 특히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³⁹⁾으로 인해 1995년까지 국내 산업생산은 58%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정부가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39)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The Nagorno-Karabakh Autonomous Region)는 아르메니아인 77%, 아제르바이잔인 23%가 거주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자치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내의 아르메니아 정교 엔클라브(enclave) 지역이다. 1992년 아르메니아인을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했으나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남아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는 7세기부터 아르메니아 영토였으나,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아제르바이잔에 편입되었다. 1994년 5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 표 4-13. 아제르바이잔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증가율	%	9.9	10.6	11.2	10.2	26.4
산업생산증가율	%	7.3	15.2	14.1	12.6	44.5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2.8	2.6	6.7	9.6
총투자증가율	%	16.7	82.2	73.0	35.9	12.7
수 출	십억 달러	2.3	2.2	2.6	3.6	4.3
수 입	십억 달러	1.4	1.7	2.6	3.5	4.3
재 정 수 지	%/GDP	-0.4	-0.4	-0.2	-0.2	-0.7
경 상 수 지	%/GDP	-0.9	-12.3	-27.8	-30.4	1.3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1.1	1.4	1.6	1.8	2.4
환율(기간평균)	Manat/달러	4,656	4,861	4,911	4,914	0.95

주: 2005년 환율은 2006년 1월 1일자 라디노파네이션 반영 환율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zerbaijan(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 2006; National Bank of Azerbaijan(2006), Statistical Bulletin No. 8(78); ADB(2006),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아제르바이잔은 2000~04년의 5년간 평균 10.7%, 2005년에는 26.4%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고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이다. 2005년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송유관⁴⁰⁾과 아제라-치라그-구나슬리(ACG) 유전⁴¹⁾ 샤-데니즈(Shah-Deniz) 가스전⁴²⁾ 등 석유 및

40) BTC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출발하여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를 경유하고 터키의 지중해 항구도시 제이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767km의 송유관으로, BP를 중심으로 11개 다국적 석유 메이저가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이 총 36억 달러를 투입하여 2005년 완공하였다. BTC 송유관의 석유 수송능력은 일일 50만 배럴이며, 향후 100만 배럴로 증가할 계획이다. BTC 송유관의 건설로 아제르바이잔 석유 수출은 러시아 송유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석유 수출로 다변화와 운송수익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김선영(2005),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개통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8권 제8호 참고.

41) ACG 유전은 아제르바이잔 해안 1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4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 ACG 유전은 SOCAR와 10개 다국적 석유 메이저가 합작한 아제르바이잔 국제 운영회사가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하였다. 1997년 치라크-1 광구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생산한 이래 일일 평균 14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ACG에서 생산된 석유는 최근 개통된 BTC 송유관을 통해 수출된다.

가스 부문 개발에 집중된 FDI는 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1,500억 달러를 추가로 석유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여 2009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현재의 세 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산업 생산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0.3%에서 2005년 76%로 높아졌다. 또한 EBRD의 경제지원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2001년 7월 IMF로부터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의 승인을 얻어내면서 거시경제 안정화를 통한 경제개혁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성장으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재정수지는 사회 및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GDP 대비 -1.0% 이내의 소폭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물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석유 수출소득을 염두에 둔다면 비교적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꾸준히 주목해야 할 변수이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외화소득의 증가로 발생하는 對달러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여, 2004년 총통화 증가율(M2 기준)은 47.5%까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후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04년에 GDP 대비 -30.5%의 적자를 기록한 후, 개선되어 2005년에는 1.3% 흑자를 기록하였다.

2) 주요 산업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산업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42) 사-데니즈 가스전은 확인 매장량 약 4천억~7천억 m^3 , 추정매장량 1조 1천억 m^3 을 보유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가스전으로, BP사가 지분의 25.5%를 가지고 개발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증가이다. 2000년대 들어 석유 생산량은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석유 생산량이 2,221만 톤에 달하며 전년대비 42.9%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천연가스도 전년대비 13.6% 증가한 56억 7,600만㎥가 생산되었다.

■ 표 4-14.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동향 ■

연도	석유		천연가스	
	생산량(천 톤)	증가율(%)	생산량(백만㎥)	증가율(%)
2001	14,909	...	5,535	...
2002	15,334	2.9	5,144	-7.1
2003	15,381	0.3	5,128	-0.3
2004	15,548	1.1	4,995	-2.6
2005	22,212	42.9	5,676	13.6

자료: ADB(2006),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은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SOCAR)⁴³⁾와 BP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자본 컨소시엄인 아제르바이잔 국제 운영회사(AIOC)⁴⁴⁾가 담당하고 있다. SOCAR는 전체 생산량의 약 40%, AIOC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AIOC는 현재 아제르바이잔 석유 수출 총소득의 50% 이상을

43)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SOCAR)는 아제르바이잔 역내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담당하는 국영회사이다. 사장은 대통령 알리에프자인 나티그 알리에프(Natig Aliyev)이고, 약 7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SOCAR는 설립 이후 다국적 석유 메이저들과 약 25개의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하였으며, BTC 송유관과 남카프카즈 가스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http://www.azer.com/aiweb/categories/services/services_company/socar.html).

44) 아제르바이잔 국제 운영회사(AIOC)는 1994년 SOCAR와 10개 다국적 석유 메이저들이 ACG 유전 개발을 위한 30년 PSA를 체결하면서 설립된 합작회사이다. AIOC는 1997년 11월 치라그-1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한 이래 아제르바이잔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IOC의 지분 보유 현황은 BP 34.1%, SOCAR 10.3%, Lukoil 10%, Unocal 10%, Statoil 8.6%, Exxon Mobil 8%, Turkish Petroleum 6.8%, Devon 5.6%, Itochu 3.9% and Delta Hess 2.7%이다. (http://www.azer.com/aiweb/categories/magazine/62_folder/62_articles/62_socar_aioc.html)

점유하고 있다. AIOC의 2005년 석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90% 이상 증가하였는데, BP 등 세계 석유 메이저들이 최신 채굴기술을 적용한 결과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에는 4개의 대형 석유 및 가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BTC 송유관 건설은 완료되었고, 샤데니즈 가스전과 남카프카즈 가스관(SCP) 건설은 현재 진행 중이다. ACG 유전 개발은 2005년 2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2008년까지 총 3단계가 완공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 컨소시엄의 최신 채굴기술은 ACG 유전에도 적용되었다. ACG 유전의 확인매장량은 54억 배럴로, 아제르바이잔 총확인매장량의 40~70% 수준에 달하고 있다. BP를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컨소시엄은 2005년 초 ACG 유전의 재개발을 마무리했다. 재개발 전인 2004년 1~9월까지 ACG의 원유 생산량은 400만 톤에 불과했는데 재개발 후 2005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총 87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BP는 2020년까지 ACG 유전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국가 전체 생산량의 1/3 수준인 5억 배럴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ACG 유전의 재개발과 더불어 생산된 석유의 수출로로서 BTC 송유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통되었다. 본 송유관은 매년 ACG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 5천만 톤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BTC 송유관의 경제적 의미는 기존 러시아 송유관에 의존하던 것을 독자적인 루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송유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에 56억 7,6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으로 대부분의 천연가스가 생산단계에서 소실되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용 천연가스를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년대비 14% 늘어난 65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BP와 노르웨이 Statoil 컨소시엄은 샤데니즈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본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또한 전량 수출될 예정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2009

년까지 연간 160억 입방미터 규모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업은 최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산업으로, 1991년 전체 GDP의 30%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5.2%로 급감하였다.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구소련 시절 집단·협동농장의 형태였던 농업부문을 2000년까지 99% 민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IT 산업은 정부가 산업다각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선정한 신규 육성산업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 다음으로 많은 FDI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무선통신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통신부문은 국영기업인 아즈텔레콤(Aztelecom)이 독점하고 있다. 1995년 인구 100명당 0.9명 수준이던 유선 가입자 수는 2004년에 13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무선통신부문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아제르셀(Azercell)과 박셀(Bakcell)의 양대 사업자⁴⁵⁾가 분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 인터넷 가입자는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향후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면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발전전략

아제르바이잔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에너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에너지 수출소득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비에너지부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으로 인한 재정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45) 아제르셀은 아제르바이잔 최대 무선통신 사업자로, 아제르바이잔 통신부가 전체 지분의 35.7%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무선통신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박셀은 아제르바이잔 통신부가 지분의 25%를 차지하고, 미국의 모토로라와 이스라엘의 GTIB가 공동으로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제르바이잔 무선통신시스템인 E-TACS를 최초 개발하였으나, 1997년 아제르셀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CIS 에너지 수출국 중 가장 먼저 석유 수출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안정화기금을 설립하였다. 1999년 12월에 설립된 안정화기금인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SOFAZ)’은 2005년 말 현재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주요 경제발전전략의 하나인 『석유 및 가스 소득 운용에 관한 장기 전략(The Long-term Strategy on the Management of Oil and Gas Revenues)』을 승인하였다. 본 전략의 목적은 SOFAZ를 이용하여 비에너지부문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본 전략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국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산업다각화를 위한 비에너지부문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발전을 위한 국가 IT 전략 2003~2012』을 통해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추진, 정보화 사회에 맞는 법적 토대 마련, IT 교육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 사업은 EBRD가 아제르바이잔 중점 지원부문으로 선정할 정도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다.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은 효율적인 경제 인프라 구축이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제르바이잔 교통부는 EBRD와 연계하여 바쿠-사무르(Baku-Samur)간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수도인 바쿠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사무르간 60km에 이르는 구간 도로의 보수 및 확장 공사로, 총 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 국영 철도회사(Azerbaijan State Railway)는 열차의 현대화를 비롯한 철도부문 인프라 확충을 위해 EBRD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경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국영 전력회사인 아제르에너지(Azerenergi)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발전소인 아즈그레스(AzGres)에 대한

투자 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전력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IT 산업,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의 경제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제르바이잔 주요 외화획득원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 및 투자 확대이다. 정부는 EBRD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 SEP)』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및 재원조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국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04년까지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기조는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막기 위한 통화팽창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이외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구축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부문의 개혁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은행법(Banking System Law)』, 2004년 12월에는 『중앙은행법(the National Bank Law)』이 입법화되었다. 은행법은 상업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 시장조작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통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주된 골자로 한다.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장기 전망

가. 경제발전 평가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기존에 지정학적 및 전략적 가치만

을 인정받고 있던 중앙아시아는 최근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이자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평가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및 통계자료는 중앙아시아 6개국을 에너지자원(석유·천연가스) 수출국 3개국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3개국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것이다. 이는 두 집단간의 경제발전 성과가 서로 명확하게 상이한 특징과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 4-15]에 따라 총수출 중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의 3개국을 에너지자원 수출국으로, 이에 비해 낮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3개국을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으로 정의한다.

■ 표 4-15.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2005년) ■

	총수출 (백만 달러)	에너지자원 수출 (백만 달러)	에너지자원 수출비중(%)
카자흐스탄	27849.0	20553.3	73.8
투르크메니스탄	3161.0	2920.3	92.4
아제르바이잔	4347.2	3338.6	76.8
우즈베키스탄	5408.8	530.1	9.8
키르기스스탄	672.0	96.8	14.4
타지키스탄	909.0	...	26.5이하

주: 1)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의 에너지 수출은 HS Code 'Mineral Products' 기준임.

2) 우즈베키스탄은 EIU(2006)의 2003년 품목별 수출비중 중 'Energy Products' 기준임.

3) 타지키스탄은 EIU(2006)의 2005년 품목별 수출비중에 따르면 알루미늄·면섬유·전력의 수출이 73.5%를 차지함.

자료: ADB(2006a, 2006b); EIU(2006).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주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내에 부족한 산업 및 사회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은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다.

■ 표 4-16. 중앙아시아 6개국의 GDP 성장률 동향 ■

(단위: %)

국가 / 연도		1992~96년 (기간평균)	1997~2001년 (기간평균)	2002~04년 (기간평균)	2005년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7.0	5.2	9.5	9.5
	투르크메니스탄	-9.3	10.2	21.3	9.6
	아제르바이잔	-15.3	7.8	10.6	26.4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3.4	4.4	5.2	7.1
	키르기스스탄	-10.6	5.3	4.7	-0.6
	타지키스탄	-15.2	5.9	10.1	6.7
전체		-8.0	6.1	9.9	9.8

자료: Malcolm Dowling *et al.*(2006)을 참고로 일부 수정

■ 표 4-17. 중앙아시아 6개국의 1인당 GDP 동향 ■

(단위: 달러)

국가 / 연도		1992~96년 (기간평균)	1997~2001년 (기간평균)	2002~04년 (기간평균)	2005년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3,879	4,422	6,736	8,318
	투르크메니스탄	3,686	3,302	6,254	8,098
	아제르바이잔	2,281	2,340	3,408	4,601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1,387	1,475	1,725	1,920
	키르기스스탄	1,384	1,498	1,826	2,088
	타지키스탄	842	762	1,126	1,388
전체		2,243	2,300	3,512	4,060

주: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통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표 4-16]은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및 전체의 GDP 성장률을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2~96년 기간에는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8.0%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는 해가 거듭될수록 GDP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국 3개국의 GDP 성장률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3개국보다 월등히 앞서며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에 나타난 PPP 기준 1인당 GDP도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2005년에 8,318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고, 같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보유한 타지키스탄의 격차는 약 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 중심의 경제성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적절한 정책으로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뒷받침 속에 경제발전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표 4-18. 중앙아시아 6개국의 농업·제조업·서비스업 GDP 비중 변화 ▮

(단위: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1995년	2005년	1995년	2005년	1995년	2005년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12.3	6.5	30.0	37.6	57.7	55.9
	투르크메니스탄	16.1	23.5	58.6	42.3	25.3	34.2
	아제르바이잔	27.5	10.0	33.6	62.3	38.9	27.7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32.4	28.1	27.8	28.7	39.8	43.2
	키르기스스탄	43.9	34.1	19.5	20.9	36.6	45.0
	타지키스탄	38.4	24.2	39.0	25.9	22.6	49.8

주: 투르크메니스탄 통계는 1995년과 2003년 자료임.

자료: ADB(2006a, 2006b)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노력도 점차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성장동력 다각화는 에너지자원 수출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표 4-18]은 1995년과 2005년의 중앙아시아 국별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후 10년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의 비중은 감소했다. 대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에너지 수출국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서비스업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제조업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제조업 비중은 10년 만에 28.7%나 높아졌다. 같은 에너지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의 정체와 천연가스 수출 소득의 제조업 재투자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농업 비중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3개국은 제조업 비중이 감소 혹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제조업의 침체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 증가로 추측할 수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장기 성장동력이 부재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 표 4-19. 중앙아시아 6개국의 주요 대외경제지표 변화와 2006년 경제자유도 ■

		무역(%/GDP)			FDI(백만 달러)			2006년 경제자유도	
		1995년	2005년	증가율 (%)	1999년	2005년	증가율 (%)	무역	외국인 투자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17.2	12.4	-4.8	1,468	6,935	372.4	3.5	4.0
	투르크메니스탄	3.9	4.1	0.2	125	315	152.0	2.5	5.0
	아제르바이잔	6.4	7.5	1.1	355	2,100	491.5	3.0	4.0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6.0	10.4	4.4	121	243	100.8	3.0	4.0
	키르기스스탄	11.9	19.9	8.0	38	91	139.5	2.5	3.0
	타지키스탄	8.0	24.7	16.7	7	204	2,814.3	3.0	4.0

자료: ADB(2006a, 2006b); Global Insight(2005); Heritage Foundation(2006).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부문은 대외경제 개방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출 증가 및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의 GDP 비중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에서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FDI는 금액과 증가율에서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부문에 FDI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지키스탄은 예외의 경우인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IMF 프로그램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데다가 자국 산업의 미발달로 주변국과의 중개 무역이 발달한 것이 무역과 FDI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평가한 무역과 FDI 부문 2006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⁴⁶⁾를 보면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무역부문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외국인투자부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자국의 사정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에너지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은 때로는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때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통해 농업,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물론 각 국가에 주어진 부존자원의 유무, 특히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유무에 따라 현재까지의 경제발전 정도는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46)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는 △ 무역 △ 재정부담 △ 정부의 경제 개입 △ 통화정책 △ 외국인투자 △ 금융 △ 임금/물가 △ 지식재산권 △ 규제 △ 비공식 시장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얼마나 한 국가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지를 평가한다. 각 요소별 평가와 총평가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경제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기준은 1~1.99는 자유, 2~2.99는 비교적 자유, 3~3.99는 비교적 부자유, 4~5는 부자유이다.

이, 에너지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까지의 경제 성적은 앞서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은 한계가 있다. 에너지자원을 잘못 운용했을 시에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자원 수출의 의존도를 줄이고, 대외경제개방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경제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나. 시장성·성장성 평가

문화·제도·관습 및 경제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가들이란 무엇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를 의미하며,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이 국가를 거점으로 하여 인접한 국가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진출거점국가일 경우 더욱 좋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점 경제협력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성, 성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 4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장성 요소는 GDP, 1인당 GDP(시장환율 기준), 수출입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장성 요소는 실질 GDP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등 3개 항목별 최근 5년간 평균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잠재력 요소는 자원부존, 지리적 입지, 역내 경제통합체에서의 역할 등 3개 항목을 비교할 수 있으며, 통상환경 요인은 GDP 대비 민간부문 비중, 기업자유화, 시장 및 교역 자유화, 금융자유화 정도 등 시장개방도와 관련된 사항을 통해 비교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시장성과 성장성은 주관적인 견해가 일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질적 비교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양적 비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유망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6개국 가운데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며, 대체로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에 비해 시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은 GDP, 1인당 GDP, 수출입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는 우즈베키스탄의 뒤를 이어 2위를 점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에 힘입어 GDP와 1인당 GDP 규모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구 2,65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입 규모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나,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GDP 규모는 카자흐스탄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표 4-20.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지표(2005년) ▮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시장 환율)	수출액 (십억 달러)	수입액 (십억 달러)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15.2	56.1	3,716.9	28.3	18.0
	투르크메니스탄	4.8	17.7	3,516.3	4.9	3.6
	아제르바이잔	8.4	12.6	1,492.9	4.3	4.3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26.8	11.7	445.3	5.4	4.1
	키르기스스탄	5.0	2.4	473.4	0.7	1.1
	타지키스탄	6.9	2.3	364.3	0.9	1.3

자료: ADB(2006a, 2006b); Global Insight(2006).

■ 표 4-21. 중앙아시아 6개국의 성장성 지표 ■

(단위: %, 기간평균)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1~05년	2001~05년	2001~05년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9.3	9.4	9.5	10.2	20.1	22.5
	투르크메니스탄	17.1	17.2	9.6	16.0	16.3	16.0
	아제르바이잔	11.2	10.2	26.4	13.7	30.0	26.2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4.5	7.7	7.1	5.6	15.6	12.9
	키르기스스탄	7.0	7.0	-0.6	3.7	7.0	15.7
	타지키스탄	10.2	10.6	6.7	9.4	7.7	8.2

자료: ADB(2006a, 2006b); Global Insight(2006).

최근 5년간의 성장성을 보면 에너지자원 수출국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간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이 나란히 최근 5년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입 증가는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수출과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역시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따르고 있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중에는 타지키스탄이 최근 5년간 9.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비교적 높은 수출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인 자원부존에서도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이 월등하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잠재 석유매장량의 50~ 56%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4위의 은·구리·망간·크롬·석탄 및 희귀금속 매장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잠재 석유매장량의 17~20%를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상당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생산량이 수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리적 입지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경제권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와 CIS 전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바, 진출거점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CIS내 최대 경제국인 러시아의 서시베리아지역과 CIS 서부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연계성이 탁월하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CIS 경제동맹’에서 러시아와 함께 가장 적극적인 역내 경제통합 지지국이며, 타 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가이고 고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물류비용이 매우 높은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시장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이자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통상환경이 우수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6개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향후 전망

중앙아시아 경제는 국제가격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에너지자원 및 농산물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경제 전망 역시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Dowling · Wignaraja의 논문 “Turning the Corner: The Economic Revival of Central Asia(2005)”⁴⁷⁾와 권위 있는 세계경제 조사예측기관 Global Insight

47) 본 논문의 중앙아시아 경제 전망치는 Oxford Economic Forecasting(OEF)에서 제시한 세계경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 3.3%의 비교적 견고한 세계경제 성장과 국제수요의 증가 △ 배럴 당 35달러의 고유가 기조 유지 △ 새로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 △ 전쟁을 비롯한 지역 분쟁의 안정화 추세 △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신뢰도 상승 △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개혁 지속 등이다.

의 전망을 중심으로 2015년 중앙아시아의 전체 및 국별 경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 표 4-22. 중앙아시아 6개국의 주요 거시경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GDP(달러)	제조업수출 (1인당, 달러)
국가 / 연도		2005~15년	2015년	2015년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7.5	5,248	365.3
	투르크메니스탄	5.8	1,959	136.2
	아제르바이잔	11.2	2,829	37.4
에너지 자원 非수출국	우즈베키스탄	5.2	591	82.3
	키르기스스탄	5.8	593	57.4
	타지키스탄	6.1	375	83.0
전체		7.2	1,933	141

자료: Malcolm Dowling *et al.*(2005)

2015년까지의 중앙아시아는 7.2%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출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유가와 대량 석유·가스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석유 및 가스 수출이 지속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아제르바이잔이 11.2%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다만 석유 및 가스 수출이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은 3%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3개국의 석유 및 가스 가채연수는 25~60년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석유 및 가스수출은 연간 약 320억 달러로 현재의 120억 달러에서 약 1.7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다각화 역시 현재보다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는 2015년의 1인당 제조업 수출은 2003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141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아제르바이잔은 당분간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입수요의 확대,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앙아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에 비해 2.3배 증가한 1,933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역시 에너지 수출국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2015년에 5,24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구매력 증가와 수입수요의 확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환율 절상의 분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진다면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병의 징후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국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신용도 상승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뒤따른다면 에너지부문뿐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lobal Insight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2005년까지의 경제실적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경제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4년을 고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국제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었다는 측면과 각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추세가 추가로 반영되었다.

Global Insight도 10년 뒤 에너지자원 수출국 경제가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경제보다 훨씬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23]과 [표 4-2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양측의 시장성 및 성장성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각국의 시장성에 비해 2015년 시장성 전망에서는 GDP 규모, 소득수준 및 수출입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에너지 자원 수출국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전망에서도 GDP와 수출입 시장 모두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23.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전망 ■

	구분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시장 환율)	수출액 (십억 달러)	수입액 (십억 달러)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15.3	177.8	11,598.3	81.2	50.2
	투르크메니스탄	5.9	73.5	12,491.0	20.0	17.3
	아제르바이잔	9.1	65.5	7,189.8	26.1	21.7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31.0	24.8	799.0	11.9	10.7
	키르기스스탄	5.8	3.6	629.4	0.9	1.3
	타지키스탄	7.9	5.0	634.9	2.0	2.2

자료: Global Insight(2006)

■ 표 4-24.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성장성 전망 ■

(단위: %, 기간평균)

	구분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6~10년	2011~15년	2006~15년	2006~15년	2006~15년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8.7	7.0	7.9	14.0	11.0
	투르크메니스탄	12.4	8.2	10.0	15.0	17.0
	아제르바이잔	12.3	6.5	9.5	16.0	17.0
에너지 자원 비수출국	우즈베키스탄	4.5	4.2	4.3	8.2	10.0
	키르기스스탄	3.8	3.4	3.6	2.2	2.5
	타지키스탄	5.5	4.5	5.0	5.8	5.4

자료: Global Insight(2006)

Global Insight는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 국제원자재 시장에 당분간 급격한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고유가 행진이 2006년을 정점으로 안정되어 2007년 이후에는 국제에너지 수요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밖에 중앙아시아 내부의 위험요인으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재발, 금융 및 인프라 부문의 취약성, 자국 통화가치 절상에 따른 제조업 위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경제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lobal Insight와 Dowling & Wignaraja의 전망치는 기준 통계시점 및 전망시점과 각국 정부통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국 중앙아시아 경제는 대체로 이 전망치들 사이에서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비에너지산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다각화, 지속적으로 국내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분석

이재영 · 박상남 · 이지은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강대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일약 세계상품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거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도 이에 걸맞은 역할 강화와 영향력 확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新참국으로서의 한계도 함께 노정되고 있다.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강대국화 전략의 핵심은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등한 세계적 강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이 선택한 정책적 수단은 △ 미국을 위시한 G-7, 러시아, NATO와의 전략적 대화 채널의 구축 △ 둘째 한반도(북핵 6자회담), 동남아시아(중국과 ASEAN의

통합형태), 중앙아시아에서의 다자시스템 구축과 같은 다자외교 추구 등이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중앙아시아 4국과 러시아 및 중국이 포함된 상하이 협력기구(SCO)⁴⁸⁾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쌍무관계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⁴⁹⁾ 전통적으로 조용하고 수동적인 외교를 펼쳐오던 중국이 이와 같이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강대국화 정책, 중앙아시아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견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따른 러시아, 미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다. 중국의 급격한 세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우려와 경계심에서부터 중국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내의 시각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선 현실주의에 기초한 K. N. Walt의 중국 부상에 대한 경고가 있고, R. Gilpin은 미 일극패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Z. Brezezinski는 미국에 도전할 세력의 출현 방지 노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적 접근에서의 B. Russett는 민주 평화론을, F. Fukuyama는 낙관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그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⁵⁰⁾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고려해볼 때 중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미국이 어떤 시각에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지역에 오랜 역사적 연고를 가진 러시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정책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⁵¹⁾

48) 박상남(2005)

49) Bates G. and Oresman M.(2003)

50) 이정택(2001)

51) 중앙아시아에서 3대 강국간의 관계는 그 중 어느 한 측도 중앙아시아에서 정치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느끼지 않도록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입장에 처한 것이, 중앙아시아와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이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도 중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지리·운송 통로’이며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문제는 중국의 존재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에너지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자인 동시에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이해 실현을 위한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효과적인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심을 최소화하면서 이 양국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보다 지혜로운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지는 이해와 전략을 파악해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나.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1)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관계

12~13세기부터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과 서방과의 교역을 중개했고 문화교류의 창구역할을 담당해왔다. 동시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무슬림 등 서역 민족들은 중국 황제의 안위에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이렇듯 인적·물적 교류의 중개자였던 중앙아시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중국의 전략적 후방기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950~60년대에 중국은 동부해안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정치적 연합을 자국 안보의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동부 전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제3지대 안보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제1지대’는 중국의 주요 군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 연안지역이며, ‘제2지대’는 군수 생산지가 위치한 내륙지역으로서 연안지역에

서 패할 경우 2차적으로 방어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병력이 배치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제3지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후 방어선인 서부지역이다. 이 시기에 중국은 서부지역 수호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이상적 후방기지’로서 인식하고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대의 구소련과 밀월관계는 중국에 미국과의 전쟁 발발 시 중앙아시아를 ‘후방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60~80년대에 발생한 중·소 분쟁으로 말미암아 소련의 일부인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중국의 안전한 후방기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의 ‘제3지대’인 서부지역을 위협하는 최전선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소련과 군사적 긴장 고조는 몽골에서 북한에 이르는 국경지대까지 전선의 확장을 의미했으며 중·소 국경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정상을 되찾자 중국은 비로소 서부지역의 안보에 대해 안도할 수 있었다. 또한 국경 주변의 긴장 완화와 ‘제3지대’ 안보를 위해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과 국경문제 해결에 착수하였다. 소련 붕괴 후 중·소의 국경문제는 양자관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관계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국경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은 ‘상하이 5’(현재의 ‘상하이 협력기구’의 전신)를 탄생시켰다. 1996년 4월 상하이에 모인 5개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국경문제 해결과 군사·안보적 상호 신뢰 구축을 논의했으며, 1998년 이후에는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분열주의, 종교적 극단주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응을 안보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의 배경에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운동, 러시아의 체첸 분리·독립운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분쟁 등 당시 해당국들의 당면과제로 등장한 분리 독립운동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2001년 6월에 이르러 상하이 5개국+우즈베키스탄은 SCO라는 다자안보

협력기구를 탄생시킨다. SCO의 창설은 NATO의 동진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중·러 이해가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지정·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적 대화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⁵²⁾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위구르 자치구, 즉 중국의 서부지역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동투르크스탄’ 분리주의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⁵³⁾ 둘째, 과거 전통적인 중국의 중앙아시아 접근방식을 계승하여 이 지역 안정을 통해 중국의 ‘이상적 후방기지’로 남게 하고, 셋째, 중앙아시아를 중요한 대외경제협력 대상지역으로 만들고, 넷째, 중앙아시아를 주요 에너지 공급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1) 신장·위구르(동투르크스탄) 독립운동 억제

신장·위구르(동투르크스탄) 독립운동은 대만, 티베트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국가통일성 유지를 좌우하는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동투르크스탄’이란 명칭의 유래는 18세기의 현재 중국 서부지역인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서투르크스탄(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구분되는 의미로 러시아와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불려졌다. ‘신장·위구르(동투르크스탄) 분리·독립운동’ 조직은 20세기 초에 형성되었는데, 1933년과 1944년 각각 짧은 시기나마 ‘동투르크스탄 공화국’이 공포되었다. 1990년대 이후

52) Bates and Oresman(2003)

53) 동투르크스탄 독립운동 조직이 주장하는 동투르크스탄 지역은 중국 서부의 신장·위구르 지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국제적 테러가 기승을 부리자 ‘동투르키스탄’ 분리·독립운동 조직도 거대화 되어 중국의 단일국가 유지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동투르키스탄’ 분리·독립운동 단체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250여 차례 이상의 테러를 감행했고 이로 인해 약 1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동투르키스탄’이라 불리는 신장·위구르 지역과 지리·인종·종교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인종과 언어, 종교적으로 투르크계 민족의 유산을 공통적으로 물려받고 있는 데서 기원한다.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운동 단체들과 극단주의적 종교조직은 카슈미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라비아 반도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1991년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러한 단체 및 조직들에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은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조직’의 인적·사상적·물질적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국제테러 조직과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조직의 중국 본토 침투를 위한 주요 통로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자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안보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만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적 연관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인 상하이 협력기구에 주력하게 만들고 있다.

2) 중국의 전략적 후방기지화

전통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와 대만,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남쪽의 위협에 대비한 안보적 ‘후방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미국의 ‘중국 성장 억제 정책’과 ‘대만 문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운동 역시 미국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미·일 동맹 강화도 중국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서부국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중앙아시아의 후방기지화(안전지대화)를 추진해왔다. 구소련 붕괴 후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조속한 국경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구축 및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군 주둔으로 발생할 안보상의 위협과 중국을 배제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군사 및 정치적 협력체의 등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적대적 강국 또는 중국을 제외시킨 국가연합체와 반(反)중국 군사연합체의 출현을 억제하고자 한다.⁵⁴⁾ 동시에 중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중앙아시아가 장악되는 것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권에 들어갈 경우 자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들의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 저지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정권들의 공통된 소망이기도 하다.⁵⁵⁾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는 자국내의 분리·독립운동 저지와 테러와의 전쟁, 정권 안보라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극단주의 세력권에 장악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들이는 요소인 부패와 독재 그리고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이 지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착시켜야 비로소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54) Bhatti and Bronson(2004)

55)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요소와 반테러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불안정을 조장하는’ 요소가 약하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시아 인식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참여와 경쟁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힘에서 자신의 우세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연대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그 국가들이 압력이나 강압정책의 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에너지자원의 접근에서 과연 러시아 및 중국과 어떻게 협력과 경쟁의 방식을 풀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미국이 그들의 정책을 역내 자원의 독점적 지배를 목표로 하는 제로-섬게임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미국에 중앙아시아는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보루이다. 원리주의, 마약거래와의 전쟁이라는 과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박병인(2004) 참고.

다. 다시 말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과 중앙아시아 진출은 역설적으로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던 신장·위구르 분리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자원 확보, 테러 및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와 공동협력의 유용성을 잘 깨닫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중국은 자국 영토의 후면에 서마저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⁵⁶⁾

현재 중국은 선린관계 유지, 평화 유지, 경제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자적·양자적 방식을 병행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다자적 접근과 양자적 접근의 병행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정부간 교류에서 벗어나 비정부기구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얻은 교훈으로 보인다.⁵⁷⁾ 비정부기구 중심의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는 달리, 중국은 이제까지 국가간의 공식 교류에만 의존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과 그루지아의 경우에서처럼 갑작스런 정권 교체 후 대화채널이 단절되어 중국과 정부의 효과적인 상황 대응과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양국 학자들간의 다양한 학술교류 지원,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민간차원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 야당 인사 등과 교류 확대 등 대화채널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 경제 진출전략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과 더불어 에너지자원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부지

56) 박상남(2005) 참고.

57) Bates and Oresman, *op. cit.* 참고.

역과 동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 해소는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서부 국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분리·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갖는 이해는 바로 자국의 경제성장을 담보할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계속되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의 증가이다. 2004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억 8천만 톤에 달하고, 이 중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중국은 1997년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취한 일련의 외교·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에너지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⁵⁸⁾ 석유 및 가스 공급원의 다각화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기대하고 있던 시베리아의 앙가르스크다칭 송유관과 코비타-중국-한국 가스관 사업의 복잡함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중동’으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민에 빠진 중국에 새로운 활로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사시 에너지 수급 및 수송안보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또한 중국 서부 개발시 잠재된 배후시장 및 유럽·중동 지역과의 연결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며 중국의 핵심 관리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제·종교·문화·역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지

58) 주재우(2004)

역 소수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양 지역의 역사·문화·종교적 공통성을 강조하며 중·소 대립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新실크로드 건설 등 수송 인프라 구축⁵⁹⁾과 더불어 값싼 소비재를 통한 국경무역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잔 포함)간의 교역량은 1992년 5천만 달러에서 2006년 124억 2,729만 달러로 14년 만에 무려 248.5배나 증가하였다. 2006년 기준 중국의 대중아시아 총무역량에서 카자흐스탄이 67%로 1위를, 키르기스스탄이 7.8%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도 막대한 규모의 오일달러 유입에 따른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역시 국경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5-1. 중국의 대중아시아 교역 추이 ■

(단위: 천 달러)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1998	교역액	630,667	82,346	191,241	18,441	12,475	1,308
	수출	199,818	49,984	165,549	10,254	10,252	1,146
	수입	430,849	32,362	25,692	8,187	2,223	162

59) 중국 정부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新유라시아대륙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아라산코우(阿拉山口)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로 관통하는 철도이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 내 연장이 4,131km에 달하며, 강소, 산둥, 안휘, 하남, 산서, 협서, 감숙, 영하, 청해, 신강 등 10개 城區의 주요 中城市를 통과하게 된다. 중국에서 新유라시아대륙철도가 통과하게 될 지역은 중국 인구의 30%인 약 4억 명의 인구와 중국 국토의 37%인 360만 km²의 면적을 포함한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북쪽으로는 동북철도망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접목되며, 남쪽으로는 범아시아철도와 연결된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교통운송체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의 중서부국경지대를 발전시키는 개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계속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1999	교역액	1,140,481	40,336	134,893	8,198	9,491	1,135
	수출	494,522	27,388	102,910	2,455	7,468	986
	수입	645,959	12,948	31,983	5,743	2,023	149
2000	교역액	1,556,764	51,465	177,611	17,170	16,157	6,168
	수출	598,600	39,432	110,174	6,793	12,102	2,188
	수입	958,164	12,033	67,437	10,377	4,057	3,980
2001	교역액	1,288,707	58,388	119,077	10,760	32,712	15,043
	수출	327,949	50,771	76,639	5,308	31,488	10,767
	수입	960,758	7,617	42,438	5,452	1,224	4,276
2002	교역액	1,955,742	131,613	201,874	12,387	87,515	95,483
	수출	601,097	104,210	146,156	6,501	86,780	94,028
	수입	1,354,645	27,403	55,718	5,886	735	1,455
2003	교역액	3,286,332	346,516	314,301	37,666	83,468	238,389
	수출	1,565,504	146,239	245,160	20,811	79,372	203,722
	수입	1,720,828	200,277	69,141	16,855	4,096	34,669
2004	교역액	4,493,305	575,175	602,208	68,860	98,681	183,879
	수출	2,212,493	172,470	492,757	53,490	84,796	143,670
	수입	2,280,812	402,705	109,451	15,370	13,885	40,209
2005	교역액	6,801,149	681,238	970,481	158,061	109,431	258,196
	수출	3,898,883	230,221	865,923	143,865	90,441	233,795
	수입	2,902,266	451,017	104,558	14,196	18,990	24,401
2006	교역액	8,358,674	971,955	2,225,817	323,704	178,466	368,671
	수출	4,751,530	406,102	2,113,026	305,702	162,453	346,682
	수입	3,607,171	565,853	112,791	18,002	16,013	21,989

자료: 『중국해관총서』;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국 정부는 자국 민간기업의 투자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보다 많이 유도하기 위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리스크관리, 정보 제공 및 자문, 국가간의 투자 보장 등)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민

간교류 활성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국가간의 경제협력구조(투자와 공동프로젝트)의 비중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영향력 확대는 주변국의 ‘중국 공포심’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주변국의 ‘중국 공포심’을 완화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중화경제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대중앙아시아 에너지 투자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는 에너지 안보문제를 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핵심 전략은 수입노선 다원화 정책이다. 중국은 현재 자국내 에너지지원 활용과 해외로부터의 수입증대로 당장 심각한 에너지 부족사태를 겪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0년 무렵에는 중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추세가 급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충당할 대체유전 개발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서시베리아 다음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 안전하게 가스·송유관을 건설할 수 있는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미래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석유, 가스 공급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는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9월 중국의 이붕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방문하여 『석유·가스 분야 협력 협정』과 『두 개의 송유관 건설에 대한 협정』(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중국 서부로 이어지는 송유관 및 이란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체결했다. 현재에도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말 카자흐스탄 카스피해에서 시작하여 중국 서부지역을 잇는 총연장 3천km에 이르는 송유관의 일부인 962km 구간이 완공되었다.⁶⁰⁾ 이 송유관을 통해 장기적으로 카스

피 해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국의 주요 재정적 투자는 석유·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카스피해 연안지역의 석유 채굴, 가공, 수송을 담당할 자국의 거대한 다국적기업 창설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제르바이잔 투자 현황(2004년 10월 기준)

중국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가 주축이 되어 1998년 이후 아제르바이잔 내륙의 4개 유전(Southwest Gobustan 유전, Kursangi-Garabagli 유전, Muradkhanli-Jafarli-Zardab 유전, Pirshagi 유전)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림 5-1.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원유개발 계약 체결 지역



자료: Oil and gas in Azerbaijan, <http://www.travel-images.com/az-oil.html>.

60) Ашимбаев и Лаумулин(2002)

(1) Southwest Gobustan 유전

SOCAR가 20%, 중국 CNPC가 62.83%, 캐나다의 Arawak Energy가 1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1.47억 배럴과 천연가스 7Tcf의 추정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에 2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9억 달러를 이 유전에 투자하였다.

(2) Kursangi-Garabagli 유전

1998년 12월 15일 투자계약이 체결된 본 유전은 SOCAR가 50%, 중국의 CNPC가 30%, Amerada Delta-Hess JV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유 7.3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기준으로 일일 6,6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된다. 중국은 본 유전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3) Muradkhanli-Jafarli-Zardab 유전

1998년 12월 15일에 체결된 본 유전은 SOCAR와 CNPC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CNPC는 이전 사업운영자였던 영국의 Ramco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산물분배협정(PSA)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추정 매장량은 원유 7.3억 배럴이며, 중국은 현재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4) Pirshagi 유전

중국석유화학총공사(Sinopec)는 2003년 6월 아제르바이잔과 매장량 7,500만 배럴 규모의 Pirshagi 육상유전 개발을 위한 PSA를 체결하였다.

나)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중국은 CNPC를 통해 1997년부터 자나줄 유전(추정 매장량 10억 배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개발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즈(Aktobemunaigaz)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에는 카사칸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BP가 지분을 내놓자 이를 사려 했으나 서방 메이저들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매입에 실패하였다. 중국은 2005년 8월 카자흐스탄의 쿰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페트로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5억 5천만 배럴에 달한다.

2005년 10월 추정 매장량 35억 배럴에 이르는 다르칸 유전을 KMG와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르칸 유전은 스페인의 국영석유회사 렉솔이 5년간 공동여 운영권을 손에 쥐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CNPC가 높은 값을 불러 합의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카자흐스탄 석유 부문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 인수

중국 CNPC는 2005년 10월 27일 러시아의 루코일, 인도의 석유천연가스 공사(ONGC)를 제치고 카자흐스탄 제3위의 석유공사인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을 총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는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기업 인수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일 15만 배럴(중국의 일일 소비량 670만 배럴의 2%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악토베무나이가즈(Aktobemunaigaz) 지분 인수

CNPC는 카자흐스탄 석유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즈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3%와 25.1% 인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예상 투자액인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예상 매장량 10억 배럴을 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악토베무나이가즈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4년에 원유 523만 톤,

천연가스 77Bcf를 기록하였다.

(3) North Buzachi 유전 지분 인수

CNPC는 2003년 9월 카자흐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North Buzachi 유전에 대한 지분 65%, 35%를 각각 ChevronTexaco, 사우디아라비아 Nimir Petroleum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본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10억~15억 배럴, 가채 매장량은 5.1억 배럴이며, 총 8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4)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직접 중국으로 공급하는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공사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생산 중심지 아티라우(Atyrau)에서 켄키야크(Kenkiyak)에 이르는 1단계 공사는 2003년에 완공되었으며, 카자흐스탄 중부 아타수(Atasu)와 중국 북서부 신강지역의 알라샨코이(Alashankoy)간 962km 구간의 2단계 공사는 2005년 12월 완공되었다. 현재 켄키야크(Kenkiyak)에서 쿰콜(Kumkol)에 이르는 3단계 공사는 페트로카자흐스탄 주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완공 예정이다. 본 송유관의 건설로 중국은 처음으로 해외 원유를 육로 송유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첫 수출을 하게 되었다.⁶¹⁾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에 중국은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 구간의 완성으로 2006년에는 연간 5천만 배럴, 2011년에는 1억 배럴이

61) China-Kazakhstan oil pipeline goes into operation (2006-05-26) (http://english.people.com.cn/200605/26/eng20060526_268869.html)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초부터는 천연가스관 건설도 카자흐스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 가스관이 현실화되면 2008년부터 연간 8억 m³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5-2. 중국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중국은 최근 10년간 일련의 에너지 협력 정책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패권국이 아닌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 경제 개발을 위한 믿음직한 협력자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생필품을 앞세워 민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낙후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저가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경제적 인프라 또한 중앙아시아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저지와 안보문제, 마약과 테러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주변국과 SCO 같은 다자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서부국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후방기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거둔 가시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도 엄연히 존재한다. 중국의 급속한 세력 확장이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 공포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이러한 경계심은 현재 이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시킨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집단안보조약(CSTO)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의 역할 강화 모색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다분히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SCO의 위상과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아우역할에 머물렀던 중국은 결국 중앙아시아 문제에 관한 한 러시아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키르기스 사태와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 사건에서 목격된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에 비해 수동적 관망자일 수밖에 없는 중국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新) 실크로드 개념과 동양적 동질감을 강조하는 중국의 진출전략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이질감과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기득권을 존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착실하게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조용한 실리외교’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9·11 사태 이후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간파하고 이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중국의 무임승차외교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의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적

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전략과 추진력은 에너지 안보를 바라보는 중국 당국자의 진지하고도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세계전략과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다.

2.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국가형성 과정에 미친 터키의 영향과 진출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독립하기 전까지 약 120년 동안 소련 제국의 강력한 정치·경제·문화적 통치하에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이렇듯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비로소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1991년을 전후로 터키는 이 지역 신생국들에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는 문화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에 터키는 외부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주요 창구였으며 시장경제를 도입시키는 후원자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 미친 터키의 역할과 진출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시스템의 성격을 이해함은 물론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나. 터키의 대중아시아 외교정책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탄생은 소연방 붕괴와 냉전 해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이었다. 터키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소연방내의 변화들에 주목해왔으며, 1991년 급격하게 진행된 소련 붕괴과정을 충격 속에 지켜봤다. 특히 자신들과 언어, 혈통, 종교, 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아제르바이잔 독립에 대한 터키 정부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다.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독립과정에서 터키는 세계 최초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주권을 공식 승인하는 등 민첩하게 대응하였다.⁶²⁾

이 시기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구소련의 소멸과 함께 진행된 냉전 종식과 서방과 러시아간의 화해무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안보전선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화해무드는 역설적으로 냉전시기에 터키가 서방세계에서 가졌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터키의 지정학적 의미 감소는 1990년 터키의 EU 가입 시도에 대한 유럽연합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실화되었다. 터키는 새롭게 변화된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고 축소된 입지를 다시금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바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신생독립국가들은 터키의 새로운 활로로 다가왔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투르크 공동체(Turkic World)’를 복원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중앙아시아 신생국들 입장에서도 터키는 자신들의 독립 유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세계 경제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했다. 유구한 역사를 통

62) Zakir Chotoev(2003)

해 형성된 투르크 계통의 혈통적, 언어적, 종교적 연관성은 양 진영이 신속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독립 후 러시아의 소비에트 잔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있어 터키의 역할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터키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주목하고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려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은 물론 지배권 회복을 추구하는 러시아를 터키라는 지렛대를 통해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생국들에 대한 터키의 영향력 확대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⁶³⁾ 이렇듯 미국의 후원하에 진행된 신생국들과 터키의 협력관계는 경제·문화·교육 분야에까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터키는 신생국들의 군사·안보적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 터키와 신생독립국들과의 급속한 관계 발전은 대사관, 영사관 설치와 더불어 매년 투르크계 국가들의 연례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할 만큼 결속력을 강화해갔다.⁶⁴⁾ 그러나 터키의 급속한 진출 확대는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우려와 불만을 초래했다. 러시아에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의 국가적 이해를 좌우하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한편 비록 냉전시대보다는 약화되었지만 터키 역시 여전히 미국에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 국가이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흑해지역을 안정시키고, 흑해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길목을 장악하며, 코카서스 지역에서

63) 1991년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신생국들에 터키의 세속주의 모델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비에트적 유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터키와 더욱 밀착하도록 독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E. Urazova(2001) 참고.

64) 1992년 1월, 터키 정부는 중앙아 및 코카서스의 신생국들을 돕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터키 국제협력위원회(TİKA)를 발족시켰다. 또한 1993년부터 Kurultays라는 우정, 형제애를 모토로 하는 포럼을 구성하였고, 형제국가들의 역사적·정신적 일체성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출판물을 정규적으로 발행하였다. 터키 정부 관료들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비공식적인 민간단체에 참여하여 터키계 혈통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일치감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휘했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반이슬람 근본주의 전선을 형성하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닳을 내리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터키의 불안정은 발칸의 남쪽지역에서 큰 폭력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의 신생독립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권 회복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⁶⁵⁾ 구소련 붕괴 이후 냉전 해체와 더불어 러시아의 일시적인 철수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이 힘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터키는 이러한 역사적 호기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안보·군사적 협력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제의하였다.⁶⁶⁾ 군사·안보 교류협정을 통해 터키가 얻고자 했던 목표는 1차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남겨진 구소련 국방 산업시설들을 이용함과 동시에 신생국들과의 안보적 공동체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으로 거대한 투르크계 민족국가들의 연합체 건설이었다.⁶⁷⁾

한편 터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란 역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이란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경제교류 확대와 이슬람세계 확장을 시도하였다.⁶⁸⁾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이란의 군사협력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이러한 차가운 반응은 다분히 미국과 터키의 반대를 의식한 것이었고, 동시에 이란과 같은 강한 정교일치의 정치체제가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자신들의 정권안보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터키는 세속주의를 표방

65) 브레진스키(2000)

66) 1992~1993년 터키 정부는 군사 대표단을 중앙아시아에 급파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군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상호우호협력조약은 군사분야에서의 훈련 지원 및 과학기술협력, 국방산업분야의 기술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67) 이러한 맥락에서 신생독립국들의 군대내에 친 터키군맥을 형성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1998년까지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방에서 약 4천여 명의 군사 대표들을 터키로 초청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했다. R. Allison, L. Jonson, *op. cit.* 참고.

68) 장병욱(2001)

하고 있었고, NATO 회원국과 함께 우방국의 자격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했음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러시아, 미국의 군대와 함께 중앙아시아 평화유지군에 참여함으로써 이란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터키는 안보협력분야에서 신생국들과의 군사훈련 프로그램 교류 및 중앙아시아 평화유지군 참여라는 제한된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1990년대 중·후반부터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온 러시아⁶⁹⁾와 역동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존재가 있었고 둘째, 터키는 군사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미국을 대신할 대안세력이 되지 못했으며, 셋째, 터키가 지리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비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⁷⁰⁾ 또한 터키가 안보적 주도권보다는 실리적으로 카스피해의 에너지자원에 더 큰 관심을 보였던 점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카스피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터키는 자국을 통과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보호를 위해 국제적 협력의 틀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GUUAM(현재는 우즈베키스탄이 탈퇴하여 GUAM으로 표기됨)을 NATO의 연계된 조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⁷¹⁾

69) 현실적 관점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안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어냄으로써 이 지역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1992년 5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소속 6개국에 체결한 집단안보조약(Collective Security Treaty)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모스크바의 정치엘리트들은 집단안보조약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러시아 중심으로 재결합시켜 지정학적 집단안보뿐만이 아니라 테러와 분리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마약 밀수 방지 등 폭넓은 지역문제들을 그들이 주도하는 기구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1년 독립 이후부터 러시아는 근외(近外)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CIS의 기능적 구조 확립을 통하여 구소련국가들이 갖고 있던 강력한 경제적, 인류적, 문화적, 안보적 상호 의존성을 다시 구현하려는 일관된 목표를 추구해왔다.

70) 터키와 중앙아시아 5개국 사이에는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등 코카서스 국가들이 위치해 있어 국경을 마주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또한 터키는 카스피해 부근의 유전에 더욱 관심을 보였고, 안보적으로는 자국에 가까운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 등의 안보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71) Allison and Johnson(2001)

한편 독립 이후 1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끊임없는 국
 가간 갈등과 내부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신생국들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정권
 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중국·러시아와 함께 상하
 이 협력기구(SC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협력기구에 터키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나 중국
 의 견제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9·11 테러 이후 탈레반 정권 붕괴와 미군의 상시적 주둔체제 구축⁷²⁾은
 중앙아시아를 아프가니스탄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은 물론 전
 반적으로 이 지역의 안보환경을 향상시켰다. 더 나아가 미국 세력의 등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러시아와 중국, 터키 이란 등 주변국의 영향력에서 어
 느 정도 벗어나 서방세계와의 교류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정학적 옵션
 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 내부의 과격주의와 민족주의, 심각한
 저개발경제 상태와 비민주적 독재권력에 의한 압권통치 문제 등은 여전히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

사실 이 지역 독재정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부터
 의 위협은 대부분 군사적이거나 외부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
 러 사회·심리적 요소, 즉 국가 내부의 경제적 파탄과 독재, 인종, 종교간의
 끝없는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감과 정서적 황폐가 이슬람 과격주의를
 불러들이는 토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⁷³⁾

따라서 이러한 내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술
 적 지원과 자본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을 얻기 위한 미국, 서방과의 협

72) 9·11 사태 이후 탈레반 정권 붕괴와 미군의 상시적 주둔체제 구축은 아프가니스탄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줄였으며 이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환경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터키 이란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외부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환경과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지정학적 옵션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
 가 내부의 과격주의와 민족주의, 심각한 저개발 경제상태와 비민주적 독재권력에 의한 압권통치문제
 등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

73) Постсовет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Потери и обретения(1998) 참고.

력 강화가 신생국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안보기구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는 어렵게 달성한 독립국가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에서 기인한다.

다.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사례

1) 문화·교육을 통한 터키화 정책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대한 터키의 사회·문화 정책은 “사회적 교류가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변형시키는 동기적·인지적 과정을 동반한다”⁷⁴⁾고 지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의 결과 형성되는 공동의 가치들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창출해내고 나아가 공동체 형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활용하여 터키는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문화통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독립 전후를 기점으로 시작된 터키 정부의 문화정책은 1993년부터 투르크족 혈통인 신생국들의 결속 및 인종, 교육, 언어, 출판, 종교적 측면에서의 터키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실 문화정책은 경제 진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토대가 된다.⁷⁵⁾ 중앙아시아에는 유목문화와 이슬람문화 그리고 소비에트문화가 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측면에서 터키적 요소⁷⁶⁾는 독립 이후 국가 형성과정의 신생국들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생국들의 건국과정은 일면, 탈(脫)소비에트화의 공백을 터키적 요소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중

74) Chafets, glenn, Michael Spirtas, and Benjamin Frankel(1999) 참고.

75) 헌팅턴·헤리슨(2002)

76) 김대성(2001), pp. 36~48.

양아시아 신생국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일정 부분 터키에서 찾으려 했으며 정신적, 문화적 일체감을 강화해 거대한 투르크계 국가연합체를 출범 시키고자 하는 터키의 역사적 야심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1992년 3월 터키 정부 인사들은 서둘러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문화·교육·과학 분야의 교류협정을 체결했고, 신생독립국들의 학생들을 터키로 대거 초청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낙후된 교육시설들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과학, 기술 협력과 전문가 재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1992년 4월에는 통신위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터키어로 편성된 방송을 송출했다. 터키는 세속주의⁷⁷⁾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중앙아시아에 이슬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 사원과 문화센터를 중앙아시아에 세웠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종교 이론부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종교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93년 7월에는 투르크계 민족의 일체성 고취를 위한 문학·역사·언어 교재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터키와 중앙아시아 문화부 장관들은 독립국들의 문자를 라틴 알파벳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서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라틴 알파벳 채용을 희망했던 투르크계 공화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을 보류했다. 역사교재의 공동발간 역시 자국의 과거만을 강조하는 터키의 요구가 신생국들의 반발을 사면서 실패했다.⁷⁸⁾ 이는 중앙아시아 신생국 내부의 이견과 더불어 역사적 야심을 너무 성급하게 현실화시키려 한 터키의 무리한 정책이 부른 실패였다. 그러나 언어 표기의 라틴문자화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라틴문자로의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문화통합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교육분야에서도 터키 정부는 중앙아시아 신

77) Kireev(2002)

78) Winrow(1997)

생국의 학생들을 자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수 많은 터키계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⁷⁹⁾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2년 카자흐스탄의 투르크이스탄시에 7천 명 정원의 투르크-카자흐 국제 호자 아흐멧 유세비 대학(Turk-Kazak International Hoca Ahmet Yesevi University)이 설립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1995년 체결된 협정으로 1,700명 정원의 투르크-키르기스 마나스 대학(Turk-Kyrgyz Manas University)이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이 탄생하였다.⁸⁰⁾

2001년도 집계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연간 7천 명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학생이 터키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키는 이 교육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는데 최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터키어 시 및 작문 대회”등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터키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직업학교를 세우고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장비를 제공하는 등⁸¹⁾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공백을 터키 정신과 문화로 대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터키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들은 중앙아시아 각 지방으로 확산되며 현지 교육기관과 경쟁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켰고 터키적 요소를 뿌리내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터키 정부는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의 영향

79) 터키 외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신생국 학생들이 1992년 이래로 터키에서 교육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과학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에 1만 6,692명의 학생이 터키를 방문했고 그 중 2,133명은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5,889명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약 5,500만 달러가 이러한 교육사업에 쓰여졌다.

80) 터키 외무부 중앙아시아편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OrtaAsya/OrtaAsyalliskiler/)

81) Onis(2001)

권에서 벗어나도록 UN과 OSCE, 이슬람회의, 경제협력단체 등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도왔다.

문화정책이 비단 터키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터키의 비정부기구(NGOs) 역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문화·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기업인들 역시 터키와 중앙아시아 간의 장기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립 등과 같은 인재 양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종교분야 역시 세속적 이슬람 개혁주의자인 페툴라 굴렌(Fethullah Gulen)⁸²⁾ 등에 의해 설립된 종교재단을 앞세워 신생독립 국가들의 종교적 정체성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⁸³⁾

물론 이와 같은 터키의 문화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러시아적 교육과 언어에 익숙해져 있던 적지 않은 학생들이 터키어 계통으로 진행된 수업과정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터키의 패권적 문화정책은 러시아 정치엘리트들의 우려와 불만을 초래했다.⁸⁴⁾ 아울러 서방 선진국과의 국교 수립을 통해 스스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신생독립국들 역시 터키가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였다. 1992년 앙카라에서 개최된 첫 번째 ‘투르크계 국가들의 정상회의(Turkic Summit)’에서 중앙아시아 신생국 지도자들은 터키의 패권적 주도 아래 진행되는 정치·경제 협력방안에 동의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단지 전반적인 내

82) 사이드 누르씨(Said Nursi, 1873~1960)에 의해 조직된 누르씨 운동(Nursi Movement)는 지난 세기 터키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종교조직 중 하나이다. 터키식 이슬람을 주창한 사이드 누르씨(Said Nursi)를 따르는 Nurcu들은 1960년 누르씨가 사망한 이후 각각의 이슬람에 대한 해석과 정치에 대한 입장에 따라 여러 공동체(communitiy)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성장한 커뮤니티가 바로 페툴라 굴렌(Fethullah Gulen, 1938~)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 이 조직은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들에 진출하여 2004년까지 약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문화·종교적 진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religioscope.com/info/articles/007_fetullahci.htm 및 <http://www.rferl.org/featuresarticle/2004/06/413c394a-c79a-4384-a899-bb40dff7284c.html> 참고.

83) Onis, *op. cit.*

84) Allison and Johnson, *op. cit.*, pp. 202~203.

용을 담고 있는 ‘앙카라 선언’과 문화, 교육, 언어, 안보, 경제, 법률과 관련된 쌍방의 개별적 협력안에 대해서만 동의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종과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을 것과 상호 존중과 독립에 기초한 동등한 관계 설정을 강조함으로써 터키와 중속적 관계 설정을 거부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다.⁸⁵⁾

이렇듯 터키의 제국적 문화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부 저항을 유발했다. 정치·경제적 진출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장벽을 문화흡수를 통해 제거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통합하려 했던 원대한 터키의 야심은 부분적 성과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터키의 적극적인 문화정책은 중앙아시아내에 터키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아울러 터키에 우호적인 세대들을 길러내는 데 공헌했다.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했던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 역시 터키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들의 과거 역사와 만났고, 이를 통해 소비에트적 잔재를 지워내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독립국가 건설에 필요한 요소들을 취득할 수 있었다.

2) 경제적 진출 현황과 국가별 사례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 터키의 경제교류는 국가간의 교역이 이해관계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상호 의존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경제·평화론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흥미롭다. 구소련 붕괴 후에야 비로소 외부세계와의 경제적 교류에 나섰던 개방 초기, 터키계 기업과 정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있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주요 창구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터키 정부의 적극적 후원을 배경으로 터키의 민간 기업과 단체들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⁸⁶⁾ 2006년 11월까지 터키는 중

85) Chotoev(2003)

86)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1월 1일 기준 1천여 개에 이르는 터키 회사가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참고(<http://www.mfa.gov.tr>).

양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범위에서 약 500개가 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조약은 경제, 무역, 금융, 산업,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수송, 통신, 교육, 문화, 건강, 관광, 기술 지원 및 서비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⁸⁷⁾ 이러한 터키 기업의 활발한 진출은 중앙아시아와 서방세계의 교류 확대를 촉진시켰고 시장경제시스템을 중앙아시아에 이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초기 세계 경제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터키 기업 및 정부의 역할과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1992년 1월 터키 정부는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신생국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터키국제협력위원회(TIKA)를 발족시켰으며, 수출입은행을 통해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들의 신용보증을 약속했다. 수출입은행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게 제공한 차관은 7억 2600만 달러에 달한다.⁸⁸⁾ 이러한 기금의 상당량은 신생국들의 독립 초기에 부족한 생필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생국들에 제공된 터키 차관의 또 다른 부분은 인프라 건설과 재건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이 기금들에 의해 발주된 프로젝트에 따라 각종 건축물과 산업시설, 은행과 호텔,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기반시설들이 빠르게 건설되었다.⁸⁹⁾ 2006년 11월 터키 외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터키의 민간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35억 달러를 상회한다. 1990년대 초 체제이행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분쟁, 시장경제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했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터키 기업들은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했

87)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OrtaAsya/OrtaAsyalliskiler/ (2006. 12. 5)

88)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OrtaAsya/OrtaAsyalliskiler/ (2006. 12. 5)

89) Urazova(2001)

다. 약 1천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진출하여 활동 중이다. 이 중 건설부문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약 100억 달러 상당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터키계 기업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터키계 기업들은 다른 외국계 기업들에 비해 중앙아시아에서 현지화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규모 증가는 터키 기업들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켰다. 1998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 대한 터키의 수출액은 1992년에 비해 9배나 성장한 9억 6천만 달러에 달했을 만큼 터키 기업들은 불모지였던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을 자신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했다. 교역량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1월 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터키간의 교역 누적 총액은 87억 달러에 이르렀다.⁹⁰⁾

그러나 소비에트 문화와 경제시스템은 터키계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커다란 문화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과 의사소통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두 세계의 교류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유발시켰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는 교역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 이중과세금지조약 등이 급작스럽게 도입되거나 체결되었다. 이는 70년 이상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지되었던 전체주의 체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혼란이기도 했다. 자유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제도 역시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터키 정부와 기업들은 신생국내에 은행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터키계 자금이 투자되어 설립된 상업은행 네트워크

90)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OrtaAsya/OrtaAsyalliskiler/ (2006. 12. 5)

크가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구축되었다.⁹¹⁾

그러나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보다 더 심각한 장벽은 바로 중앙아시아 국민들에 내재된 소비에트적 사고와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구소련은 붕괴되었지만 그 유산은 신생국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들과 주요 경제인들까지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의 소비에트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자율보다는 통제, 시장의 조절보다는 계획과 과도한 정부간섭, 투명한 경제운용보다는 부정부패와 약탈경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격자유화는 이루어졌으나 가격에 비례하는 상품과 서비스 품질의 증가성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은 아직까지도 불충분했다. 이러한 경제·문화상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은 터키 정부와 기업들은 서유럽기구와 민간기업 공동으로 경제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실적 경제행위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경제인 및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터키 정부는 신생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차이와 문화적 장벽에서 오는 경제적 진출의 위험부담을 서방세계와 분담하고 아울러 중앙아시아의 경제시스템과 관행을 세계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보편적 기준으로 개조하고자 노력했다.

중앙아시아에서 터키의 가장 큰 경제적 이해는 바로 에너지자원이다. 터키는 이 지역으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은 물론 자국의 영토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서방으로 수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⁹²⁾ 2005년에 완공된 바쿠-트빌리시-제이

91) 터키가 35%의 지분을 가진 Turkish-kazakh International Bank(Emlak), 94%의 지분을 가진 Ziraat Bank, 99.97%의 지분을 가진 Demir Bank가 카자흐스탄에 문을 열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60%의 지분을 가진 Demir Bank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50%의 지분을 가진 Ziraat Bank가, 트루크메니스탄에서는 Turkish-Turkmen Commercial Bank와 People's Bank가 설립되어 거대한 터키계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Chotoev, *op. cit.*, p. 77.

한(BTC) 석유파이프라인은 중앙아시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주변 강국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 그림 5-3. BTC 송유관 ||



자료: Asia times, "China lays down gauntlet in energy war", <http://www.atimes.com/atimes/China/GL21Ad01.html>

터키 정부는 BTC 파이프라인 건설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자국 영토내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현재 러시아에 편중된 에너지 수송로를 다각화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키고, 수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석유수송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빈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자원의 주요 소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터키 정부는 흑해 주변의 변화무쌍한 기상상태와 러시

92) 터키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산출되는 석유와 투르메니스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서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OSCE 회의에서 터키는 바쿠-세이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크 그리고 카자흐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Chotoev, *op. cit.*

아의 작업처리능력 부족, 유조선이 통과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내의 오염문제 등을 이유로 러시아 항구에서 유조선을 이용한 수송방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⁹³⁾ 2005년 BTC 파이프라인은 완공은 터키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통제권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⁹⁴⁾

가) 카자흐스탄

터키와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1992년에 3천만 달러였으나, 2003년에는 5억 달러를 조금 넘었고 2005년에는 10억 1,755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불과 14년 만에 약 34배 증가하였다. 2005년 터키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총교역액 가운데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액이 약 52%를 차지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터키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까지 터키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15억 달러이지만, 터키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외자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터키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터키의 주요 투자대상은 무역, 통신, 호텔 경영, 농산물 생산, 대형 마트 운영, 프린팅, 석유제품, 식료품, 철강, 구리, 직물 및 서비스업이고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

93) Chotoev, *op. cit.*

94)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신들이 이렇듯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파이프라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Blue Stream 파이프라인(러시아 영토를 통과함) 건설사업에 대해 터키가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는 점이다. Blue Stream 파이프라인은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를 통과하는 이 파이프라인의 값비싼 운송료로 인해 중앙아시아 석유산유국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터키가 중앙아시아 형제국들과 협력 증진을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전략적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러시아를 먼저 선택한 것은 터키가 얼마나 현실적 판단 아래서 실리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를 해왔다. 또한 터키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구축 및 주요 통신망 설치, 고속도로 건설, 공항 및 호텔 건설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54개의 터키 건설회사가 약 32억 달러 상당의 147개 프로젝트를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대규모 쇼핑센터인 터키 기업 미그로스(Migros Turk)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쇼핑몰 1개와 대규모 마트 4개를 람부티아(Rambutya)라는 상호명으로 카자흐스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다. 지분의 51%를 터키가, 49%를 카자흐스탄 현지 Butya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람부티아는 2004년 매출액이 9.3% 증가하는 등 매년 9%가 넘는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⁹⁵⁾

■ 표 5-2. 터키의 대카자흐스탄 교역량(1993~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1993	130.85	87.85	43.00	44.85
1994	164.14	131.82	32.32	99.50
1995	237.41	150.78	86.63	64.15
1996	281.59	189.07	92.52	96.55
1997	375.48	210.58	164.90	45.68
1998	467.70	214.20	253.50	-39.30
1999	392.51	96.60	295.91	-199.68
2000	465.08	118.70	346.38	-227.68
2001	210.14	119.80	90.34	29.46
2002	364.00	160.15	203.85	-43.70
2003	500.63	233.99	266.64	-32.65
2004	796.52	355.56	440.96	-85.40
2005	1,017.55	459.95	557.60	-97.65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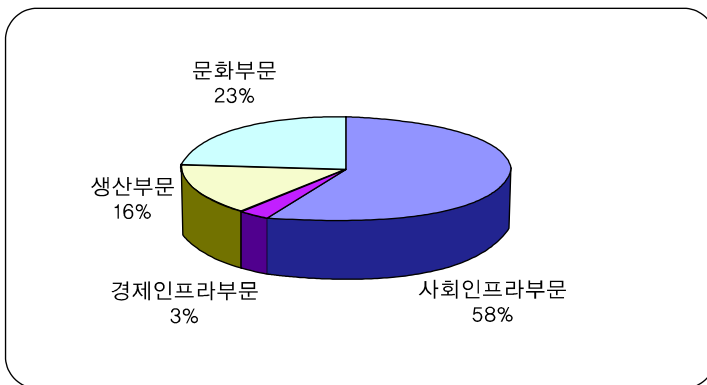
95) <http://www.migros.com.tr/yatirimciliskileri.asp>

여기서 주목할 점은 터키와 카자흐스탄간의 민간교류는 매년 개최되는 터키-카자흐 비즈니스회의(Turkish-Kazakh Business Council)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권의 진출도 활발한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는 터키-카자흐 국제은행(Turkish-Kazakh International Bank)과 카자흐-지라트 국제은행(Kazakh-Ziraat International Bank) 등 두 개의 터키 민간은행이 진출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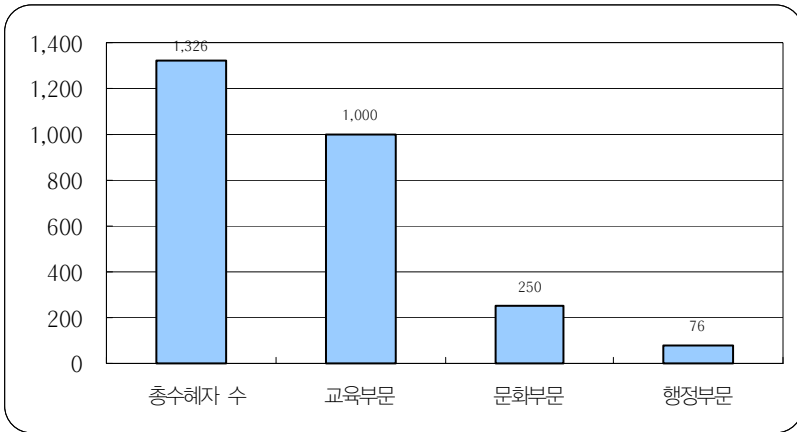
이밖에도 TIKA가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 및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터키 양국간의 관계는 보다 긴밀하고 협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그림 5-4. 2005년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부문별 현황 ■



■ 그림 5-5. 2005년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

(단위: 명)



자료: TIKA, 2005년도 활동내역 보고서 (http://www.tika.gov.tr/yukle/dosyalar/2006/Faaliyet2005/TKA_Faaliyet2005.pdf)

나) 우즈베키스탄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독립 직전인 1990년 이스탄불 시장이 타슈켄트시(市)를 방문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량은 1993년 2억 4,553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97년 3억 52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1999년에는 1억 4,662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에는 4억 1,06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표 5-3. 터키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량(1993~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1993	245.53	213.53	32	181.53
1994	143.02	64.42	78.6	-14.18
1995	200.07	138.54	61.53	77.01

표 5-3 계속

연도	총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1996	282.72	228.83	53.89	174.94
1997	305.20	210.59	94.61	115.98
1998	252.30	156.10	96.20	59.90
1999	146.62	99.14	47.48	51.66
2000	168.44	82.65	85.79	-3.14
2001	125.78	89.73	36.05	53.68
2002	169.08	93.74	75.34	18.4
2003	237.88	138.42	99.46	38.96
2004	323.85	145.23	178.62	-33.39
2005	410.61	151.07	259.54	-108.47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터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카펫, 플라스틱, 모터, 차량, 종이 및 알루미늄 제품 등이다. 이 가운데 카펫이 1위로 1/5 가량 점하고 있다. 반면 수입품목은 목화와 구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03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터키계 기업의 수는 총 244개에 이른다. 이 중 130개가 터키의 단독투자로 이루어진 기업으로 건설, 무역, 운송업, 요식업, 은행 및 자동차 서비스 관련 분야 등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⁹⁶⁾ 최근 터키 외무부에 의하면 2006년 11월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터키·우즈베크 합작회사의 수가 37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⁹⁷⁾

터키는 우즈베키스탄 건설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2005년까지 터키 건설회사에 의해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건설분야 총액은 8억 5,425

96) 앞의 책 참고.

97)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OrtaAsya/OzbekistanCumhuriyeti/Ozbekistan_Ekonomik.htm.

만 달러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터키 건설회사로는 Aysel Insaat Anonim Sirket, Alsim-Alarko Anonim Sirketi 등을 들 수 있다.⁹⁸⁾

우선 Aysel Insaat Anonim Sirket는 2억 5,190만 달러 규모의 타슈켄트 무역전시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타슈켄트 중심부에 인터콘티넨털 호텔, 국제 비즈니스 센터, 대형 쇼핑몰, 공원 및 주차장 등을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1,480만 달러 규모의 타슈켄트 아쿠바(Akuva) 테마파크 건설, 3,960만 달러의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NBU) 본관 및 별관 건설, 3,790만 달러 규모의 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공항 1단계 시공을 담당했다. 현재 이 기업은 5천만 달러의 타슈켄트 미국 대사관저 건축 및 2,500만 달러 규모의 NBU 예술박물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Alsim-Alarko Anonim Sirketi는 5,690만 달러 규모의 사마르칸트 담배 공장 건설, 2,280만 달러 규모의 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공항 2단계 시공 그리고 830만 달러의 부하라 공항 터미널 시공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터키 회사들은 구소련 시기에 건축된 호텔 등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과 호텔 공동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⁹⁹⁾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는 2개의 터키계 은행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터키 은행(Turkish Bank)과 우즈베키스탄·터키 은행(Uzbekistan-Turkish Bank)이 그것이다.

한편 터키는 낙후된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업무를 현대화를 위해 은행 관련 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1994년 EBRD와 유럽공동체의 재정·기술적 지원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 의해 설립된 타슈켄트 은행교육센터

98) 터키국제협력위원회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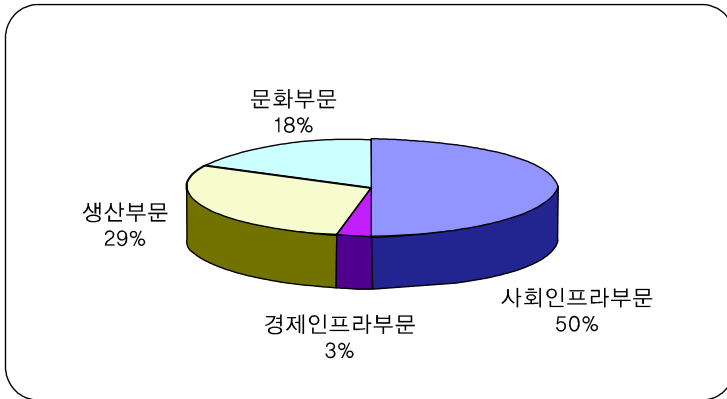
99) 예컨대 Radisson Sas Tashkent Hotel 지분의 85%를 Aysel Insaat ve Taahhüt A. S.가 보유하고 있다.

(Tashkent Banking Education Center)에 터키가 150만 유로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¹⁰⁰⁾ 이 지원금액은 은행교육센터 구조조정, 교육생들에 대한 터키에서의 교육기회 제공 및 기술교육 등에 사용되었고, 1999년에는 센터에 다량의 컴퓨터가 보급되었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설립된 터키인 초등학교(정원 125명 규모)는 1개에 불과하지만, 현지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터키어와 터키학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터키와 우즈베키스탄간에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의 협력은 터키·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회의(Turkish-Uzbek Business Council)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 회의는 매년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TIK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및 활동 내용은 [그림 5-6], [그림 5-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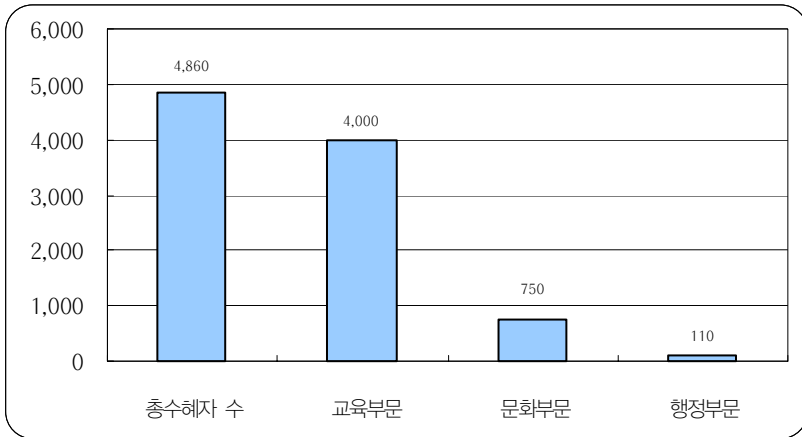
■ 그림 5-6. 2005년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별 현황 ■



100) 앞의 책 참고.

■ 그림 5-7. 2005년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

(단위: 명)



자료: TIKa 2005년 활동내역 보고서, (http://www.tika.gov.tr/yukle/dosyalar/2006/Faaliyet2005/TIKA_Faaliyet2005.pdf.)

다) 아제르바이잔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다수의 경제 관련 쌍무협정을 체결해오고 있다. 그 중 주요 조약으로는 『투자 부흥 및 보호 조약』 체결(1996년 7월)과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1998년 1월) 등을 들 수 있다.¹⁰¹⁾

1991년 이후부터 아제르바이잔과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온 터키는 교역량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1998년 여름에 발생한 러시아의 금융위기 시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 러시아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서자 터키 상품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2003년부터 교역량은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⁰²⁾

101) 터키국제협력위원회(TIKa) (http://www.tika.gov.tr/ulke_profilleri.asp)

102) 위의 자료 참고.

표 5-4. 터키의 대아제르바이잔 교역량(1993~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1993	123.21	88.21	35.00	53.21
1994	141.01	132.19	8.85	123.34
1995	183.13	161.35	21.78	139.57
1996	276.19	240.96	35.23	205.73
1997	377.97	319.80	58.17	261.63
1998	377.70	327.30	50.40	276.90
1999	292.06	248.06	44.00	204.06
2000	326.00	230.38	95.62	134.76
2001	303.29	225.21	78.08	147.13
2002	296.06	231.43	64.63	166.80
2003	438.10	315.49	122.61	192.88
2004	539.30	403.8	135.50	268.30
2005	800.30	528.04	272.26	255.78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년 터키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수출은 528억 4만 달러이고, 수입은 2억 7,226만 달러로 최근 들어 양국간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두 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밀가루, 의약품, 세제, 전지, 차량, 가구, 건축자재, 벽지,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가전제품 등이다. 반대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 목화, 가죽, 주류, 알루미늄 원료, 석유 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발한 투자 및 무역 활동을 하고 있다. 터키 외무부에 따르면, 2006년 11월까지 아제르바이잔에 등록되어 있는 터키 기업(100% 터키 자본)의 수가 800개에 이르며, 이 중 약 300여 개는 현지에

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¹⁰³⁾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한 대표적인 터키 기업으로는 터키 미그로스(Migros Turk)로 1996년에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진출명은 램스토르(Ramstore)이고, 터키가 79.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라디오를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월간지 *Ramstorepost*를 발간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Ramstore는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침으로써 성공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한 대표적인 터키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¹⁰⁴⁾

라) 키르기스스탄

터키는 키르기스스탄의 독립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이다. 터키는 키르기스스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역기구에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터키와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 이후 여러 부문에서 관계 발전을 이룩해왔다.

키르기스스탄과의 교역량은 1992년 320만 달러로 시작하여 1997년에는 5,710만 달러에 달했다. 터키의 대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교역은 1995~97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으나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가격 경쟁력에서 러시아 제품에 밀려 양국 교역량은 크게 줄게 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러시아 루블화의 강제로 인해 터키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회복되었고 교역량은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¹⁰⁵⁾

103)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Kafkasya/Azerbaycan/Azerbaycan_Ekonomik.htm.)

104) 터키 미그로스 (<http://www.migros.com.tr/yatirimciiliskileri.asp>)

105) 터키국제협력위원회(TIKA) (http://www.tika.gov.tr/ulke_profilleri.asp)

표 5-5. 터키의 대키르기스스탄 교역량(1992~2005년)

(단위: 천 달러)

연도	총교역량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2	2,623	1,181	1,442	-261
1993	20,484	17,014	3,470	13,544
1994	21,264	16,969	4,295	12,674
1995	43,669	38,156	5,513	32,643
1996	52,961	47,082	5,879	41,203
1997	56,751	49,356	7,395	41,961
1998	48,236	41,463	6,773	34,690
1999	25,977	23,198	2,779	20,419
2000	22,921	20,572	2,349	18,223
2001	23,657	17,350	6,307	11,043
2002	39,434	23,685	15,749	7,936
2003	50,736	40,158	10,578	29,580
2004	85,851	72,754	13,097	59,657
2005	102,623	88,851	13,772	75,079

자료: Devlet Istatistik Enstitutu, <http://www.deik.org.tr>; 터키 통계청(TU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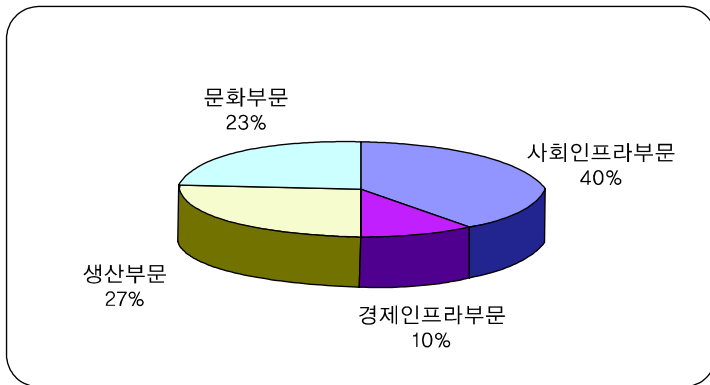
최근 터키의 대키르기스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카펫, 보석류, 철강, 플라스틱, 가구, 설탕류, 전자제품 등으로, 이 가운데 특히 카펫이 수출액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터키의 주요 수입품목은 채소와 과일, 육류, 비단 등으로 채소와 과일이 수입액의 절반을 넘는다.

키르기스스탄 독립 이후 터키 기업은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에도 활발히 진출기회를 엿보았다. 2006년 11월 터키 외무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는 터키계 기업의 수는 110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호텔업, 요식업, 건설, 유통 및 가구 등의 부문에 속해 있다.¹⁰⁶⁾ 2004년 초 이래로 터키의 13개 건설회사는 총 3억 3,060만 달러 규모의 19개 건설 프로젝트를 키르기스스탄에서 실행하였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로는 마나스 국제공항, 비슈케크 코카콜라 공장, 호텔 비슈케크 프나라, 비슈케크-오슈 철도 등이 있다. Enka, Entes, Sistem, Üçgen 그리고 Garanti-Koza 등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해 있는 터키 건설업체들이다.¹⁰⁷⁾ 또한 현재 비슈케크에는 터키 민간은행인 Demir- International Bank가 활동하고 있다.

TIKA가 2005년도 추진한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그림 5-8], [그림 5-9]와 같다.

■ 그림 5-8. 2005년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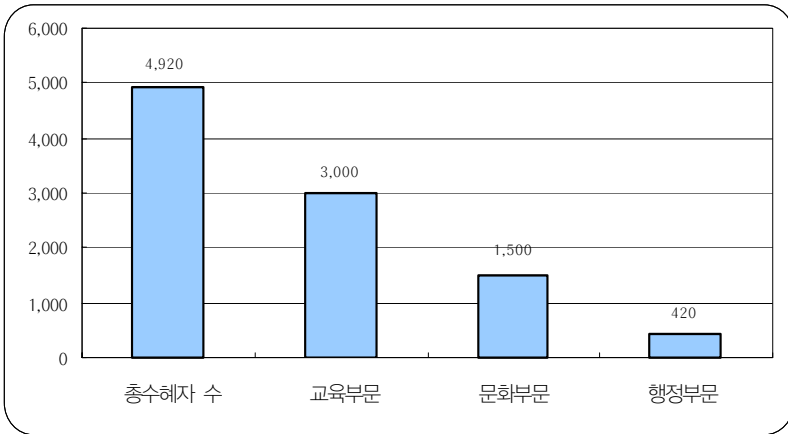


106) 터키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tr/MFA_tr/DisPolitika/Bolgeler/OrtaAsya/Kirgiz_Cumhuriyeti_Ekonomik.htm.)

107) 터키국제협력위원회 자료 참고.

■ 그림 5-9. 2005년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

(단위: 명)



자료: TICA 2005년도 활동내역 보고서

마) 투르크메니스탄

터키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는 1992년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한 직후 정상화되었다. 1992년에 양국간 교역량이 2,850만 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3억 4,118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초기에 터키는 주로 식료품과 직물을 투르크메니스탄에 수출하였다. 터키 Eximbank는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단기 및 중기 차관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92년 730만 달러에 불과했던 터키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이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여 1997년에는 1억 1,75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루블화가 거의 4배 평가절하된 후 터키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다소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⁰⁸⁾

108) 터키국제협력위원회(TIKA), http://www.tika.gov.tr/ulke_profileri.asp (투르크메니스탄편, 2005년 5월 25일자 갱신).

표 5-6. 터키의 대투르크메니스탄 교역량(1992~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량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2	28.5	7.3	21.2	-13.9
1993	160.7	83.8	76.9	6.9
1994	149.9	84.3	65.6	18.7
1995	168.1	56.3	111.8	-55.5
1996	166.0	65.7	100.3	-34.6
1997	191.0	117.5	73.5	44.0
1998	137.5	95.6	41.9	53.7
1999	173.6	106.6	67.0	39.6
2000	217.9	120.1	97.8	22.3
2001	176.7	105.0	71.7	2.3
2002	216.37	110.02	106.35	3.67
2003	294.03	170.35	123.68	46.67
2004	390.52	214.83	175.69	39.14
2005	341.18	180.64	160.54	20.10

자료: T.C. Basbakanlik, Dis Ticaret Mustesarligi; IMF(2006, 11),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2년 이후 터키의 투르크메니스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대투르크메니스탄 총수출액은 1억 8,064만 달러, 총수입액은 1억 6,04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⁰⁹⁾ 이러한 수치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증가추이에 주목한다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부품, 철강, 세제류, 카카오, 설탕류 등이고 수입품목은 목화, 광물 연료, 구리 및 구리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카펫 등이다.

109) 터키 통계청(TUIK) (http://www.tuik.gov.tr/PreHaberBultenleri.do?id=237&tb_id=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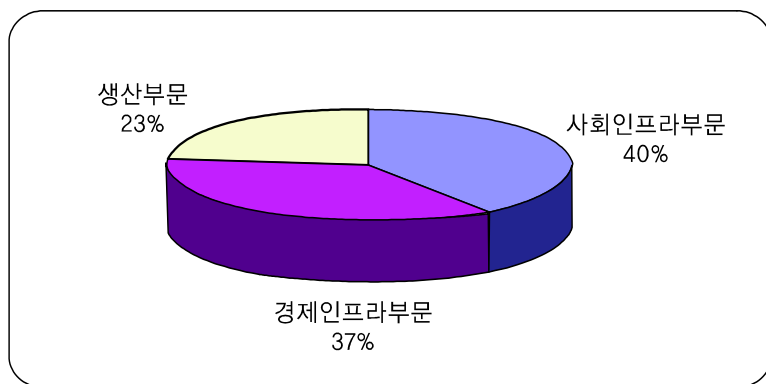
에너지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터키-유럽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루트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가스는 터키 영토를 지나 유럽시장으로 판매될 수 있다. 현재 아슈하바트에는 Turkmen-Turkish International Bank 와 Turkmen-Halk Development Bank 등 두 개의 터키 은행이 있다.

이밖에도 TIKA에 의해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데 우선 교육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일부 초등교육 시설에 약 3만 3천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터키어 학습을 위한 교재 등을 제공하였다.

TIKA에 의해 2005년도 실현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부문, 특히 종자 보급 및 관리센터의 설립이다. 이를 통해 터키는 터키산 밀, 목화 및 각종 채소(사탕무, 포도, 감자) 등의 모의 파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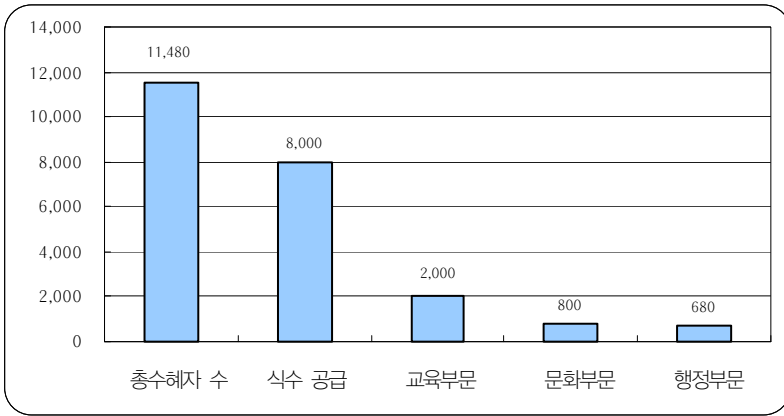
TIKA의 2005년도 투르크메니스탄 대상 활동내역은 [그림 5-10], [그림 5-11]과 같다.

■ 그림 5-10.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별 현황 ■



■ 그림 5-11. 2005년도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및 활동 수혜자 ■

(단위: 명)



자료: TIKa 2005년도 활동내역 보고서.

3) 진출시 애로사항¹¹⁰⁾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에 따른 경제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 역시 제한적이며 보험료도 다소 비싼 편이라는 점 등과 관련된다. 둘째, 최근에 체결된 다수의 운송협약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높은 육로수송비용이 무역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 규정이 시장경제 원칙과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넷째,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사업가들은 까다로운 비자문제로 인해 정착 및 기업활동에 어려움

110) 터키해외무역차관부 (<http://www.dtm.gov.tr/anl/english/tr-cis/overview.htm>)

을 겪고 있다. 끝으로 은행업무 및 기타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상의 애로사항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터키 민간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¹⁾ 터키 무역인 및 투자자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겪는 두 가지 심각한 불편사항은 비자문제와 환전시스템으로 발생하는 태환문제이다. 방문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는 비자문제는 중앙아시아 교역에 종사하는 무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야 할 경우 비자문제는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비자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에게만 허가되기 때문에 장기비자를 취득한 터키 무역인 수는 적다.

두 번째는 태환문제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모든 거래는 화폐인 ‘숨(sum)’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태환/환전 업무는 중앙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오직 10~30% 가량의 달러만 환전 가능하고 차액은 ‘숨’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숨’은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 판매분의 일부는 달러로 나머지는 물품이나 또는 ‘숨’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무역·투자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 예치된 기업계좌의 현금을 필요한 시기에 출금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체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타슈켄트 이외의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은행업무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규가 자주 바뀌어서 정상적인 교역과 투자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터키 정부가 변경된 관련 조항에 대한 자료를 신속

111) 터키국제협력위원회(TIKA) (http://www.tika.gov.tr/ulke_profilleri.asp)

히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 차원의 양국 관계 변화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불안도 무역·투자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운송 및 통신, 비자 및 정착 허가 등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없애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에 월드뱅크, 이슬람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금융기관들은 단기 및 장기 차관을 확대·지원해야 한다.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크게 세 가지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군사·안보’, ‘경제적 가치’ 그리고 ‘정치 및 종교적 영향력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신생국들의 국가성 정립과 세계화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터키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범투르크 민족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경제 평화론적 요소와 광범위한 교육·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범투르크 혈통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구성주의적 논리를 담고 있었다. 신생국들이 독립하자 러시아의 공백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터키는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역동적인 터키화 정책을 서둘러 시도했다. 터키는 역사적·문화적 일체성을 구소련의 투르크 민족들에게 강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했고 동시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신생독립국들과 교역을 확대해나갔다.

양측은 교류가 가져다주는 현실적 이익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으며, 터키의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참여 역시 이러한 실용주의가 바탕이 되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교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 또한 터키는 자본주

의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 체계와 금융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자국 회사들이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앙아시아에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터키 대학에 중앙아시아 국가 학생들을 대거 초청하여 교육했고, 현지의 교육분야에 직접 진출하여 자국 문화를 이식했으며,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민간 차원의 우호적 교류를 복원시키고자 했다. 이는 중앙아시아내에 친(親)터키관(觀)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터키는 러시아나 미국에 비해 제한된 영역내에서 중간세력(middle power) 국가로서의 역할을 모색했다.¹¹²⁾ 이는 강력한 세력국가에 비해 독립적 행위의 범주는 제한되지만 터키의 전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특히 급격히 부활하고 있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 국가들에 터키는 중간세력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정체성 형성과 세계 공동체로의 편입과정에 끼친 터키의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터키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들의 과거와 만나고자 했으며 또한 서방세계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이렇듯 터키적 요소는 소비에트적 유산, 유목민적 문화와 융화되어 현재에도 중앙아시아만의 독특한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해외 진출시 초기 진출이 가져다 주는 다방면의 선점효과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정치·외교·경제적 진출의 중요한 토대인 문화정책은 터키와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터키의 사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방적 문화정책은 문화 패권주의로 인식되어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호 교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12) Ziya Onis(2001)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에서 얻는 교훈은 에너지 확보 및 상품시장 개척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인 토대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인프라, 유통망, 소프트웨어, 금융, 법률, 시장경제관행, 교육)에 주력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상품수출보다는 유통시장망 구축에 진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종합쇼핑몰(마켓 포함)인 ‘람스토르(Ramstore)’, 터키계 은행망 구축, 호텔 체인망과 교육시설 등을 중앙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어느 국가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탄탄한 현지화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끝으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진출 전략 수립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공적 부문이 보완할 수 있을 때 민간부문의 보다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진출시 정부의 치밀한 전략하에 민간부문을 앞세운 터키식 진출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197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원조외교는 수출진흥정책, 자원확보정책,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을 해왔다. 1970년대 이후부터 일본 원조외교는 국제적 상호 의존, 국가간 친선 강화,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휘,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 유지 등을 위한 역할로 전환했다. 일본 원조외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단호함과 전략성을 강조한 분석(다나카 1995)과 일본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 분석

(야스모토 1989), 국제여론을 중시하면서 일본 원조외교의 수동성을 강조한 (이나다 1988)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에 기인하지만 한편으로 일본 원조외교의 역동성을 반증한다.¹¹³⁾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원조외교의 목표는 에너지 확보와 함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친선 강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강화,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유지 등을 위한 역할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장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냉전 해체 이후 힘의 진공상태에 놓인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¹¹⁴⁾ 외교,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정책을 위해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힘써왔다. 에너지 전략은 21세기 지속적인 일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1997년 ‘신 유라시아 외교(New Eurasian Diplomacy)’¹¹⁵⁾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신 유라시아 외교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신 유라시아 외교는 일본이 그동안 ‘원조외교’를 통해 구축해온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발판으로 ‘에너지 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 전략’의 큰 방향을 제시¹¹⁶⁾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13) 박홍영(2005)

114) 日本外務省, 『中央アジア+日本: 對話・外相會合/共同聲明-新時代を迎える日本・中央アジア關係-別』, <http://www.mofa.go.jp>(검색일: 2004. 9. 17) 참고.

115) Michael Robert Hickok(2000)

116) 『中央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の現状と未来』, ODA, Economic Cooperation Bureau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mofa.go.jp/policy/oda/index.html>(검색일: 2006. 11. 25) 참고.

나.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전략

1) 대중양아시아 정책기조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조 아래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서남부와 중국의 서부국경,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의 북쪽, 이란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북부에 위치함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의 주요 연결고리인 코카서스 지역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중앙아시아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러시아·중국·인도·중동을 포괄하는 대유라시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정책은 일본의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일본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중동과 페르시아만의 석유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중동에 대한 석유수입 의존도가 다시 90%를 초과하면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체유전지역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는 일본에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은 이렇듯 분명한 목적하에 설정되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정책의 변화 과정

1997년 이전까지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정책은 “조용한 개입(Quiet Engagement)”¹¹⁷⁾이란 표현으로 상징된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선적 이해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국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배양해온 일본의 ‘원조외교’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일본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쌍무간 ODA의 총액이 1993년 257만 달러로 시작해서 2003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2억 4,200만 달러에 달했다. 일본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국가들에 제공한 ODA의 총액은 무려 19억 8천 달러를 기록했다.¹¹⁸⁾ 1997년 하시모토 총리의 『신 유라시아 정책』 발표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원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원액의 90%가 석유 비생산국(예: 키르기스스탄) 등의 비석유부문(사회부문 인프라 구축, 환경 문제, 인권 증진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일본의 원조는 외무부 산하의 해외 경제협력기금 부서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키르기스스탄의 Frunzenkiy Kemin에서 시작하는 송신선 건설, Chu, Talas, 그리고 Naryn 지역의 지방 통신설비 현대화, Issyk-Kul 호수 근방 고속도로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의 기본 인프라 복원과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경제개발의 발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부문 협력과 함께 추진되었다.¹¹⁹⁾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분적으로 1990년대 초 터키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및 배경¹²⁰⁾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일본은 몽골 및 우랄·알타이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공유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유대감을 강조하며 원조외교를 펼쳐왔다. 인프라 복원, 시장 경

117) Michael Robert Hickok(2000) 참고.

118) Japan's ODA 2004, Web Japan-Statistics (<http://web-japan.org/stat/stats/23ODA32.html>) 참고.

119) Hickok(2000) 참고.

120) 중앙아시아에 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터키는 범투르크 민족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대한 터키의 문화정책에는 패권적, 제국주의적 요소가 내포될 수밖에 없었다. 시기적으로 구소련 붕괴 이후 힘의 공백상태에 놓인 중앙아시아에서 터키는 공격적인 '문화통합정책'을 전개했다. 터키 정부는 1993년부터 구 소비에트 연방 지역 가운데 투르크 혈통인 신생국들을 결속해내고 문화·경제적으로 자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경제, 사회, 인종, 교육, 언어, 출판, 종교적 측면에서 터키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적 프로그램의 전수와 지원을 적극 전개한 결과, 일본은 이 분야에서 일정한 입지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조용한 개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자국의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1997년 발표된 하시모토 총리의 ‘신 유라시아 외교’ 전략은 기존의 ‘원조 외교’로 표방되던 조용한 양자관계 중심의 대중아시아 정책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것은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다자주의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미국 중심의 외교를 바탕으로 양자관계에 치중하던 일본의 외교사에서 볼 때 획기적인 방향전환이었다. 우선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석유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체유전지로 중앙아시아를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이전까지 원조의 대부분을 석유비생산국가에 지원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원조 금액의 80%를 에너지자원 부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생산 부문에 집중투자하기 시작했다.

신 유라시아 외교는 원조대상을 기존의 중앙아시아에서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하여 광의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내륙국가라는 한계를 지닌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일정한 발언권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대유라시아대륙 외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이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문화, 역사, 종교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동외교 차원에서도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은 일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²¹⁾

121)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研究所(2005),『新たな次元へと向かう日本・中央アジア関係』(<http://cari.727.net>) 참고.

일본은 신 유라시아 외교에서 민간자본의 활발한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통상산업성(現 경제산업성)과 일본 수출입은행이 에너지와 운송 부문의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섰다. 대표적인 민간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미쓰이(Mitsui)의 아제르바이잔 수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를 들 수 있다.¹²²⁾ 본 프로젝트에 일본 경제협력기금은 1억 6,500만 달러를 40년간 0.75% 이자에 10년간의 상환 유예라는 특혜¹²³⁾를 제공하였다. 이는 진출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한 투자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성공적인 협력과 보완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다. 일본의 중양아시아 원조외교

일본의 원조외교는 중양아시아 각국과의 쌍무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 신 유라시아 외교정책 수립 이후 일본은 중양아시아 국가들과 쌍무적인 정치대화, 경제협력 및 자원개발 협력,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경험전수, 경제·사회 인프라 정비, 사회부문에 대한 지원, 환경보전(이랄해의 염해대책 등) 등 네 가지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1)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

2004년까지 일본은 중양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약 21억 1,542만 달러의 정부개발원조를 제공하였다. 국가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122) Hickok, *op. cit.*

123) 위의 자료 참고.

대체유전지로 부각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 표 5-7.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국가별 ODA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합계
1993	0.85	0.76	0.78	0.09	0.09	-	2.57
1994	1.62	2.55	44.49	0.20	0.21	0.04	49.19
1995	4.40	16.05	45.80	0.30	0.52	0.06	67.13
1996	8.96	25.30	44.27	0.31	0.71	0.30	79.85
1997	43.09	83.16	18.05	0.31	0.78	2.84	148.23
1998	95.21	103.01	25.17	0.41	4.36	3.47	231.63
1999	67.46	81.63	62.51	1.55	1.69	10.83	225.67
2000	83.33	82.20	47.79	2.06	1.07	36.39	252.84
2001	43.93	30.92	23.15	4.61	16.42	100.97	220.00
2002	30.13	40.16	8.12	26.96	11.37	141.84	258.58
2003	136.27	63.22	31.23	4.77	6.80	79.82	322.09
2004	130.76	99.75	26.69	6.58	2.22	9.64	275.64

주: 1) 연도, OECD/DAC 집계 기준

2) 합계에는 '출입국', '기타', '분류 불능'이 포함됨.

자료: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地域に対するODA実績 Japan's Statistics, <http://web-japan.org/stat/stats/23ODA32.html> 참고(검색일: 2005. 4. 5).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탄생한 이후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및 자립적인 경제체제 확립은 이 국가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까지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서 약 2,600명의 연수자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했고, 동시에 시장경제 운영, 법제도 정비,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600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을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파견, 현지에 설립한 ‘일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표 5-8.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일본의 기술협력 실적 ■

연도	경비총액 (억 엔)	연수원수입 (명)	전문가파견 (명)	조사단파견 (명)	협력단파견 (명)	자원봉사 (명)
1999	27.96 (1.80)	325 (1.82)	370 (2.12)	450[581] (2.14) [(1.50)]	557 [709] (2.83) [(1.80)]	523 (3.22)
2000	31.08 (2.00)	52 (1.31)	64 (1.90)	90 [109] (2.79) [(1.80)]	111 [124] (3.97) [(2.20)]	109 (3.70)
2001	31.63 [38.27] (2.00) [(1.60)]	320 (3.63)	294 (3.12)	214 [239] (2.28) [(2.50)]	308 [245] (3.62) [(3.00)]	355 (4.58)
2002	32.65[38.17] (2.20) [(1.90)]	3 (0.23)	13 (0.95)	10 (0.88)	16 (1.30)	23 (1.76)
2003	38.33 (2.70)	0 (0.00)	0 (0.00)	3 (0.71)	1 (0.19)	9 (1.71)

주) 1. 연도 구분은 예산연도(4월~약년 3월) 기준.

2. () 안은 전 세계에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3. 2001년도는 일본 전체의 기술협력사업 실적이며, 2000년도 이전 및 2001년도의 [] 안은 JICA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협력사업 실적.

자료: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地域に対するODA実績(검색일: 2005. 4. 5).

2)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구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산업, 유통, 인프라, 재정 등의 경제구조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의 분업체제에 종속되어 자원이나 특정 생 산품의 공급지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듯 모스크바에 의존적인 경제시스 템은 독립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운송, 전력, 물 등 국가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는 경제·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를 개선할 대책이나 효율성 증대가 시급한 과제 로 부상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엔 차관을 중심 으로 철도, 도로, 공항, 전력, 물 등 인프라 부문의 재건에 집중적으로 지원했 다. 예를 들어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중앙아시아 철도망 복원사업으로 카자흐 스탄의 『철도 여객 수송력 증강 계획』(199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수 송 근대화 계획』(1997년), 우즈베키스탄의 『Tashguzar- Kumkurgan 철도 신 설계획』(2004년) 을 지원하여 수송시간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오슈 도로 보수 계획」(1996, 1998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공항 보수 계획」(1998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화력 발전소 근대화 계획」(2002년) 등의 인프라 정비에 엔 차관을 지원했다.¹²⁴⁾

한편 2006년 일본이 중앙아시아에 지원한 ODA 주요 내역을 보면 [표 5-9]와 같다.

■ 표 5-9. 2006년 중앙아시아에서 실행된 일본의 ODA 내역 ■

국가	지원 내역	일시	지원액(억 엔)
아제르바이잔	바쿠 Mushviq 변전소 현대화 지원	2006년 5월 31일	8.80
키르기스스탄	Naryn 지역의 도로 유지를 위한 설비 지원	2006년 8월 10일	5.72
타지키스탄	Dusty-Nizhniy Pyandzh 구역간 도로 개선 지원	2006년 9월 5일	5.95
우즈베키스탄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2회)	2006년 7월 21일	0.26
		2006년 8월 29일	3.09

자료: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policy/oda/note/grant-6r.html>(검색일: 2006. 11. 25).

3) 사회 각 분야의 개선 지원

구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 지역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는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독립 후 국가지원의 감소로 인해 의료나 교육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산물로 전락하였다. 또한 급속한 시장경제로 인해 수반되는 의료·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은 서비스 저하나 지역간 격차로 이어졌다. 중앙아시아의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일본은 원조외교를 통해 그 복원을 위한 지원에 주력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구급과학센터 기제 정비 계획』(2001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市 구급의료센터 정비 계획』(2001년),

124)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anken/zyoukyou/h_16/y040826_1.htm). 참고.

카자흐스탄 「세미파라틴스크 지역 의료 개선 계획」(2000년)¹²⁵⁾ 등 무상자금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시스템을 향한 제도 개혁에 대한 지원,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기자재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밀하고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민간 안전보장 무상자금 협력」을 활용하여 의료·교육 분야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나린주 코췌쿨 지구 중등학교 보수 계획」(2004년)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프로젝트들을 실시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분야에서는 엔 차관에 의한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고등학교 확충 계획」(2000년)과 무상자금 지원에 의한 유학생 지원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의 의존적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자립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표 5-10.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일본의 무상자금협력 실적 ▮

a. 전체 내역

(단위: 억 엔)

연도	일반	수산	긴급	문화	소계	식량 (KR)	식량증산 (2KR)	총계
2001	76.59 (4.18)	- -	3.26 (4.70)	1.42 (4.97)	81.27 (4.01)	- -	22.70 (10.49)	103.96 (4.42)

125) 세미파라틴스크시(市)는 카자흐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구소련 시대의 핵 실험장이다. 40년간 약 470 회의 핵실험이 진행되어 현재에도 30만 명(추정)의 지역 주민이 피폭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다. 유일한 피폭국민 일본은 1999년 도쿄에서 개최된 「세미파라틴스크 지원 국제회의」에서 이 시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듬해 2000년,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경험과 피폭자 지원실적을 활용한 의료 지원의 일환으로 「세미파라틴스크 지역의료 개선 계획」(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 의료의 향상과 백혈병 및 암 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일본인 전문가에 의한 진단결과 데이터 분석 등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5-10 계속

연도	일반	수산	간급	문화	소계	식량 (KR)	식량중산 (2KR)	총계
2002	40.12 (2.29)	- -	- -	2.57 (9.77)	42.68 (2.14)	7.00 (3.91)	- -	49.68 (2.22)
2003	35.78 (2.55)	- -	- -	1.76 (7.93)	37.54 (2.25)	2.00 (1.78)	6.20 (12.15)	45.74 (2.49)

주: 1) 『일반』에는 『일반 프로젝트 무상』, 『채무구제』, 『논프로젝트 무상(Non-project Grant Aid)』, 『민간 무상(2003년도부터는 『민간·인간의 안전보장 무상』)』, 『NGO지원 무상』 및 『유학연구지원 무상』이 포함.

2) () 안은 전세계 합계에 차지하는 비율(%)

자료: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地域に対するODA実績(검색일: 2005. 4. 5).

b. 일반 프로젝트 무상내역

(단위: 억 엔)

연도	의료· 보건	교육· 인성교육	농림업	환경	통신·운수	물	에너지	지뢰제거	기타	계
2003	8.03 (3.75)	7.07 (4.75)	6.24 (29.74)	- -	- -	5.25 (4.00)	- -	- -	- -	26.59 (3.22)

주: () 안은 전 세계 합계에 차지하는 비율(%)

자료: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地域に対するODA実績(검색일: 2005. 4. 5).

4) 「중앙아시아+일본」 협의체 구성

테러와 마약 밀매방지, 원활한 물류수송, 물과 에너지자원의 평화적인 공동 분배, 역내 무역 활성화, 환경보전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내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 수많은 다자기구가 성립된 것도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특수한 환경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착안하여 양자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일본의 가와구치 외상은 2004년 8월,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그동안 원조외교를 앞세운 양자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가와구치 외상은 다자적 접근의 구현을 위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일본 대화”를 제창했다.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는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의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대화를 목표로 ① 다양성의 존중, ② 경쟁과 협조, ③ 열린 협력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했다. 동시에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3년간 1천 명 이상의 연수자를 초청하여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¹²⁶⁾ 이와 같이 일본은 다양한 채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중앙아시아+일본 대화”에서 일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 경비 강화에 필요한 순찰차와 감시장비 지원,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전략적 원조외교 추구

일본 정부는 ODA 개혁의 일환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국가별 원조계획을 책정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 차별화된 국가별 원조계획이다.¹²⁷⁾ 즉 자체적인 개혁노력의 정도에 따라 지원 차별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측성이 있는 원조 실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에서의 지역내 협력에 유의, 그리고 중점 과제 및 분야 등에 대한 협의 후 원조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국가 재건에 필요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1세기 새로운 대중중앙아시아 외교의 목표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책임성과 지도적 위치를 부각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126)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kouhou/plaza/kp2005_02/chapter01.html
(검색일: 2006. 7. 12) 참고.

127) 위의 자료 참고.

라.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소련방 해체 이후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1억 8,549만 달러였던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아제르바이잔 포함)간의 총교역액은 2005년 7억 2,780만 달러로 거의 4배 가량 증가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카자흐스탄이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전체 교역액에서 카자흐스탄이 약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21.9%)과 아제르바이잔(7.4%)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5-11.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2000	교역액	160.17	103.27	5.87	1.97	56.68	8.86
	수출	68.48	24.72	4.51	1.43	55.96	8.03
	수입	91.69	78.55	1.36	0.54	0.72	0.83
2001	교역액	177.83	70.47	1.67	0.61	33.06	67.01
	수출	73.28	17.69	0.97	0.48	32.64	63.41
	수입	104.55	52.78	0.7	0.13	0.42	3.6
2002	교역액	189.33	90.37	11.49	2.99	6.16	30.67
	수출	90.65	17.04	1.31	1.07	5.29	29.94
	수입	98.68	73.33	10.18	1.92	0.87	0.73
2003	교역액	253.33	136.15	22.37	7.87	28.22	74.92
	수출	99.49	43.37	5.62	0.43	25.81	72.26
	수입	153.84	92.78	16.75	7.44	2.41	2.66
2004	교역액	431.95	137.84	4.24	8.98	51.3	78.78
	수출	185.81	51.64	3.74	0.45	51.1	77.72
	수입	246.14	86.2	0.5	8.53	0.2	1.06
2005	교역액	511.09	159.63	2.64	5.79	14.63	54.02
	수출	177.51	35.29	2.29	1.38	14.62	53.35
	수입	333.58	124.34	0.35	4.41	0.01	0.67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편 1993~2005년 기간 동안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직접투자액은 약 900억 엔으로, 일본의 직접투자는 주로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자국의 석유·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확보전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일본의 석유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었다. 일본은 부실한 국영석유회사를 정리하고 수익 구조가 건전한 회사로의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오고 있다.¹²⁸⁾ 석유산업분야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일본은 산유국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해외유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전 개발에 있어 국영석유회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옮겨가고 있다.¹²⁹⁾ 일본의 대중양아시아 원조정책 역시 1997년 이전의 비에너지부문에 대한 조용한 원조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개발·투자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과 수익성이 검증된 유전의 탐사 및 개발에서의 지분 확보, 지방 또는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프로젝트 참여, 잠재성 있는 에너지 운송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기업의 입찰 참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¹³⁰⁾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리스크가 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단기간에 고수익(high return)을 획득하고 신속하게 투자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서방기업의 전략과는 달리 일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디지만 꾸준한 이윤추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e seek partners for the long-term.” 즉 일본의 투자는 서구의 자본에 비해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에 협력적 파트너

128) Toichi(1999)

129) 그 예로 Itochu와 Mitsui 그룹이 있다.

130) Hickok, *op. cit.*

로 남아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비록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현지 시장에 일본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 현지 시장 진출의 벽이 높지 않은 상황을 간파한 일본 기업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면서 현지 기업과의 장기적인 합작 및 협력에 주력했다.¹³¹⁾ 이러한 일본 기업의 진출전략은 오직 석유와 가스 자원 확보에만 치중된 서구의 대규모 다국적기업과 국영석유회사의 투자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진출방식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에 효과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기업에 의한 중앙아시아 에너지 지원에 대한 접근과 투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카스피해 연안 진출사례: 아제르바이잔

일본의 아제르바이잔 진출은 1996년 이토추(Itochu)가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로부터 3.54%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¹³²⁾ 이때부터 이토추는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대하려고 했고, 일본 정부는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대화채널을 개설했다. 같은 해 이토추는 Karabagh 지역 탐사를 맡은 카스피해 국제석유회사와 86만 달러의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¹³³⁾ 이토추는 Dan-Ulduzu-Ashrafi 지역 탐사를 맡은 North Aspheron Operating Company 지분의 20%를 매입,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¹³⁴⁾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입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1억 달러의 용자를 제공했다. 또한 Bakhar 응축가스 매립지의 가스 응축기와 Neft Dashlary 매립지의 가스 터빈 스테이션 설립에 대한 자금조달의 일환으로 정부 펀드 1억 6천만 달러도 배당받았다.¹³⁵⁾ 그

131) Hickok, *op. cit.*

132) 위의 글 참고.

133) 위의 글 참고.

134) Gadzhizade(1998a)

러나 1999년 지분의 20%를 소유했던 North Aspheron Operating Company가 문을 닫고 지역탐사 결과가 예상했던 만큼의 상업성에 미치지 못하자 이토추 역시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대한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위의 투자로 이토추는 상당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토추의 아제르바이잔 진출 노력과 일본 정부의 이 지역 산업화에 대한 지원은 1997년 하시모토 총리의 신 유라시아 외교정책이 표방되던 시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카스피해 연안의 Yanan-Tava, Atashgah-3, Muran-Deniz 등 세 유전지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컨소시엄에 참가했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1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였다.¹³⁶⁾ 그리하여 일본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와 아타쉬가흐(Atashgah) 광구의 유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1998년 총 23억 달러로 추정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지분의 50%는 아제르바이잔 측의 SOCAR에, 나머지는 일본의 Japex(22.5%), Inpex(12.5%), Teikoku(7.5%), Itochu(7.5%)에 배분되었다.¹³⁷⁾ 이처럼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와 일본 기업만으로 구성된 탐사 및 개발 컨소시엄은¹³⁸⁾ 유전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3년 해당 기업이 철수하면서 마감되었다.

이밖에도 이토추와 함께 미쓰이는 아제르바이잔 석유연료 생산협회(Azerneftyanajag)와 아제르바이잔 석유 유회유 생산협회(Azneftiyag)의 구조조정과 상업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투자와 경영 지원은 두 회사가 맡고 8천만 달러의 자금은 일본 수출입은행이 10년 동안 2.5%의 이자에 상환(33개월 유예기간)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135) Mukhtarov(1997)

136) Hickok, *op. cit.*

137) Gadzhizade(1998b)

138) Hickok, *op. cit.*

■ 표 5-12.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생산물분배협정(PSA) 현황 ■

PSA 명칭	참가자(지분, %)	추정 매장량	투자규모	PSA 체결
Azeri, Chirag, Gunashli	BP(34.1), Unocal(10.2), Lukoil(10), SOCAR(10)	석유: 54억 배럴	130억 달러	1994. 9
Shah Deniz	BP(25.5), Statoil(25.5), SOCAR(10), LukAgip(10)	석유: 25억 배럴 가스: 14Tcf	32억 달러	1996. 6. 4
Inam	SOCAR (50), BP(25), Royal Dutch/Shell(25)	석유: 22억 배럴	20억 달러	1998. 7. 21
Araz, Alov, Sharg	SOCAR(50), BP(25), Statoil(15), ExxonMobil(15)	석유: 40억 배럴	100억 달러	1998. 7. 21
Lerik, Jenab, Savalan, Dalga	SOCAR(50), Exxon Mobil(30)	석유: 10억 배럴	30억 달러	1999. 4. 27
Zafar-Mashar	SOCAR(50), Conoco(20), ExxonMobil(30)	석유: 10억~20억 배럴 가스: 1.8Tcf	30억 달러	1999. 4. 27
Yalama/D-222	Lukoil(80), SOCAR(20)	석유: 7.5억 배럴	25억 달러	1997. 7. 4
Nakhchivan	SOCAR(50), Exxon Mobil(50)	석유: 7.5억 배럴	20억 달러	1997. 8. 1
Kurdashi-Araz-Kirgan Daniz	SOCAR(50), Agip(25), Mitsui(15)	석유: 7.3억 배럴	25억 달러	1998. 7. 7
Lankaran-Talysh	TotalFinaElf(35), Wintershall(30)	석유: 7.0억 배럴	20억 달러	1997. 1. 13
Kursangi-Garabagli	SOCAR(50), CNPC(30), Amerada Delta-Hess JV(20)	석유: 7.3억 배럴	10억 달러	1998. 12. 15
Muradkhanli-Jafarli-Zardab	Ramco(50), SOCAR(50)	석유: 7.3억 배럴	10억 달러	1998. 7. 21
Padar-Kharami	Nations Energy(85), SOCAR(15)	석유: 5.8억~7.5억 배럴	1.4억 달러	1999. 4. 27
Shirvanoil	CaspianEnergy Group(51), SOCAR(49)	석유: 6.5억 배럴	-	2000

자료: EIA, Azerbaijan: Production-Sharing Agreements, <http://www.eia.doe.gov/emeu/cabs/azerproj.html>(검색일: 2005. 3. 19).

2) 우즈베키스탄 진출사례

일본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 4,850만 달러 상당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총 5억 9,390만 달러를 투자했다.¹³⁹⁾

1997년 일본의 ‘직접적인 양자 무역(direct bilateral trade without inter-

mediaries)’ 시행을 환영한다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성명을 계기로 일본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¹⁴⁰⁾ 도요다는 일본경제연합(Keidranren)을 이끌고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카리모프 대통령과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카리모프 대통령은 산업부문에 투자하는 새로운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1998년 일본경제연합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유라시아 운송의 중개지 역할을 할 ‘물류통합관리센터’를 타슈켄트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⁴¹⁾ 이러한 투자 제안은 미래 신 실크로드 복원시 유라시아대륙의 물류중심지로 주목받게 될 중앙아시아에 대한 조기진출 시도로 보인다.

3) 카자흐스탄 진출사례

1998년 9월 일본의 Inpex사가 Offshore Kazakhstan International Oil Consortium(OKIOC)에 참가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7.15%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¹⁴²⁾ 이후 2001년에는 Marubeni Trade and Investment Corporation과 Nikki Engineering Company 두 일본 기업이 Atyrau 정유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azakhoil과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¹⁴³⁾

에너지 관련 사업 외에도 일본은 아스타나의 공항시설 현대화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일본경제연합은 1억 5천만 달러를 30년간 2.2%의 이자율을 적용(10년 유예기간)하여 지급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¹⁴⁴⁾

139) Hickok, *op. cit.*

140) “President Karimov favors direct trade with Japan”, Moscow Interfax, 7 July 1997.

141) Hickok, *op. cit.*

142) Mariam Arunova and Gennadi Kochevoi(2004), “Japan and the Caspian Oil”,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25).

143) *Nihon Keizai Shimbun*, 5 December 2001 참고.

또한 세미파란틴스크 지역의 교량 건설 및 철로시스템 개선 등 카자흐스탄의 기초 인프라 개선사업에 약 2억 7천만 달러의 일본 차관이 제공되었다. 이밖에도 일본 중소기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법적 규제 시스템 개혁을 유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4)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사례

1998년 이토추 회장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그는 이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¹⁴⁵⁾ 그 해 9월, 아슈하바트의 기관차 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4천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고,¹⁴⁶⁾ 11월에는 일본 국제협력재단이 운송수단 개선을 위해 20년 상환 조건으로 3,8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¹⁴⁷⁾

또한 투르멘바슈 정권소 현대화를 위한 이토추, 니슈오-이와이(Nishio-Iwai) 컨소시엄과 JGX 기업의 2천만 달러 계약이 체결되어 연간 9만 톤 가량의 폴리프로플렌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⁴⁸⁾

이밖에도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투르크메니스탄·중국·일본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144) Hickok, *op. cit.*

145) Saparmurad Turkmenbashi Niyazov, "Address to Turkmen-Japan Committee for Cooperation", Ashgabat, 1 June 1998; Anna Kurbanova and Lyudmila Glazovskaya, "Turkmen-Japanese Cooperation Committee meets in Ashkhabad", *Moscow Interfax*, 1 June 1998.

146) Vladimir Mikhaylov and Georgiy Smolnikov, "Ashgabat is making use of its transit possibilities", *Moscow Nezavisimaya Gazeta*, 15 September 1998.

147) Hickok, *op. cit.*

148) "Turkish company constructing Turkmen refinery", *Moscow Interfax*, 19 October 1998.

마.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의 중아시아 및 코카서스 진출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의 적극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과감한 차관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기금(Economic Cooperation Fund)을 통한 저율의 차관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중아시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민간에 제공했다.

둘째, 서구기업과 차별화된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전략이다. 즉 서구의 기업들이 “high-risk, high-return” 전략을 추구한 반면, 일본 기업은 “low-risk expectation for steady returns”을 택함으로써 꾸준한 이윤 추구하고 낮은 리스크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다.¹⁴⁹⁾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은 지역 및 지방의 중소 규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원조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간의 이윤을 추구했던 서방국가들과 기업의 행태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중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중아시아 국민들은 일본을 형제국으로 호칭하며 자신들의 미래 성장의 모델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중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고 지역 맹주인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독자적인 다자대화채널 구축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원조외교를 앞세운 일본의 양자관계에 의해 다져진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중아시아+일본 협의체”는 중국·러시아의 견제를 우회

149) Hickok, *op. cit.*

하는 대화방식을 구축한 것으로 중아시아 지역 진출의 신참국인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6장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와 대응방안

이재영 · 박상남

1.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협력관계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성장 및 높은 인구성장률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신생독립국들이 탄생한 지역으로서 장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유라시아 다자안보벨트 구축의 중요한 축이며, 한국의 외교적 개척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1990년대 초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설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과는 총 12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¹⁵⁰⁾ 이러한 과정

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 무역공동위원회, 자원공동위원회 등 양자간 협의체와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2006년 5월 현재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1992년), 타지키스탄(19995), 카자흐스탄(1996)이며,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1997년), 우즈베키스탄(1998년)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2005년 11억 5,928만 달러였던 한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간의 총교역액은 2006년 1월에서 11월까지 13억 2,775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06년 11개월 동안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출은 10억 2,815만 달러로 한국 총수출의 약 0.35%, 수입은 2억 9,961만 달러로 총수입의 0.11%를 차지하였다. 이때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출의 약 58%는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였으며, 대중중앙아시아 수입의 약 85%는 카자흐스탄이 점유하였다.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내구소비재와 섬유, 합성수지 등 소비재이며, 수입은 철강, 금속제품, 농산물, 섬유사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말까지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직접투자는 총 164건에 9억 1,974만 달러였다. 이는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투자건수의 약 0.5%, 투자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말까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4억

150) 2006년 말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정상회담은 우즈베키스탄과 5회(3회 방한, 2회 방문), 카자흐스탄과 4회(3회 방한, 1회 방문), 키르기스스탄과 1회(방한), 타지키스탄과 1회(방한), 아제르바이잔과 1회(방문) 개최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2,660만 달러,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4억 2,660만 달러였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원 개발 및 가공, 그리고 가전, 섬유 등 중소형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 표 6-1. 2000~06년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교역량 추이 ■

(단위: 천 달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2000년	교역액	131,766	334,402	17,304	12,354	15,370	4,936
	수출	82,385	230,413	17,057	2,709	15,275	2,945
	수입	49,381	103,989	247	9,645	95	1,991
2001년	교역액	164,139	482,413	20,626	9,192	16,575	3,720
	수출	108,003	345,687	20,010	2,273	14,674	3,637
	수입	56,136	136,726	616	6,919	1,901	83
2002년	교역액	197,780	285,291	28,041	11,398	23,109	3,875
	수출	126,110	188,479	27,625	5,424	21,667	3,784
	수입	71,670	96,812	416	5,974	1,442	91
2003년	교역액	370,269	326,095	32,591	9,733	37,387	10,969
	수출	217,174	247,138	32,239	4,299	36,441	10,968
	수입	153,095	78,957	352	5,434	946	1
2004년	교역액	517,979	435,993	53,185	9,691	14,293	19,776
	수출	313,950	359,048	50,174	4,947	14,131	19,127
	수입	204,029	76,945	3,011	4,744	162	649
2005년	교역액	514,163	521,923	68,107	14,966	7,779	32,343
	수출	272,558	493,095	66,517	12,740	6,449	32,240
	수입	241,605	28,828	1,590	2,226	1,330	103
2006년 (1~11월)	교역액	552,486	630,527	78,037	18,004	7,524	41,185
	수출	298,769	592,580	76,737	13,159	5,734	41,173
	수입	253,717	37,947	1,300	4,845	1,790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표 6-2. 對중아시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건, 천 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우즈베키스탄	93	645,315	66	424,777
카자흐스탄	96	690,943	83	426,604
타지키스탄	3	58,168	2	58,100
키르기스스탄	15	18,788	12	10,252
아제르바이잔	1	20	1	5
투르크메니스탄	0	0	0	0
합계	208	1,413,234	164	919,738

주: 2006년 12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중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의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 5개사는 2002년 3월 원유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스피해 해상유전 및 육상유전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원유 개발 컨소시엄은 2004년 9월 한국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등에 힘입어 카스피해 잠빌광구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2005년 2월)한 이후 본 계약(탐사계약) 체결을 목표로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가스공사(KazMunayGas)와 막바지 협상 중에 있다. 본 계약 체결이 성사되는대로 석유공사와 카즈무니아가즈 측과 공동운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석유공사, LG상사, SK, 세림상사 등은 상기 잠빌광구 외에도 여타 카스피해 해상광구 및 육상광구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우즈베크 아랄해 유전탐사 등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사업여건 미숙 및 정세불안 등으로 아직까지 진출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이남광구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석유·가스 자원 개발 외에도 중아시아의 광물자원 개발방안도 추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 측과 카자흐스탄 동남부 주요 광물부존구역(15만km)에 대한 공동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동·연·아연 등 유망 광물 발굴시 우리 기업의 후속적인 개발 진출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중앙아시아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예컨대 2005년 말까지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해 총 1억 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통신망 현대화와 교육용 기자재 및 교육훈련 등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카자흐스탄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키르기스스탄의 TDX-10 교환기 공급 설치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또한 1991~2005년 기간 동안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아제르바이잔에 총 2,936만 6천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는 한국의 전체 무상지원 실적의 3.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이 지역에 대한 무상지원의 약 89% 차지하였으며, 지원은 주로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물자 지원, 프로젝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그동안 한국의 종합적인 對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의 해외 에너지자원 수급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하고도 체계적인 민관 공동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앞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후발주자로 나서게 되면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보다 높은 탐사, 개발 및 참여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직적 통치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대외경제협력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

국 측의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협력추진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현지 진출 장애요소인 현지의 법적 안정성 미흡, 인맥 등을 통한 비공식적 거래 관행의 만연을 비롯한 제도적 진입장벽의 존재, 중앙아시아 정부의 자원 민족주의 및 자국기업 우대경향 대두, 특정 산업별 현지 인적 네트워크 미비, 중앙아시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훌륭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보통신, 건설, 운송 등 제반 경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길 적극 희망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유망 진출분야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과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사업 참여를 비롯하여 정보통신(IT)산업, 유통산업, 부동산 개발 등 매우 다양하다.

■ 표 6-3. 중앙아시아 국별 유망 투자분야 ■

국가명	유망 투자분야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석유, 가스), 석유화학, IT, 건설, 유통·물류, 금융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석유, 비철금속), IT, 섬유·직물, 가전
아제르바이잔	자원개발(석유, 가스), 건설, IT, 가전
투르크메니스탄	자원개발(석유, 가스), 가전
타지키스탄	자원개발(우라늄 등 희소금속), IT
키르기스스탄	자원개발(금 등 귀금속), 섬유·신발

자료: KOTRA 현지 무역관 및 현지 공관 조사결과(2006년 5월)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국별로 시장규모, 투자환경,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 산업발전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아시아 현지 시장개척을 위한 한국정부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체계 확립 및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한국의 대응방안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구해야 할 좌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이해)는 △ 에너지자원의 확보 △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제고 △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구축 △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가. 에너지자원 확보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현상과 고유가사태로 인해 에너지 확보전략은 세계 각국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는 여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장(유럽, 인도, 아시아 등)에 근접해 있고, 여전히 미개발 유전이 많이 남아 있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지역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유전의 가치는 에너지자원의 질과 채굴단가(경제성), 유전의 위치에 좌우된다. 지리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의 유전은 최대 소비시장인 유럽과 인도·중국과 근접한 거리에 있다. 즉 소비시장과의 근접성이라는 점에서 아프리카나 남미의 유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우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하여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생산한다면 최상의 시장조건을 갖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 유전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유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카스피해(海)는 한국 기업이 진출을 고려해 보아야 할 지역이다.

대체 유전지 확보가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원유 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중동에 대한 과중한 의존도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선의 다각화는 한국의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중국과 터키의 진출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국가전략사업이므로 정부와 석유공사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부문에만 의존한다면 진출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석유 및 가스 개발에 관한 권한을 정부 또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세계적 석유 메이저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국가(중국, 터키, 이란 등)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는 러시아 국영석유공사인 로스네프트가 갖고 있던 사할린 석유개발프로젝트 I의 지분 20%를 17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인도는 2007년부터 사할린으로부터 일일 10만 배럴의 원유를 취득할 수 있으며 3년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2005년 카자흐스탄 3위 석유업체인 페트로 카자흐스탄을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아제르바이잔

최대 육상프로젝트인 Kursang-Karabagly 유전지대(매장량 6억 6천만 배럴, CNPC 지분 50%)에 대한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형급 유전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석유 메이저들이 손을 대지 않는 중·소형 유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출방식은 지분 매입을 통하거나 메이저 회사들과의 합작투자방식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영유권 문제로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않은 카스피해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진출시 중앙아시아 지역의 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나. 지정학적 가치 확인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대륙외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러시아의 후면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는 한국의 대중국 및 러시아 외교에 있어 다양하고도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유사시 대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중앙아시아는 훌륭한 외교·안보적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각국들과 보다 밀접한 양자관계 구축은 물론 다자적 연대 강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긴밀한 쌍무관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다자기구에의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용하면서도 실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직업 교육, 의료보건사업, 환경보전문제 등 다양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

진, 우호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과 개별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교한 경제외교가 요구된다.

다.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오일달러 유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 러시아 남부, 중동,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 거대한 신흥 인프라 시장, 중국 서부개발, 러시아 남부, 인도 개발과 연계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 터키, 중국의 진출전략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정부 차원의 진출전략과 로드맵 제시, 과감한 금융(차관) 지원과 정보 제공, 민간부문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진출을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파격적인 차관 제공(20년 상환, 5년 유예, 저리 등)과 함께 민간부문을 패키지로 묶어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건설, 인프라, 플랜트 등). 또한 최근 한국에서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투자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역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간의 공동프로젝트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다목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은 시장개척, 건설, 인프라, 문화, 물류거점 확보, 에너지 확보의 기반 구축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포괄적 진출방안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고려인의 존재는 불행했던 한민족의 과거에서 유래되었지만 한국이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부상한 21세기에는 글로벌 전략의 소중한 자산이며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고려인 사회의 복원을 위한 지원과 보호는 한국정부의 중요한 선행 책무이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한 소극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것이다. 구소련 시절 고려인 콜호즈(집단농장)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 집단농장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현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마을들은 외해되었고 터전을 잃어버린 동포들은 전 소비에트 영토를 떠돌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상징적인 고려인 마을 3~4곳을 지정하여 복원하고 자립기반을 갖추어주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구소련 붕괴 후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정착촌 지원, 독일인 자치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고려인의 정체성 복원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한국학교(또는 한국센터) 설립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사 파견과 교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가 설립될 경우 이는 고려인 사회의 준거집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현지 중앙아시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한국문화 전수와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고취와 현지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학교 설립은 국내에서 국·공립학교를 운영하듯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하여야 한다.

매년 2천~3천 명의 고려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1년 단위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터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자국으로 초청하여 교육했다. 터키의 이러한 정책은 중앙아시아에 친(親) 터키 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젊은 고려인 동포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돌아간다면 일등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준영. 2003. 「중국 제 4세대 지도부 출범과 중국외교노선의 지속과 변천」. 『중국 연구』, 32권.
- 강삼구. 2002. 「중국과 중앙아시아」. 『극동문제』, 5호.
- 고재남. 2005.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게임’과 관련국 대응」. 『中蘇研究』, 제29권 제3호, pp. 13~51.
- . 2005.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主要國際問題分析』. 외교 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김대성. 2001.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pp. 36~48.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 김성한. 2002. 「아프간 전쟁이후 美國의 對중앙아시아 政策」. 『主要國際問題分析』, p. 3.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해리슨 공편. 2002.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 박상남. 2003. 「미군주둔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3호.
- . 2004.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국가형성과 터키의 역할」. 『中東研究』, 22권 2호
- . 2005.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31권.
- 박병인. 2004.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하이 협력기구 연구」. 『중국학 연구』, 9월호.
- . 2005.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 『중국학 연구』, 31집.
- 박홍영. 2005. 「일본원조외교의 역할과 한계분석: 캄보디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 치역학과 일본」. 『한국정치학회보』, pp. 283~284.

- 백준기.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와 가능성」.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동녘.
- . 2003. 「한국문제의 역사적 재구성파 6자회담」. 『국제지역연구』, 7-4호, p. 106.
- 산업은행 산은기술평가원. 2006. 『2006 테크노 리포트 - 우즈베키스탄과의 산업협력방안 및 산업은행의 역할』.
- 신현준. 2006.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자료 06-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병옥. 2001. 『중앙아시아국제정치에 이해』, pp. 72~73.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주재우. 2004.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협력」. 『국제정치논총』, 44집 1호.
- Z. 브레진스키. 김명섭 역. 2000.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p. 71. 삼인.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김명섭 역. 2000.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삼인.
- 이고리 이바노프·이항재 역. 2003. 『새로운 러시아의 외교』.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이재영. 200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 이재영·김선영. 2005.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개통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8권 제8호.
- 이정택. 2001.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한 미국적 시각의 오류」. 『국제정치연구』, 4집 1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 이남주. 2003. 「중국 무임승차외교의 딜레마와 동북아정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권 1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정보(<http://www.koreaexim.go.kr>)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 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1호.

●●외국문 자료

[중문 자료]

- 孙海吗·赵晓雷 主编. 2003. 『2003 中国区域经济发展报告-国内及国际区域合作』. 上海: 上海财经大学出版社.
- 汪金国. 2003. 『评中亚独立国家内政转型』. 『国际问题研究』.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 姚大学. 2005. 『全球化与中亚区域经济一体化』.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赵华胜. 2003. 『中亚形势化与"上海合作组织"』. 『国际政治』. 北京: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古丽阿扎提 外. 2004. 『中国与哈萨克斯坦能源合作透视』.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侯松岭·迟殿堂. 2003. 『东南亚与中亚: 中国在新世纪的地缘战略选择』. 『中国外交』. 北京: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孙海吗·赵晓雷 主编. 2003. 『2003中国区域经济发展报告-国内及国际区域合作』. 上海: 上海财经大学出版社.
- 师博·秦放鸣. 2004. 『中亚市场潜力分析』.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姚大学·王泽壮. 2004. 『中亚五国经济发展模式』.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邢辉. 2004. 『哈萨克斯坦的银行体系及外汇管理制度』.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常庆. 2003. 『上海合作组织的经济职能』. 『国际政治』. 北京.
- 熊志根. 2004. 『推动中俄经济合作上新台阶』.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师博·秦放鸣. 『中亚市场潜力分析』.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赵常庆. 2004. 『走向中亚的有利条件与不利因素』.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哈卜杜拉·哈希莫夫. 2004. 『上海合作组织与中亚交通运输』. 『俄罗斯中亚东欧市场』. 中国社会科学院.
- 高飞. 2004. 『上海合作组织研究综述』. 『俄罗斯中亚东欧研究』. 中国社会科学院.

- 许涛. 2003. 『论上海合作组织的机制化』. 『国际政治』. 北京: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孙壮志. 2004. 『浅析中亚地区的跨国安全机制』. 『国际政治』. 北京: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朱新光. 2004. 『中亚安全合作机制评析』. 『俄罗斯中亚东欧研究』. 中国社会科学院.
- 赵龙庚. 2004. 『浅析美国驻军中亚後的战略态势及其对我国安全利益的影响』. 『俄罗斯中亚东欧研究』. 中国社会科学院.

[일문 자료]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04. 『中央アジアとコーカサス』.
- 日本外務省. 2004. 『中央アジア+日本: 対話・外相会合/共同声明—新時代を迎える 日本・中央アジア関係—別』.
- . 本外務省.
- . 2005a.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地域に対するODA実績」. 『ODA 2004』. 東京: 日本外務省.
- . 2005b. 「テッドロル 中央アジアの石油戦略は新しいビッグゲームだ/ 安濃一樹別珠樹」. 東京: 日本外務省.
- 『日本中央アジア学会報』. 2006. 創刊号. 東京: 日本中央アジア学会.
- 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研究所. 2005. 『新たな次元へと向かう日本・中央アジア関係』.
-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홈페이지(<http://www.jiia.or.jp>)
- 中央アジア地域情報 홈페이지(<http://www3.aa.tufs.ac.jp/~gistr/casia>)
- 中央アジア・コーカサ스研究所 홈페이지 (<http://cari.727.net>)
- 日本中央アジア学会 홈페이지(<http://www.jacas.jp>)
- 現代中央アジア研究会 홈페이지(<http://www13.plala.or.jp/np0-pie/car>)

[영문 자료]

- Allison, R. and Johnson, L. 2001. "Central Asian Security: New International Context"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Allison, Roy. 2003.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 Policy."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2.
- _____. 2004a. "Regionalism, Regional Structures and Security Management in Central Asia."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3.
- _____. 2004b.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80: 2, pp. 277-293.
- Anna Kurbanova and Lyudmilla Glazovskaya. 1998. "Turkmen-Japanese Cooperation Committee Meets in Ashkhabad." *Interfax*, p. 5. 1 (June)
- Asian Development Bank. 2005. "Central Asia Stronger Together." *ADB Review*. (October)
- _____. 2006a.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6*.
- _____. 2006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6 Update*.
- _____. 2006c. *Country Strategy Program Update - Azerbaijan*.
- _____. 2006d. *Key Indicators 2006: Measuring Policy Effectiveness in Health and Education*.
- Astana. 2003.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2015*.
- AZPROMO. 2006.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6*.
- Bal, Idris. 1998. "The Turkish Model and the Turkic Republics." *Perceptions*, Vol. 3. (September-November)
- Baker & McKenzie. 2005a.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 _____. 2000b. *Doing Business in Kazakhstan*.
- _____. 2005c. *Doing Business in Uzbekistan*.
- Bates G. and Oresman M. 2003. *China's New Journey to the West: China's Emergence in Central Asia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IS Report*.

- Bhatty R. and Bronson R. 2004. "NATO's Mixed Signal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Survival*, Vol. 42, No. 3.
- Chafets, glenn, Michael Spirtas, and Benjamin Frankel. 1999. "Introduction: Tracing the Influence of Identity on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No. 8 (2/3).
- Chotiev, Zakir. 2003a. "The Turkish Factor in The Evolution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 2003b. "Introduction: Tracing the Influence of Identity on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8 (2/3).
- Clarke. Michael. 2005. "China's Strategy in Xinjiang and Central Asia: Toward Chinese Hegemony in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Issues & Studies*, Vol. 41, No. 2, pp. 75-118. (June)
- Cornell, Svante E. 2003.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s." *NBR Analysis*, Vol. 14, No. 3, pp. 5-22. (October)
- . 2004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sia: In the Steppes to Sta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No. 2, pp. 239-254. (July)
- . 2005. "Narcotics, adicalism, and Armed Conflict in Central Asia: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7 pp. 577-597.
- Cornell, Svante E. and Regine A. Spector. 2002. "Central Asia: More than Islamic Extremists." *The Washington Quarterly*, 25: 1, pp. 193-206. (Winter)
- Demir, E., Balci, A., Akkok, F. 2000. "The Role of Turkish Schools in the Educational System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The Case of Turkmenistan and Kyrgyzstan." *Central Asian Survey*, No.19 (1).
- Dowling, Malcolm and Wignaraja, Ganeshan. 2005. *Turning the Corner*. The

- Economic Revival of Central Asia, Public Policy Research Center.
- . 2006. "Central Asia: Mapping Future Prospects to 2015." ERD Working Paper No. 80.
- . 2006. "Central Asia's Transition after Fifteen Years: Growth and Policy Choices." SMU Economics and Statistics Working Paper Series.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EIU. 2003. *Country Profile: kazakhstan, Kyrkyzstan, Tajikistan, Uzbekistan*.
- . 2006. *Country Report: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5. "Kazakhstan Country Analysis Brief." (<http://www.eia.doe.gov/cabs/kazak.html>)
- Gadzhizade, Asya. 1998a. "Tokyo becomes Baku's leading partner, Azerbaijan President hails Japan's Eurasia Diplomacy." Tokyo Kyodo. (February 19)
- . 1998b. "Japan compiles action plan for Eurasia Diplomacy." Tokyo Kyodo. (January 16)
- Gleason, Gregory 2004/05. "State Building in the Face of Insurgent Islam." *Strategic Asia 2004-05*, pp. 199-226.
- Global Insight. 2005. *PlanEcon Review and Outlook: Former Soviet Union*.
- Guangcheng, Xing. 2002.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Extremism, and Separatism."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 (16).
- Heritage Foundation. 2006. *2006 Economic Index of Freedom*. (<http://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index/>)
- Interfax. 1997. "President Karimov favors direct trade with Japan." (July 7)
- . 1998. "Turkish company constructing Turkmen refinery." Moscow. (October 1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5a. *Regional Economic Outlook*. (September)
- . 2005b.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artment*.
- . 2005c. *Republic of Tajikistan: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 IMF Country Report No. 05/131.
- ISI Emerging Markets(<http://site.securities.com>)
- Jonson, Lena. 2003. "Russia And Central Asia: Post-11 September 2001."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Vol. 19, No. 1.
- Kalicki, Jan. 2001.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 Kalyuzhnova, Yelena, Pemberton, James and Mukhamediyev, Bulat. 2004.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in Kazakhstan."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 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Kasseniva, Togzhan 2004. "WMD Proliferation Threats in Central Asia." *The Nonproliferation Review*, pp. 170-192. (Spring)
- King, Charles. 2003. "Crisis in the Caucasus A new Look at Russia's Chechen Impasse." *Foreign Affairs*. (March/April)
- Kindalov, Vladimir and Oleg Limanov. 2003. "Russia and China in Central Asia: Geopolitical Change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3 (21).
- Kireev. N. 2002. "Turkey in Search of a National Strategy of Eurasian Cooper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13).
- . 2003. "Turkey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Landmark for Political Islam."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Kochub, Yuri. 2003. "GUUAM And Equal Regional Cooper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Kozhikhov, Adil. 2002. "Middle East and The Caspian In The U.S. Energy Strateg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6 (18).
- Kurbanova, Anna, and Glazovskaya, Lyudmilla. 1998. "Turkmen-Japanese Cooperation Committee meets in Ashkhabad." *Interfax*, p. 5. (June 1)
- Kundu, Nivedita Das, 2003. "Russia-India-China: Prospects for Trilateral Cooperation." *Aleksanteri Papers* No. 3. University of Helsinki Aleksanteri Institute.

- Kuchins, Andrew C. 2001. "Russia's Relations with China and India: Strategic Partnerships, Yes; Strategic Alliances, No." *Demokratizatsiya*, 9: 2, pp. 259-275. (Spring)
- Laumulin, M. 2005. "Turkey and Central Asia: Turkey as a New Geopolitical Actor in Eurasia." *Central Asia's Affairs*, Vol. 1 (3).
- Legvold, Robert. 2003. "Great Power Stakes in Central Asia. In Robert Legvold ed. *Thinking Strategically: The Major Powers, Kazakhstan, and the Central Asian Nexu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Macfarlane, S. Neil. 2004.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ism in Central Asia."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3.
- Makharoblidze, Alexander. 2003. "Pax Americana and Islamic Fundamentalism: Is Coexistence Possibl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Mariam Arunova and Gennadi Kochevoi. 2004. "Japan and the Caspian Oil."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25).
- Maybes, William. 2003. "America Discovers Central Asia." *Foreign Affairs*, Vol 82, No. 2, pp. 120-132. (March/April)
- Maynes, Charles William. 2003. "America Discovers Central Asia." *Foreign Affairs*. (March/April)
- Michael Robert Hickok. 2000. "The Other End of the Silk Road: Japan's Eurasian Initiative." *Central Asian Survey*, No. 19 (1), pp. 17-39.
- Mikhaylov, Vladimir and Smolnikov, Georgiy. 1998. "Ashgabat Is Making Use Of Its Transit Possibilities." *Moscow Nezavisimaya Gazeta*, p. 5. (September 15)
- Minasian, Sergiy. 2003. "Russia-Iran: Military-political Cooperation and Its Prospec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 (23).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epublic of Azerbaijan. 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2006*.
- Mogilevsky, Roman and Hasanov, Rafkat. 2004. "Economic Growth in

- Kyrgyzstan."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Mukhtarov, Shah. 1997. "Japanese bankers in Azerbaijan." Baku Sharg. National Bank of Azerbaijan(<http://www.nba.az>)
- National Bank of Kazakhstan(<http://www.nationalbank.kz>)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003. *The Functioning of the 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Powerpoint Presentation Material.
-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
- National Bank of Tajikistan(<http://www.nbt.tj>)
-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eng.nbu.com/about/index_old.php)
- National Statistical Committee of Kyrgyz Republic(www.stat.kg)
- Nihon Keizai Shimbun. 2001. (December 5)
- Niyazov, Saparmurad Turkmenbasy. 1998. "Address to Turkmen-Japan Committee for Cooperation." Ashgabat.
- Olcott, Martha Brill. 2005. *Central Asia's Second Chanc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Onis, Ziya. 2001. "Turkey and Post-Soviet States: Potential and Limits of Regional Power Influence." *MERIA*, Vol. 5 (2).
- Rasizade, Alec. 2003. "Entering the Old Great Game in Central Asia." *Orbis*, Vol. 47, No 1. (Winter)
- Repkine, Alexandre. 2004. "Turkmenistan: Economic Autocracy and Recent Growth Performance."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Rumer, Eugene B. 2002. "Flashman's Revenge: Central Asia after September 11." *Strategic Forum*, No. 195. (December)

- Rutland, Peter. 2003. "Russia's Response to U.S. Regional Influence." *NBR Analysis*, Vol. 14 No. 4, pp. 27-50. (November)
- Saat, J. H. 2005.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Conflict Research Series 05/09. (February)
- Siderov, Oleg. "Central Asia's Water Resources as a Causes of Regional Conflic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 Smolansky, Oles M. 1994. "Turkish and Iranian Policies in Central Asia." In Edited by Hafeez Malik, Macmillan eds. *Central Asia*.
- Spechler, Martin C. 2002.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49, No. 6, pp. 42-47. (November/December)
- Spechler, Martin, Kuatbay Bektemirov, Sergei Chepel' and Farrukh Suvankulov. 2004. "The Uzbek Paradox: Progress without Neo-liberal Reform."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http://www.oilfund.az>)
- Syroezhkin, K. 1999. "Neft im geopolitika." *Kontinent*, No. 4.
- Swanstrom, Niklas. 2005. "China and Central Asia: A New Great Game or Traditional Vassal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 (45), pp. 569-584. (November)
- Swanstrom, Niklas L. P., Svante E. Cornell and Anara Tabyshalieva. 2005. "A Conflict and Security Analysis of Central Asia: With Focus on Kyrgyzstan and Tajikistan." Silk Road Studies Program.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June)
- Toichi, Tsutomu. 1999. "Restructuring in the oil industry." The 2nd Asia Energy Security Roundtable,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Tokyo) 27-28 May.
- Tokyo Kyodo. 1998. "Japanese Azerbaijan firms to develop Caspian Sea Oil." (December 25)

- Tomberg, Igor. 2003. "Energy Policy In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 (22).
- Trofimov, D. 2001. "Tashkent between Ankara and Tehran: Lessons of the 1990s and Outlook for the Futur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 (11).
- Tursunov, Bakhram. 2002. "Extremism in Uzbekista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K33. (July)
- Umarov, Khojamahmad and Repkine, Alexandre. 2004. "Tajikistan's Growth Performance: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Urazova, E. 2001. "Trends in Turkey's Economic Cooperation with Post-Soviet Turkic State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 (11).
- Victor, David G. and Nadejda M. Victor. 2003. "Axis of Oil?" *Foreign Affairs*, Vol. 82, No. 2.
- Winrow, Gareth M. 1997. "Turkey and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f Central Asia and Transcaucasus."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 No. 2. (July)
- . 2001. "Turkey and Central Asia." In Roy Allison and Lena Jonson eds. *Central Asian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Contex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Yuri Kochub. 2003. "GUUAM and Equal Regional Cooper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Zakir Chotoev. 2003. "The Turkish Factor in The Evolution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Zonn, Igory and Zhiltsov, Sergey. 2003. "Russia and the U.S.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A search for Regional Stabilit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Vol. 19, No. 1.

[논문 자료]

- Астапов К. 2005. "Формирование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ран СНГ."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1.
- Ашимбаев М. С. и М. Т. Лаумулин. 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 _____. 2002. "Кита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в регионе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 Гушер А. 2005.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СНГ."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4
- Комиссина Н. Н. 1998. "Азиатский Вектор Полит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 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облика*.
- Мартынов А. 2005. "Перспективы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выбор долгосрочной стратегии стран СНГ."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9.
- Чернявский Станислав. 2005.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No. 6.

Emerging Central Asia and the Korean Countermeasures

Jae-Young Lee and Sang-Nam Park eds.

Central Asia, located near the emerging markets such as Russia, China and India, is gaining attention with its abundant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The market size in Central Asia is rapidly enlarging due to its hig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crease of population, showing high potentials of economic cooperation. The world is eager to enter into this value-rising region.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plan a systematic entry strategy.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in formulating a plan to enter Central Asia.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Central Asia, select important cooperation countries in Central Asia by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as well as its prospects. This research will conclude with the confronting measures for Korea by comparing the strategies of the major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ntered Central Asia, such as China, Turkey and Japan.

All countries in Central Asia are showing their political uniqueness. In case of Kazakhstan and Azerbaijan, they are willing to politically transform, however, their level of democracy is still low. Uzbekistan is still keeping a tight rein on their society. The political system in general is expected to be

settled in the near future.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is also differed by the country, according to their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natural resources, performance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ir openness of the economy. The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 are expected actively diverse their industries, enabled by exporting energy resources. Regarding the marketability, growth, potentials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environment, among the Central Asian countries, Korea should focus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Kazakhstan, Uzbekistan, and Azerbaijan as our important cooperation country before expanding our access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The eligible countries for Korea to benchmark are China, Turkey, and Japan, as they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heir status and strategies in entering Central Asia. In case of China, their strategic plan is pursued not at the regional level but at the global level. China's positive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support in Central Asia are enhancing the Chinese influence. Most of all, China is actively entering Central Asia with their aggressive energy securing strategy, of which is lead by the strong government.

With their active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in order to facilitate economic penetration, Turkey is strengthening their emotional and cultural band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of Turkish descent. Besides, the Turkish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the private companies' entering Central Asia.

Japan is practicing a strategy to promote their image as the collaborator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y giving financial support for infrastructure as well as material and humanitarian support. Japanese government is also encouraging their companies by offering an entry plan and road map to Central Asia,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support.

Since early 1990s when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alth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has steadily expanded, it has not met the potentials yet.

Central Asian countries possess abundant natural resources, which would excellently complement the Korean resources and technology. The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 desire to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Korean economic sectors, such as communications, construction, transportation, etc. Although it is an outstanding opportunity for Korea, Korea should establish differentiated investment penetration strategies regarding their characteristics since each country has diverse economic environment. On this sc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eralized Central Asia entry strategy at the government level.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supporting system for the enterprises that are expanding overseas to open a new market.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Korea i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to reinforce cooperative relations with Central Asia is to set priorities. The core objectives of Korea should be enlarging economic cooperation and securing energy resources, enhancing the geopolitical values, establishing a bridgehead to enter Eurasia, improving the status of Koreas as well as securing their safety. Sustainable entry strategies i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possible only after establishing concrete mid- and long-term plans to fulfill these objectives.

저자약력

이재영(李載榮)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미시간대학교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lly@kiep.go.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저, 2006)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저, 2006) 외

박상남(朴爽楠)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카자흐스탄 동방학연구소 해외주재 연구원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現, E-mail: peace2006@hs.ac.kr)

저서 및 논문

『중·러 관계진전인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공저, 2005)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강화와 경제협력』 (2006) 외

고재남(高在喃)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러시아 국제관계대학교 및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방문교수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現, E-mail: jnko92@mofat.go.kr)

저서 및 논문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게임과 관련국 대응』 (2005)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부상과 한국의 외교전략』 (2006) 외

이철원(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c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01)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저, 2006) 외

신현준(申鉉俊)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러시아/CIS 경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수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hjshin@kiep.go.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저, 2006)

『한국기업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공저, 2006) 외

이지은(李智恩)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대학원 석사

포스코 아시아 지역전문가 장학생 선발

타쉬켄트 국립 동방학대학교 박사과정 겸 강사(現, E-mail: deryasait@gmail.com)

저서 및 논문

『카자흐/우즈베키스탄 석유화학 산업 진출전략』 (공저, 2006)

Towards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urkey (2006) 외

Emerging Central Asia and the Korean Countermeasures

Jae-Young Lee and Sang-Nam Park eds.

최근 중앙아시아가 부상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출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차원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과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중장기 발전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중국, 터키,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는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자원의 확보, 지정학적 가치의 제고,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구축, 고려인의 입지 강화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우선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3개국을 중점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점차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ISBN 978-89-322-6091-4
978-89-322-6089-1 (세트)

정가 10,000원